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2025. 08



제 출 문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8월

연구기관명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진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원

이수재,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태운,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

심숙경, 인간과 자연 연구소 소장

강상인, (주)카이트엔지니어링 부사장(前 한국환경연구원)

연구보조원

강지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원

1. 서론

- 제주도는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BR, Biosphere Reserves), 2007년 세계자연유산(WR, World Natural Heritage), 2010년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을 지정받았고, 2006년 물영아리오름 등이 람사르 습지(RS, Ramsar Site)로 지정됨에 따라서, 중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네스코 중기전략 이행과 기후변화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등 국제적 차원의 환경보전 정책에서 국제보호지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 유네스코는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 :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IDA :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였다.
- 정부는 ‘2016년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모델 개발 및 국제 네트워크 센터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을 계기로, MIDAs 보전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승인(’ 19. 6.), 정부·유네스코 협정서 체결(’ 24. 2.), 재단법인 설립(’ 24. 4.), 센터 개소식(’ 25.04.29)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SDGs, K-M GBF 등 글로벌 목표 및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보호지역 관리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¹⁾인 GCIDA(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며, 조직 및 재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1)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C2C, UNESCO Category 2 Centre)는 회원국 정부와 유네스코와의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서 특정 분야에서 연구, 훈련, 역량강화를 수행하며, 유네스코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지역·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 GCIDA 현황

2.1. 주요 경과

- 2012. 09.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 채택
- 2015. 04.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모델 개발 관련 국제워크숍 개최 → 국제 네트워크 및 센터 설립 제안(제주도)
- 2016. 06. 국제보호지역 관련 유네스코 C2C 설립 건의(제주도→ 환경부)
- 2019. 06. 유네스코 현지 실사단 제주 방문
- 2019. 06. GCIDA 대한민국(제주도) 설립 결의(40차 유네스코 총회)
- 2021. 09.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 시범 운영(제주도)
- 2023. 03. GCIDA 설립 추진단 TF 구성(환경부)
- 2023. 12. GCIDA 설립(안) 국무회의 통과
- 2024. 02. 대한민국 정부-유네스코 협정서 체결
- 2024. 04. GCIDA 재단법인 설립(4.11.)
- 2025. 04. 센터 개소식(4.29.)

2.2 조직 및 예산 현황

2025년 7월 기준 GCIDA 운영조직은 이사회와 감사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상위 의사결정기구와 그 위임을 받아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기획행정팀, 연구개발팀, 훈련교류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은 총 12명으로 센터장 1명을 비롯하여 팀장 2명, 팀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예산액은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다.

3. 국제보호지역 관련 국제 동향

3.1 IDA/MIDA 지정 현황 및 동향²⁾

국제보호지역(IDA)은 세계 또는 지역 차원의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을 일컫는 용어이다. '세계유산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계

2) Reference : IUCN, (2016) Managing MIDAs: Harmonising the management of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획’,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계획’, ‘람사르협약’ 에 의해 지정된(designated) 지역이다(IUCN, 2016).

한편,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은 IDA 2~4 가지에 대해서 전체 또는 일부가 중첩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별 IDA의 지위는 고유의 관리기준과 운영체계를 요구하지만, 동일 공간에서 중복 운영될 경우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MIDAs는 이러한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리방식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3.1.1 세계자연유산

- 설립 목적: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통칭 『세계유산 협약』은 자연보전과 문화재 보존의 개념을 하나의 문서로 연계한 것이다. 인류가 창조한 문화유산과 자연이 빚어낸 자연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가지며, 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제시하여 미래세대에 이를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목표 :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지역과 문화지역을 확인하여 보전한다.
- 연혁 :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적 운동이라는 아이디어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두되었다. 이 협약은 두 가지 별개의 운동을 하나로 합치면서 발전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문화지역의 보존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연보전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에는 단일 조문을 작성하여 모든 관련국들이 이에 합의하였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은 1972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최초 20개 당사국의 비준에 따라 1975년에 발효되었다.
- 법 체계: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확인하고 보전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여기에는 잠재적 유산 확인이라는 당사국의 의무와 그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 관리 체계: 『세계유산협약 및 그에 따른 세계유산목록』은 파리(프랑스)에 소재한 유네스코 본부 문화 섹터 산하의 세계유산센터가 관리한다.
- 참여국(당사국) 총수: 196개
- 등재국 총수: 168개
- 세계자연유산 등재수(2025.05월 기준) : 231개

3.1.2. 생물권보전지역

- 설립 목적: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B) 계획』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이다. MAB 계획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제학, 교육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부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주요 목표: 『MAB 계획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등재된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지속가능성 지원 지역을 위한 과학”으로서, 사회 및 생태 시스템 간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제적 시범지역의 기능을 담당한다.
- 연혁: 1971년 11월 유네스코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회의³⁾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MAB 계획 자체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부간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되었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정책결정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적 지식의 원천 역할을 해 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중요 MAB 프로젝트 영역(총 14개) 중 “자연지역과 그 권역 내 유전 자원의 보전”이라는 제 8영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76년 최초 지정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MAB 계획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 법 체계: 생물권보전지역은 각국 정부가 신청하며 해당 지역이 위치한 국가의 주권 영토로서 계속하여 존재한다. 그들의 지위는 국제적 인정을 받는다. MAB 국제조정이사회(MAB-ICC)의 결정에 따라 정부간 『MAB 계획』 하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한다. 1995년 유네스코총회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세비야 전략』과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을 승인하였으며, 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과 공식 인정을 위한 “연성법 체계”로서 기능한다. 유네스코의 194개 회원국과 9개 협력회원이면 누구나 등재를 제안할 수 있다
- 관리 체계: 『MAB 계획 및 그에 따른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는 유네스코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 자연과학 섹터 산하 생태계 및 지구과학 분과(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내에 설치된 국제 MAB 사무

3)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스톡홀름 회의’)로, 현대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국이 관리한다.

- 등재국 총수: 136개
- 등재수(2025.05월 기준) : 759개

3.1.3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설립 목적: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공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중요시한다
- 주요 목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인류가 살고 있는 동적인 지구라는 맥락에서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기타 모든 양상과 연계하여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한다.
- 연혁: 지질공원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지구 역사에 있어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경관과 지형은 우리 행성의 진화 양상의 주된 증거이자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결정 요인이기도 하다. 2004년에는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의 17개 당사국과 중국은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GGN)를 창설하였다. 유네스코 총회는 2015년 제38차 회의에서 IGGP(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국제지질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 산하 세계지질공원을 모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법 체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총회가 제38차 회의에서 승인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되고 기능한다. 유네스코내 194개의 회원국과 9개의 협력기구라면 누구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리 체계: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은 IGGP에 속하며, IGGP는 유네스코와 세계지질과학연맹(IUGS)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 자연과학 섹터 산하 생태·지구과학 분과 내에 설치된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 등재국 총수: 50개
- 등재수(2025.05월 기준) : 229개

3.1.4 람사르습지

- 설립 목적: 『람사르협약』으로 약칭하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은 습지와 그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가 행위와 국제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정부간 조약이다.
- 주요 목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의 일환으로 지역과 국가, 나아가 국제 차원의 협력을 통해 모든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한다.
- 연혁: 『람사르협약』은 세계 각국의 정부 간에 체결한 현대적 환경 협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에 물새의 습지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고 파괴되는 것을 염려한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이 이 조약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1971년 2월에 이란의 람사르라는 도시에서 채택되어 유네스코(협약의 출원기구)가 일곱 번째 당사국으로 그리스의 가입을 인정한 뒤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 법 체계: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보전하고 유지하며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거나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가입국들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이다.
- 관리 체계: 람사르협약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국제 환경협약으로, 사무국은 스위스 글랑(Gland) 소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본부 내에 위치하며, IUCN의 행정 지원을 받는다. 유네스코는 협약의 공식적인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 등재국의 총수: 172개
- 등재수(2025.05월 기준) : 2,538개

3.1.5 MIDAs

MIDAs는 IDA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복합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개별 IDA처럼 MIDAs만의 표준화된 설립목적, 연혁, 법체계, 관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263개의 MIDAs가 있다. IDA는 개별 정보에 대하여는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었으나, MIDAs에 대하여는 이들에 대한 구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전산자료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다.

3.2 IDA/MIDA 관련 주요 글로벌 전략

3.2.1 국제 정책 프레임워크

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포함한다. GCIDA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목표는,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4(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15(육상생태계 보전)이다. 특히 목표 15의 세부 목표는 산림, 습지, 토양 등 육상생태계 보전과 복원, 멸종위기종 보호, 외래종 관리, 생물다양성 가치의 국가계획 반영 등을 포함한다.

이는 GCIDA가 관리하는 (다중) 국제보호지역(IDA/MIDAs)이 단순히 경관이나 지질학적 가치 보존을 넘어 기후·생태계 서비스 관리 및 복원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GCIDA는 각 지역의 관리계획에 SDGs 이행을 반영하고, 국제적 모니터링 지표(예: 보호지역 면적,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등)를 활용하여 관리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생물다양성 협약(CBD)⁴⁾

CBD는 보호지역을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도구로 규정하며, 시기별 전략계획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2002-2010 전략계획: 보호지역 작업프로그램(PoWPA)을 통해 육상·해양 보호지역 확대를 목표로 제시.
-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 목표): 2020년까지 육상·내수면 17%, 해양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Target 11).
- 2022-2030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30x30 목표” (2030년까지 육상·해양 각각 30% 보전)를 채택.

GCIDA는 이러한 국제 목표를 IDA/MIDAs 운영의 전략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특히 ‘양적 확대+질적 관리’라는 글로벌 전환 흐름에 맞추어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IDA/MIDAs는 단순 국제보호지역의 유지가 아닌 지역사회 참여·과학적 모니터링·지속가능한 활용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CBD와 연계된 IPBES(정부간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플랫폼)는 과학-정책 연계의 핵심 허브로, GCIDA는 정책 자문 및 연구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있다.

4)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조약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유전자원 이익 공유를 3대 목표로 하며, 현재 글로벌 생물다양성 거버넌스의 핵심 틀을 이룬다.

3.2.2 UNESCO

가. UNESCO 중기 전략(2022-2029)

UNESCO의 최상위 전략문서인 「Medium-Term Strategy 2022-2029(41 C/4)」는 SDGs와 연계하여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보장
- 과학 협력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기후변화·생물다양성 포함)
- 인권·문화다양성·표현의 자유 보장
-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통한 사회적 변화 촉진

여기서 GCIDA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과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이다. UNESCO는 IDA를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oratories)”로 규정하며, 기후위기 대응·생물다양성 보전·수자원 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GCIDA는 UNESCO 전략에 따라 IDAs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청년 역량 강화·시민참여 과학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UNESCO는 아프리카, 성평등, 소도서개발도상국(SIDS)⁵⁾, 청년을 글로벌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GCIDA는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SIDS 대상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성평등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나. UNESCO 프로그램과 예산(42 C/5, 2024-2025)

UNESCO는 IDA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역 맞춤형 실험·학습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권장한다.

-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은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실험 무대
- 저비용 디지털 기술(TinyML 등)과 시민참여 과학 도입
- 국제연구 협력(유네스코 석좌·UNITWIN 네트워크 등) 강화

GCIDA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UNESCO의 국제 네트워크 속에서 정책·연구·교육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면 GCIDA의 위상도 향상될 것이다.

5) SIDS(소도서개발도상국): 유엔이 지정한 소규모 섬나라 중 경제적·지리적 취약성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면적이 좁고 인구나 자원이 제한적이며, 기후변화·해수면 상승·자연재해 등에 특히 취약하다.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선적 지원 대상 그룹으로 다루어진다. 군소도서개발국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례를 반영하여 소도서개발도상국으로 표기함.

다. 파트너십 및 재원 전략

UNESCO는 디지털 전환, 민간기업 및 NGO 협력, 국가위원회 활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GCIDA는 한국유네스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SIDS 지원과 연계한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재원 조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3.3 GCIDA 업무에 대한 시사점

- IDA 관리 역량 강화 필요: 지역 및 국가 간의 IDA 관리 역량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GCIDA는 현장 관리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MIDAs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 필요: IDA 별 정보는 유네스코 혹은 랍사르 사무국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나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MIDAs에 대한 정보 접근에 불편함이 있다. 이에 GCIDA는 MIDAs의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공유 허브를 갖출 필요가 있다.
- MIDAs 네트워크 구축 필요: 개별 IDA 내 네트워크는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거나 MIDAs 간 교류·협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GCIDA는 MIDAs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기적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MIDAs 관계자들 간의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MIDAs 유기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중첩 지정 사례의 증가에 따라 관리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GCIDA는 MIDAs의 유기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 유네스코와의 연계 강화 필요: GCIDA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서 UNESCO의 전략 및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성 평등, 청년 등 유네스코의 우선 순위를 반영 하여야 하며, 유네스코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사업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4. GCIDA 미션 비전, 가치 및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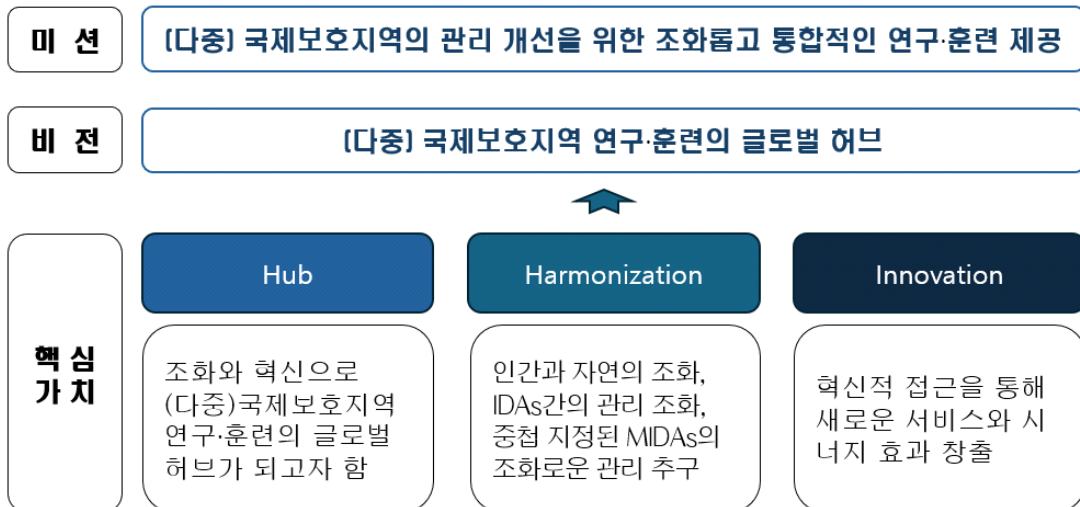
4.1 GCIDA 미션, 비전

가. 미션: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개선을 위한 조화롭고 통합적인 연구·훈련 제공”

나. 비전: “(다중)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

다. 핵심가치

- Hub: 조화와 혁신으로 (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가 되고자 함
- Harmonization: 인간과 자연의 조화, IDAs 간의 관리 조화, 중첩 지정된 MIDAs의 조화로운 관리 추구
- Innovation: 혁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시너지 효과 창출



<GCIDA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 체계도>

4.2 GCIDA 중장기 핵심과제

GCIDA 중장기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은 국제보호지역 및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9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분야 추진 방안

구분	2024 ~	2027~	2030 ~	2040 ~
단계	기반조성	확장	도약	안정화
조직	3팀 10명	3팀 15명	3팀 20명	3팀 30명
예산	12 ~ 18억원	21 ~ 27억원	30 ~ 33억원	40억원

4.2.1 국제보호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IDA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GCIDA가 운영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지원 방식, 전문가 자문단, 웹 기반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요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리제도의 개선, 신규 지정 및 보고 준비 지원 등 IDA 운영기관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4.2.2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

MIDAs 관련 데이터·정보·지식(이하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MIDAs 정보공유 허브는 단순한 정보의 집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MIDAs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정보 아카이빙 구조, 유관 플랫폼 간 협력 체계, 정보 관리 프로토콜 등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또한 정보 분류 체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식 콘텐츠를 확충하여 MIDAs 관련 정보 등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MIDAs 정보공유 Hub는 이해관계자들의 MIDAs 관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GCIDA의 다른 사업 성과를 극대화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GCIDA는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을 통해 MIDAs 관련 지식 콘텐츠 및 정보 네트워크의 허브로의 도약을 도모한다.

4.2.3 MIDAs Guide Book 연구 및 출판 사업

유네스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연구 협력을 통해 전 세계 MIDAs 지역들에 대해 소개하고 홍보하는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MIDAs Guide Book의 콘텐츠는 기존의 여타 연구 사업과 달리 국제기구 등 상위 기관 혹은 세계적 전문가에 의하여 Top-Down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을 소개하는 Bottom-Up 방식으로 마련된다. GCIDA가 지역의 소개와 홍보를 위한 템플릿과 콘텐츠의 확산을 위한 플랫폼(MIDAs 정보공유 허브 등)을 제공하여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MIDAs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MIDAs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와 현안을 풀뿌리 형식으로 수집·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이 중첩 지정을 통해 얻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2.4 MIDAs 네트워크 구축 및 주기적 포럼 개최

전 세계 다중 지정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위해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GCIDA 주도로 MIDAs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출범함으로써 MIDAs 지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MIDAs 관련 관리자 및 UNESCO, 랍사르, IUCN 등 국제기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포럼을 개최하여 MIDAs의 유기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럼은 유네스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홀수 해에는 제주도에서 짝수 해에는 권역별로 순회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GCIDA는 MIDAs 교류·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4.2.5 MIDAs 유기적 관리 매뉴얼 마련

각 MIDAs 지역의 현장 관리자 및 정책 결정자들을 위하여 4대 국제보호지역의 고유 지정 목적을 존중하면서 상호 연계 가능한 유기적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유기적 관리의 우수사례 및 연구사례, 핵심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국제보호지역 맞춤형 사업, MIDAs 정보공유 허브사업, IUCN의 Managing MIDAs 사업 등을 통해 MIDAs의 국제적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MIDAs의 조화로운 관리를 위한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 유기적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MIDAs의 글로벌 관리 역량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4.2.6 e-Campus 및 인증 제도 추진

온라인 학습 플랫폼(e-Campus)과 전문가 인증 제도를 구축하여 국제보호지역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교육 콘텐츠 제공, 수료자 DB 구축, 인증제도를 통해 전문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정책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GCIDA의 국제적 위상과 제도적 신뢰성을 강화한다.

4.2.7 유네스코 연계 MIDAs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MIDAs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본부가 추진하는 중점협력국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MIDAs에 특화된 전문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

아프리카, SIDS 출신, 성평등 등 UNESCO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태계 관리, 지역사회 참여, 국제 기준 적용 등을 교육하며, 현장 학습을 병행한다. 참가자 간 교류와 사례 공유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정책 개선에도 기여한다. 이를 통해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4.2.8 미래세대 국제보호지역 교육과정 개발

미래 세대(Youth)를 대상으로 국제보호지역의 가치를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요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 세계시민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의 교실(ESD)가 될 수 있다. 이에 유네스코 본부 및 제주도 내 관계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청, UNITAR) 등과 협력을 통해 국제보호지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등을 주제로 하는 워크북 및 제주 내 체험학습 프로그램 코스를 개발하고 모집 및 인증 절차 등 교육 과정을 수립 및 운영하여 교육 과정의 효용성과 인지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차세대 리더 육성, 국제 교류 확대, 국내 관리체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한다.

4.2.9 기타 핵심과제

가. 국제환경재정 연계형 사업 발굴 등 재원 다변화 전략 수립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유·무상 ODA와 민관 협력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GCIDA는 관련 재원과 연계한 연구 및 교육 훈련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 등 GCIDA의 전략 사업을 GCIDA는 GEF⁶⁾, GC F⁷⁾ 등 국제환경기금 및 국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원의 다변화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ODA 기여 확대 노력에 부응할 수 있다.

나. 주기적 중장기 계획 환류 및 수립 체계 확립

UNESCO C2C는 6년마다 설립 협정서를 갱신 하여야 한다. GCIDA는 갱신 주기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가 필요하다.

12년 마다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협정서 상의 목적·기능과 실제 운영 성과를 비교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지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협정문에

6)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은 1991년 설립된 다자 환경 금융 메커니즘으로, 기후변화·생물다양성·국제수역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재원을 지원한다.

7)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2010년 UNFCCC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설립이 결정된 국제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GCIDA의 비전과 가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GCIDA는 기관 운영의 장기적 연속성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 수 있으며 기관의 운영 방향과 국제법적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국제 공동사업 활성화 및 환류 체계 구축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 GCIDA 유관 기관은 UNESCO, IUCN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기여금 기탁⁸⁾, 공동 사업 운영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GCIDA 또한 국제 협력 및 공동 사업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여 국제 기금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GCIDA 사업 운영의 가시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8) 일례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와 IUCN과 체결된 업무협약(MOU) 및 재정 기여 서신 등 그 부속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IUCN에 재정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로 GCIDA와의 협업을 명시하고 있다.

1. Introduction

- Jeju Island was designated by UNESCO as a Biosphere Reserve in 2002,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2007, and it was designated a Global Geopark in 2010, which only became a UNESCO Global Geopark in 2015. In addition, Mulyeongari Oreum was designated as a Ramsar Site in 2006. These overlapping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DAs) have resulted in the need for sustainable management strategies.
- The role of IDAs has been further emphasiz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ies such as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ESCO's Medium-Term Strategy,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
- Since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at the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 held on Jeju in September 2012, UNESCO has been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IDAs, including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MIDAs).
- Based on a proposal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SSGP) in 2016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Model for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Networking Centre’, the Korean government work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GCIDA)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his initiative aims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by providing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s to strengthe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apacity of MIDAs in a coordinated and integrated manner. Key milestones include: approval of the centre’s establishment at the 40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June 2019); signe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SCO (February 2024); GCIDA Foundation established (April 2024); opening ceremony for the centre (April 29, 2025).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edium- to long-term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that aligns with the status and role of GCIDA as a UNESCO Category 2 Centre⁹⁾ (C2C). A C2C is an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9) A UNESCO Category 2 Centre (C2C) is an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an agreement between a Member State and UNESCO. It conducts research, training, and capacity-building in specific fields, and serves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support UNESCO's global programmes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n agreement between a Member State government and UNESCO that is mandated to undertake research,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in specific fields, and to support UNESCO's global programmes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is study further seeks to identify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for key strategic projects and to establish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strategies to enhance the execution of the centre's medium- to long-term strategies.

2. Current Status of GCIDA

2.1. Major Milestones

- 2012. 09. Adoption of the resolution on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IDAs at the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in Jeju
- 2015. 04.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model for MIDAs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network and centre (JSSGP)
- 2016. 06.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ESCO C2C related to IDAs (JSSGP →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MOE))
- 2019. 06. Site inspection mission to Jeju conducted by UNESCO.
- 2019. 06. Resolution adopted approving the establishment of GCIDA in the Republic of Korea (JSSGP) (40th UNESCO General Convention)
- 2021. 09. Implementation of a pilot training programme for managers (JSSGP)
- 2023. 03. Establishment of the GCIDA Preparatory Task Force (MOE)
- 2023. 12. GCIDA establishment plan approved at the Cabinet Meeting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2024. 02. Signing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SCO
- 2024. 04. Establishment of the GCIDA Foundation
- 2025. 04. Official GCIDA opening ceremony

2.2 Organization and Budget Status

As of July 2025,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GCIDA comprises a top-level decision-making body in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an auditor and an advisory

committee as well as an executive branch consisting of the Center Director and three functional team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raining and Exchange. The executive branch operates under the authority delegated by the decision-making body.

The organization is staffed by a total of 12 employees, including one Centre Director two, Team Leaders, and nine Team Members.

The allocated budget for 2025 is KRW 1.215 billion.

3. International Trends in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3.1 Status and Trends of IDA/MIDA Designations¹⁰⁾

IDA is a term that refers to an area that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rough global or regional certification. These areas are designated under frameworks such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UNESCO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 th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and the Ramsar Convention (IUCN, 2016).

Meanwhile, MIDAs are areas where two to four IDA designations overlap, either partially or entirely. While each IDA requires its own management standards and operational framework, overlapping designations within the same geographic space may lead to inefficiencies and potential confusion in management. Therefore, MIDAs necessitate a harmonized and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 that minimizes overlaps and conflicts while generating synergistic benefits

3.1.1 World Natural Heritage

- Purpose :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ommonly known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tegrates the concepts of nature conservation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into a single document. Cultural heritage created by humanity and natural heritage shaped by nature posses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The Convention aims to identify, protect, conserve, and present both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o ensure their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 Main objective : Identify and conserve natural and cultural sites possess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History : The idea of an international movement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10) Reference : IUCN, (2016) Managing MIDAs: Harmonising the management of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heritage emerg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This convention developed by merging two distinct movements, one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sites, and the other on nature conservation. Ultimately, a single text was drafted and agreed upon by all relevant states.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as adopted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on November 16, 1972. It officially came into force in 1975, following ratification by the initial 20 States Parties.

- Legal framework :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identifying and conserving the world's most outstanding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It outlines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identify potential heritage sites and the roles they must undertake to protect and preserve them.
- Administrative arrangements :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corresponding World Heritage List are managed by the World Heritage Centre, which operates under the Culture Sector of the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France.
- Total participating Countries (State Parties) : 196
- Total number of inscribed countries : 168
- Number of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as of May 2025) : 231

3.1.2. Biosphere Reserves

- Purpose : UNESCO's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 is an intergovernmental scientific initiative aimed at establishing a scientific basis for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 MAB Programme integrates natural and social sciences, economics, and education to enhance human livelihoods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while protecting both natural and managed ecosystems. It promotes innovative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that are socio-culturally appropriat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 Main objective : Biosphere reserves listed in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under the MAB Programme seek solutions that reconcile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with its sustainable use. Considered as "science for sustainability support sites", they function as interdisciplinary testing sites to understand and manage changes and interactions between social and ecological systems.
- History : The MAB Programme was established by UNESCO in November 1971 and endorsed at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¹¹⁾ on the Human

11)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held in Stockholm, is widely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Environment. Originally developed as an intergovernmental research initiative focused on the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 MAB Programme has served as a critical source of scientific knowledge for policymakers striving to manage natural resources sustainably. Biosphere reserves originated within the frame of Major MAB Project Area No. 8 (among 14 other Major MAB Project Areas) entitled “Conservation of natural areas and the genetic resources they contain”, before moving to the centre of the MAB Programme following the designation of the first sites in 1976.

- Legal framework :Biosphere reserves are nominated by national governments and remain under the sovereign jurisdiction of the respective countries in which they are located. Their status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designates biosphere reserv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B Programme following the decisions of the intergovernmental MAB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MAB-ICC). In 1995,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dopted the Seville Strategy for Biosphere Reserves and 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the latter serving as a soft law mechanism for the development and official recognition of biosphere reserves. Any of UNESCO’s 194 member states or 9 associate members may propose nominations for designation.
- Administrative arrangements : The MAB Programme and its associated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are managed by MAB Secretariat, which is established within the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under the Natural Sciences Sector at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 Total number of inscribed countries : 136
- Number of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as of May 2025) : 759

3.1.3 UNESCO Global Geoparks

- Purpose : UNESCO Global Geoparks are designated sites recognized for their geological significance that seek to protect geological heritage,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ffective management. Beyond conservation, UNESCO Global Geoparks emphasize enhancing local revenue and fostering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active community involvement.
 - Main objective : UNESCO Global Geoparks protect and utilize geological heritage in connection with all other aspects of that area’s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They aim to enhanc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key issues facing society in
-

the context of the dynamic planet on which we live.

- History : The concept of geoparks emerged in the mid-1990s in response to the growing need to conserve and enhance areas of geological significance in Earth's history. Landscapes and geological formations are key witnesses to the evolution of our planet and determinants for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4, with the support of UNESCO, 17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Geoparks Network and 8 Chinese geoparks jointly established the Global Geoparks Network (GGN). At its 38th session in 2015,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greed to establish all existing Global Geoparks within th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IGGP) as UNESCO Global Geoparks.
- Legal framework : UNESCO Global Geoparks are designat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al Guidelines approved at the 38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ny of UNESCO's 194 member states or 9 associate organizations may propose sites for designation.
- Administrative arrangements : UNESCO Global Geoparks belong to the IGGP, an international initiative jointly managed by UNESCO and the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The programme is administered by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Secretariat, within the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under the Natural Sciences Sector at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 Total number of inscribed countries : 50
- Number of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as of May 2025) : 229

3.1.4 Ramsar Site

- Purpose :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Ramsar Convention, is an intergovernmental treaty that provides a framework for national a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 and their resources.
- Main objective :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all wetlands through local and national ac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contribution towards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out the world.
- History : The Ramsar Convention is the oldest of the modern intergovernmental environmental agreements worldwide. During the 1960s, concerns over the loss and degradation of wetland habitats for waterfowl prompted negotiations among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onvention was adopted in

February 1971 in the city of Ramsar, Iran, and came into force after UNESCO, the depositary organization, recognized Greece as the seventh Contracting Party.

- Legal framework : The Ramsar Convention is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embodying the commitments of its Contracting Parties to conserve and maintai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and to plan for the “wise use”, or sustainable use, of all wetlands within their territories.
- Administrative arrangements : Ramsar is not administered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It is managed by a stand-alone secretariat located in Gland (Switzerland) and is hosted under contract by IUCN. UNESCO acts as the depositary for the convention.
- Total number of inscribed countries : 172
- Number of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as of May 2025) : 2,538

3.1.5 MIDAs

MIDAs is a term to refer to an area with overlapping IDAs, including double, triple, or quadruple designations. Unlike specific IDAs, MIDAs do not have standardized purposes for establishment, histories, legal frameworks, or management systems. As of October 2015, there were 263 MIDAs. While all information on individual IDAs has been digitized, as MIDAs lack clear classification criteria,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organization of MIDA-related data.

3.2 Key Global Strategies and Implications Pertaining to IDA/MIDA

3.2.1 International Policy Frameworks

I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SDGs encompass 17 global goals and 169 targets to be achieved by 2030. The core goals directly related to GCIDA are Goal 13 (Climate Action), Goal 14 (Life Below Water), and Goal 15 (Life on Land). Specifically, the targets under Goal 15 include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errestrial ecosystems such as forests, wetlands, and soils;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management of invasive species; and integration of biodiversity values into national planning.

This implies that IDAs/MIDAs under the purview of GCIDA must go beyond a simply preserving landscapes or geological values and also perform functions related to climate regulation, ecosystem services management, and restoration. Therefore, GCIDA is required to incorpo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to the management plans of each area and to share management outcom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utilizing global monitoring indicators, such as protected area coverage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II.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¹²⁾

The CBD recognizes protected areas as key instrument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 timeline of the Convention and its strategies is outlined below.

- 2002-2010 Strategic Plan : The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 set the goal of expanding terrestri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 2011-2020 Strategic Plan (Aichi Targets) : By 2020, conserve 17%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s and 10% of coastal and marine areas as protected areas (Target 11).
- 2022-2030 K-M GBF : "30 by 30" target adopted to conserve 30% of Earth's terrestrial and marine areas by 2030

GCIDA should adopt these international goals as strategic benchmarks for the management of IDAs/MIDAs and, in particular, work to strengthen management capacity in line with the global shift toward both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management. Rather than merely maintaining International Designated Area, IDA/MIDAs need to explore approaches that combine community participation, scientific monitoring, and sustainable use. Additionally,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which is linked to the CBD, serves as a key hub for science-policy integration. GCIDA should position itself as a major partner of the IPBES for policy advice and collaborative research.

3.2.2 UNESCO

I. UNESCO Medium-Term Strategy (2022-2029)

UNESCO's highest-level strategic document, the Medium-Term Strategy 2022 - 2029 (41 C/4), emphasiz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n connection with the SDGs. The main strategic objectives are as follows:

- Ensuring Inclusive and Equitable Education for All
-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Expanded Scientific Collaboration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12)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dopted in Rio in 1992, i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with three primary objectives: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genetic resources. It currently serves as a central framework for global biodiversity governance.

- Ensuring Human Rights, Cultural Divers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 Promoting Social Change through Digital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area most directly relevant to GCIDA is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scientific cooperation.” UNESCO defines IDAs as "living laboratories" and emphasizes their role as key sites for addressing climate crises, conserving biodiversity, and managing water resources. Accordingly, GCIDA should align with UNESCO’s strategic direction by expanding pilot projects, youth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and citizen science programmes in collaboration with IDAs.

Additionally, UNESCO has identified Africa, gender equality,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¹³, and youth as global priorities. By leverag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sland regions, including Jeju, GCIDA can prop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s targeting SIDS. In particular, there is a pressing need to develop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mes focused on youth and gender equality.

II. UNESCO Programmes and Budget (42 C/5, 2024-2025)

UNESCO considers IDAs strategic assets and encourages their development as region-specific experimental and learning hubs.

- Geoparks and biosphere reserves serve as experimental platform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ecosystem service conservation
- Introduction of low-cost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TinyML) and citizen science.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including UNESCO Chairs and the UNITWIN Network).

GCIDA’s stature can be enhanced by proactively participating in these programmes and strengthening its role as a policy, research, and education platform within UNESCO’s international network.

III. Partnership and Funding Strategy

UNESCO is expanding its influence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NGOs, and the utilization of national commissions.

13)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refer to a group of small island countries designated by the United Nations that share common economic and geographic vulnerabilities. These states typically have a limited land area, population, and resources, making them especially susceptible to climate change, sea-level rise, and natural disasters. Internationally, SIDS are recognized as a priority group for targeted support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GCIDA should work closely with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o serve as a hub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Additionally, through international projects linked to support for Africa and SIDS, GCIDA can secur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funding.

3.3 Implications for GCIDA Tasks

- **Strengthen IDA Management Capacity:** There are disparities in IDA management capabilities across regions and countries. Accordingly, GCIDA should implement tailored capacity-building programmes for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field managers.
- **Develop an Online Information-Sharing Platform for MIDAs:** Although information on individual IDAs is accessible through UNESCO or the Ramsar Secretariat, it is managed in a fragmented manner, causing difficulties in accessing comprehensive data on MIDAs. Therefore, GCIDA needs to establish an integrated information-sharing hub to provide centralized access to MIDA-related information.
- **Establish a MIDAs Network:** While networks under specific IDA mechanisms are relatively active,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MIDAs remains insufficient. Therefore, GCIDA should establish a MIDAs network and organize regular forums to foster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MIDAs stakeholders worldwide.
- **Develop an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 for MIDAs:** With the increasing occurrence of overlapping designations, various issues, such as management inefficiencies, have emerged. Therefore, GCIDA should conduct research on integrated management strategies for MIDAs and promote their international adoption..
-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UNESCO:** As a UNESCO Category 2 Centre, GCIDA must closely align with UNESCO's strategies and initiatives. To this end,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s should incorporate UNESCO's priorities, such as gender equality and youth empowerment.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design projects that are directly linked to UNESCO's programmes.

4. GCIDA Mission, Vision, Values and Key Tas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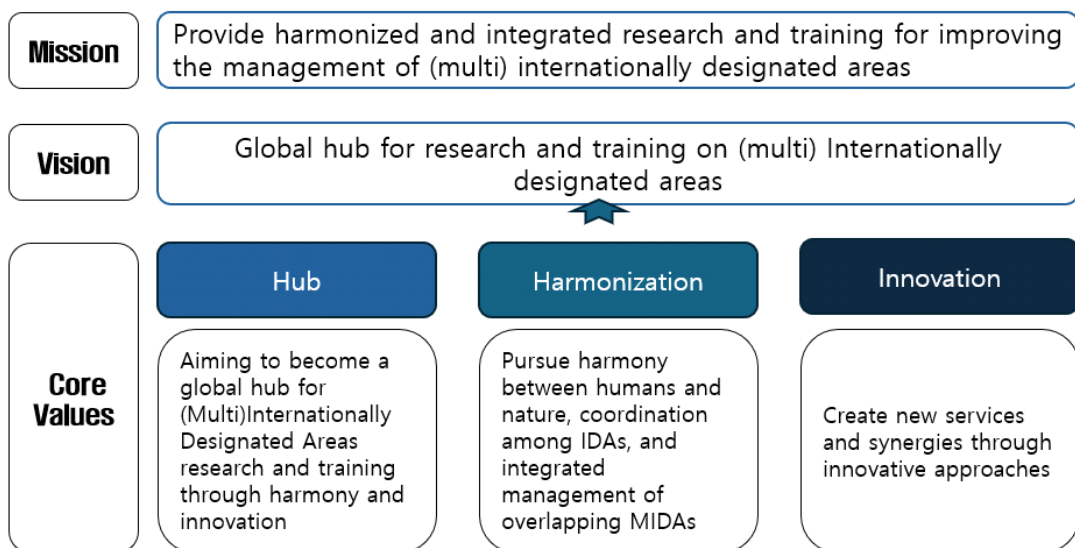
4.1 GCIDA Mission, Vision

- I. Mission : “Provide harmonized and integrated research and training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Multi) IDAs”

II. Vision : “Global hub for research and training on (Multi) IDAs“

III. Core Values

- Hub : Establish a global hub for (Multi) IDAs research and training through harmony and innovation
- Harmonization : Pursue harmony between humans and nature, coordination among IDAs,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overlapping MIDAs
- Innovation : Create new services and synergies through innovative approaches



<GCIDA Mission, Vision, and Core Values System>

4.2 GCIDA Mid-Long Term Key Tasks

The personnel and budget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GCIDA’s mid- to long-term core tasks are expected to gradually increas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demand for the management of IDAs and MIDAs.

※ Implementation Measures for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to Support the Nine Key Tasks

Category	2024 ~	2027~	2030 ~	2040 ~
Stage	Capacity Building	Expansion	Advancement	Stabilization
Organization	3teams, 10 members	3teams, 15 members	3teams, 20 members	3teams, 30 members
Budget	USD1.2 ~ 1.8 Milion	USD2.1 ~ 2.7 Milion	USD3.0 ~ 3.3 Milion	USD4.0 Milion

4.2.1 Implement Tailored Support Programmes for IDAs

To strengthen IDA management capac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ailored support system based on area-specific demands. GCIDA should develop an operational framework that incorporates both online and offline support methods, expert advisory groups, and online systems. Through pilot projects, these initiatives can be gradually expanded, providing customized consultation according to specific support needs. This approach aims to enhance the practical capabilities of IDA-managing organizations by improving management systems, supporting new designations, and preparing reports.

4.2.2 Establish and Operate MIDAs Information Sharing Hub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grated online information-sharing platform that provides comprehensive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ated to MIDAs (here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The MIDAs information-sharing hub aims not merely to aggregate information but to systematically archive relevant data and effectively deliver essential information to stakeholders.

To achieve this, an initial basic plan will be developed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archiving structure, cooperation frameworks among related platforms, and information management protocols. Subsequently, an online system will be developed and operated. Additionally, Content will be continuously expanded according to a system of classification to serve as a clearinghouse for MIDAs-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is, the MIDAs information-sharing hub can enhance stakeholder access to MIDAs-related inform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capacity of IDAs. It will also serve as a platform to maximize the outcomes of GCIDA's other

projects. By building and operating the MIDAs information-sharing hub, GCIDA aims to advance as a central hub for MIDA-related data and information networks.

4.2.3 Research and Publish MIDAs Guidebook Project

A research initiative is needed to introduce and promote global regions with MIDAs through collaborative research with UNESCO and JSSGP. Unlike conventional studies conducted in a top-down manner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global experts, the content of the MIDAs Guidebook follows a bottom-up approach so that MIDAs are presented and promoted directly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To facilitate the dissemination of content, GCIDA will provide templates for introducing and promoting MIDAs regions in tandem with platforms such as the MIDAs information-sharing hub. This will enable local stakeholders to independently introduce and promote their MIDAs. Through this approach, on-the-ground information and issues related to MIDAs worldwide can be collected and updated from the grassroots, helping each region maximize the potential socioeconomic benefits of overlapping designations.

4.2.4 Establish MIDAs Network and Hold Regular Workshops

A project is needed to establish a global network among MIDAs and to hold regular forums to facilitate exchange and cooperation. Led by GCIDA, the initiative aims to launch an international network targeting MIDAs regions to enhance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among these areas. Additionally, an annual forum will be convened for MIDAs managers and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Ramsar, and IUCN to discuss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es for MIDAs and to set a global agenda.

The forums can be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and JSSGP, with the possibility of alternating venues: Jeju in odd-numbered years and regional locations in even-numbered years. In this way, GCIDA can establish itself as a central hub for MIDAs exchange and cooperation.

4.2.5 Establish Coordinated Management Framework for MIDAs

A project is needed to develop an integrated management manual that respects the unique designation objectives of the four major international protected area categories while enabling interconnectivity for on-site managers and policymakers of each MIDA region.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MIDAs management will be assessed by examining best practices and research on integrated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 tailored support projects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outlined among the GCIDA core tasks, including the MIDAs information-sharing hub project and the IUCN's Managing MIDAs initiative. Based on this assessment, appropriate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es such as monitoring systems and governance structures will be identified to facilitate the harmonious management of MIDAs.

This will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a management manual applicable internationally, directly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global management capacity of MIDAs.

4.2.6 Implement e-Campus and Accreditation System

A project is needed to establish an online learning platform (e-Campus) and an expert certification system to enhance expertise in IDAs management. Through the provision of educational content, the creation of a graduate database, and the implementa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expert competencies will be systematically managed. This initiative aims to improve educational effectiveness, strengthen expert networks, expand the applicability of policies and field practices, and enhance GCIDA's international standing and institutional credibility.

4.2.7 Host UNESCO-linked Capacity Building Workshop for MIDAs Managers

A project is needed to conduct practical, hands-on training workshops for MIDAs managers. In coordination with the capacity-building workshops of UNESCO Headquarters targeting priority partner countries, GCIDA will offer workshops tailored to MIDAs to reinforce professional skills.

Participants will be selected with consideration of UNESCO's priorities, including Africa, SIDS, and gender equality. The training will cover ecosystem management, community engagement,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complemented by field learning experiences.

Through participant interaction and case sharing, the workshops will foster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contribute to domestic policy improvements. This initiative aims to substantially strengthen the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responsiveness of managers overseeing multiple international designated areas.

4.2.8 Develop Curriculum on IDAs for Future Generation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educational curriculum targeting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that integrates the values of IDAs with key componen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 IDAs can serve as “sustainability classroom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where learners can experience firsthand the values promoted by GCE, such as biodiversity conservati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Headquarters and relevant institutions within JSSGP (Jeju Provincial Government, Education Office, UNITAR), a workbook and experiential learning courses focused on achieving the SDGs through IDAs will be developed. Recruitment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will be established and managed to enhance the curriculum’s effectiveness and recognition.

Through this initiative, the goal is to nurture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expand international exchanges, and elevate the international standing of domestic management systems.

4.2.9 Additional Core Tasks

I . Establishing a Resource Diversification Strateg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Projects Linke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inan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obilizing a range of concessional and non-concessional ODA resources, as well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me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restore biodiversity. GCIDA should actively promote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initiatives that are linked to these funding mechanisms.

To this end, GCIDA should align its strategic initiatives, including tailored support programs, with maj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unding mechanisms and programmes such as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¹⁴ and the Green Climate Fund (GCF)¹⁵. This approach will help to diversify funding sources while also contribut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its climate-related ODA commitments.

14)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established in 1991, is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finance mechanism that provides funding to developing countries to address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loss, and international waters management.

15) The Green Climate Fund (GCF) is an international fund established at the 2010 UNFCCC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6)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II.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Regular Review and Formulation of Mid- to Long-Term Plans

UNESCO C2C are required to renew their establishment agreements every six years. In this context, GCIDA must develop a mid- to long-term planning framework aligned with the renewal cycle.

Every 12 years, GCIDA should formulate a new strategic plan that systematically reviews the alignment between the objectives and functions outlined in the agreement and the Centre's actual operational performance. This review should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and ensure that GCIDA's vision, values, and strategic priorities are meaningfully incorporated into the revised agreement.

By institutionalizing this planning cycle, GCIDA can enhance the long-term continuity of its operations,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ts programmes, and ensure that its organizational direction remains consistent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mandate.

III.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and Institutionalizing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s

Domestic partner institutions of GCIDA,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JSSGP, have been actively collaborating wit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ESCO and IUCN, through financial contribu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joint projects. In this context, GCIDA should position itself as a core partner within th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oint project frameworks, thereby enhancing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funds and increasing both the visibility and impact of its own operations.

목 차

1. 서론	3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
2. GCIDA 현황	15
2.1 설립 배경 및 주요 경과	15
2.2 조직 및 예산현황	19
3. 국제보호지역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대응 방안	27
3.1 IDA/MIDAs 지정 현황 및 동향	27
3.2 IDA/MIDAs 관련 사례 분석	76
3.3 IDA/MIDAs 관련 주요 국내외 전략 및 현안	99
3.4 국내외 유관 기관 현황	135
3.5 종합적 시사점	145
4. GCIDA 미션, 비전 및 전략	149
4.1 GCIDA SWOT 분석	149
4.2 GCDIA 미션, 비전	170
4.3 GCDIA 중장기 핵심과제	172
4.4 단계별 추진 방안	192
4.5 조직 및 예산 확충 계획	194
5. 결론	223
참고문헌	227

표 목 차

<표 3-1> IDA 지정 체계	27
<표 3-2> 글로벌 보호지역(PA+OECD)면적 비율(%) 추이	30
<표 3-3> HAC for M&P 국가 등의 보호지역 관련 통계	32
<표 3-4> 세계유산협약 운영 기구의 주요 기능	35
<표 3-5> 세계유산 등재 기준	36
<표 3-6>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38
<표 3-7> 세계유산협약의 전략목표 5Cs	42
<표 3-8> 세계유산협약 운영 기구의 주요 기능	48
<표 3-9>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	49
<표 3-10>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사업이 포함된 KOM GBF 의 모니터링 지표	54
<표 3-11> 국가 별 세계지질공원 보유 개수	57
<표 3-12> 각 대륙별 지질공원 보유 숫자	57
<표 3-13>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63
<표 3-14> 람사르습지 등록 절차	65
<표 3-15> 람사르협약 4 차 전략계획(2016-2024)	70
<표 3-16> IDA 현황 및 전자 정보 형태	72
<표 3-17> IDA 별 MIDAs 숫자 현황	73
<표 3-18> MIDAs 구분 기준별 장단점	75
<표 3-19> 브라질 마타 아틀란티타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다른 IDAs 현황	75
<표 3-20> 최근 3 년간 재검증에 대한 심사 결과	83
<표 3-21> 응답자 소속 국가 리스트(상) 대륙별 응답 비중(하)	91
<표 3-22> 국내 자문회의 참여자 현황	92
<표 3-23> 유관센터의 주요사업 현황	93
<표 3-24> i-WSSM 증장기 발전방안 수립 지원 연구 주요 내용	95
<표 3-25> 국립공원공단 4 대 전략목표 및 연차별 달성 목표(예시)	98
<표 3-26> 보호지역의 근거, 시행 및 지정 연도	102
<표 3-27> CBD 시기별 전략계획 현황	103

<표 3-28> 유네스코의 국제 및 정부 간 과학프로그램 종류	111
<표 3-29> 유네스코 가족 파트너 유형	112
<표 3-30> 전 지구 온도 상승 1.5℃ vs 2℃ 주요 영향 비교	118
<표 3-31>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 동향	118
<표 3-32> 감축목표 설정 방식 비교	122
<표 3-33>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동향	125
<표 3-34> 제주도 SDG(육상생태계) 세부목표 목록	128
<표 3-35> 보호지역 관련 정책 패러다임 변화	133
<표 3-36> 2030 보호지역 확대의 주요 성과 지표	133
<표 3-37> 유네스코 지정지역 관련 유네스코 C2C(2025년 5월 기준)	136
<표 3-38> 국내 유네스코 C2C 현황	139
<표 3-39> 협력 가능 유네스코 관련 기관·네트워크와 주요 협력 사항	140
<표 3-40> BR 및 UGGp의 지역 또는 주제 네트워크	141
<표 3-41> 여타 협력 가능 주요 기관과 협력 사항	142
<표 3-42> 국내 협력 가능 대상 및 주요 협력사업	143
<표 3-43> 협력 가능한 제주도 기관 및 단체와 주요 협력 사항	144
<표 4-1> GCIDA 조직현황 및 확충계획	197
<표 4-2> GCIDA 인력 운영 계획	199
<표 4-3> GCIDA 중장기 핵심과제 소요 예산	208
<표 4-4> 2025-2026년 세계 국제보호지역 관련 주요 국제회의	210

그림 목 차

<그림 1-1> 국제보호지역 비전 포럼 내용 및 주요 참석자	10
<그림 1-2>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내용 및 주요 참석자	11
<그림 1-3> 연구 흐름도	12
<그림 2-1> GCIDA 조직도	19
<그림 3-1> 세계의 육상 보호지역 총면적 추세	30
<그림 3-2> 세계의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추세	31
<그림 3-3> 세계의 육상 및 해상 보호지역 달성 목표 및 달성 현황	31
<그림 3-4> 각 대륙 별 생물다양성 온전성 지수의 경년 변화	33
<그림 3-5> 세계유산의 유형 개념도	36
<그림 3-6> 지역별 세계유산 등재 현황	39
<그림 3-7> 지역별 세계유산 등재 추이	40
<그림 3-8> 세계유산 유형별 등재 추이	40
<그림 3-9>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	46
<그림 3-10>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역별 지정면적(좌) 및 지정 수(우)	50
<그림 3-11> 2014 - 2024 년간 생물권보전지역 수의 변화	50
<그림 3-1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분포 현황	56
<그림 3-13> 연도별 세계지질공원 지정 현황	58
<그림 3-14> 람사르습지 등록 절차	65
<그림 3-15> 지역별 국가수와 람사르습지수 비교	66
<그림 3-16> 람사르습지 국가수와 면적	67
<그림 3-17> 람사르습지 수 변화 추이	67
<그림 3-18> 람사르습지 면적 변화 추이	68
<그림 3-19> 람사르습지 개소 수 및 면적	69
<그림 3-20> 지역별 람사르습지 개소 수 및 면적	69
<그림 3-21> 2 개의 국제보호지역이 중복된 숫자 현황	74
<그림 3-22> 3 개의 국제보호지역이 중복된 숫자 현황	74

<그림 3-23> 와덴해 3 국 협력체의 정책 결정 조직도	78
<그림 3-24> 생물권보존지역 로고(좌), 마케팅제품(중), 지역상품권(우)	80
<그림 3-25> 연구의 기대효과	91
<그림 3-26> UN SDGs(17 개 목표)	99
<그림 3-27> 유네스코 중기 전략 보고서 표지(상) 및 목차(하)	108
<그림 3-28> 유네스코의 전략적 세부목표, 가능한 세부목표 및 그에 상응하는 초래 사항 ..	109
<그림 3-29> 재정 조달 개요	113
<그림 3-30> 유네스코 프로그램과 예산 보고서 표지	114
<그림 3-31> IPBES 홈페이지	115
<그림 3-32>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 체계도	119
<그림 3-3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비전과 감축목표 및 부문별 정책	120
<그림 3-34> 제주도 CFI2030 비전, 목표 및 과제	124
<그림 3-35>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략 및 비전	126
<그림 3-36>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비전 및 목표	127
<그림 3-37>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128
<그림 3-38>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129
<그림 3-39> 제5 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130
<그림 3-40> 2030 국가보호 지역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	132
<그림 3-41> 연도별 국가보호 지역 목표	132
<그림 3-42> 제주 세계 환경 수도 조성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134
<그림 4-1> GCIDA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 체계도	171
<그림 4-2> 국제보호지역 맞춤 지원 사업 개념도	173
<그림 4-3> MIDAs 정보공유 Hub 개념도	174
<그림 4-4> 2020 IUCN 총회 프랑스 전시관 예시	210
<그림 4-5> GCIDA 홈페이지 퀴즈이벤트 사례	212
<그림 4-6> GCIDA SNS 콘텐츠 예시(2025년 05월 기준)	212
<그림 4-7>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보고서(상), 참석자 사진(중), 유튜브 공개 발표자료(하)	214
<그림 4-8> 202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예시	215

<그림 4-9> 2023 유네스코 발간 Issue Brief 사례	216
<그림 4-10> 언론매체 보도사례	217
<그림 4-11> 제주도 전기버스를 이용한 광고 사례	217
<그림 4-12> GCIDA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자료 게시 사례	217
<그림 4-13> 판촉물 예시	218
<그림 4-14> GCIDA 사진전 사례	219
<그림 4-15> 대한민국 외교부 서포터즈 모집 공고 예시	220

약어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UGGN	African UNESCO Global Geoparks Network
APGN	Asia Pacific Geoparks Network
ARC-WH	Arab Regional Centre for World Heritage
AWHF	African World Heritage Fund
ASPnet	The Associated Schools Network
BD	Biodiversity
BI	Brand Identity
BII	Biodiversity Intactness Index,
BR	Biosphere Reserves
C2C	International and Regional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er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EODE	Center for Earth Observation and Digital Earth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CW	Convention on Wetlands
EGN	European UNESCO Global Geoparks: European Geoparks Network
ESG	Environment, Sustainability, Governance
GBF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CF	Green Climate Fund
GCIDA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GCF	Green Climate Fund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G	Global Geoparks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N	Global Geoparks Network

GPC-RED Global Policy Center on Resilient Ecosystems and Desertification

HIST International Centre on Space Technologies for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HAC for N&P High Ambition Coalition for Nature and People

IBSP International Basic Sciences Programme

ICTP Abdus Sala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HARM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Hazard and Risk Management

ICIWaRM Inter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CHCAP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DA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

IGGP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IHP 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

IOPs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PA Internationally Protected Area

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UGS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WSSM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KBA Key Biodiversity Area

K-M 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LACG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UNESCO Global Geoparks: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Geopark Network

NbS	Nature-based Solutions
MAB	Man and the Biosphere
AB-ICC	Man and Biospher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MedMaB	Mediterranean Biosphere Reserves Network
MIDAs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M	Other effective conservation measures
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PA	Protected Area
PoWPA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RKGGN	Republic of Korean Global Geoparks Network
RRC-EA	Ramsar Regional Center East Asia
RS	Ramsar Site
SC	Standing Committe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OC	State of conservation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TRP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
TWAS	The World Academy of Sciences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UGGp	UNESCO Global Geopark
UGGpC:	UNESCO Global Geoparks Council
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EP-WCMC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VOC	The network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SDCF The new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s

UNITWIN 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 Scheme

WCBR World Congress of Biosphere Reserves

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

WHC World Heritage Committee

WHIPIC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WHITR-AP World Heritage Institute of Training and Research for the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II-C2C Centre on World Na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Training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PC World Parks Congress

WR World (Natural) Heritage

WWAP UNESCO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WNBR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WNICBR World Network of Island and Coastal Biosphere Reserves

WNMBR World Network of Mountain Biosphere Reserves

01

서론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주도는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BR, Biosphere Reserves), 2007년 세계자연유산(WR, World Natural Heritage), 2010년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을 지정받았고, 2006년 물영아리오름 등이 랍사르 습지(RS, Ramsar Site)로 지정됨에 따라서, 중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네스코 중기전략 이행과 기후변화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등 국제적 차원의 환경보전 정책에서 국제보호지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 유네스코는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 :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IDA :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왔다.
- 정부는 2016년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모델 개발 및 국제 네트워크 센터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을 계기로, MIDAs 보전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승인(’19. 6.), 정부·유네스코 협정서 체결(’24. 2.), 재단법인 설립(’24. 4.), 센터 개소식(’25. 4. 29.)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SDGs, K-M GBF 등 글로벌 목표 및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보호지역 관리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¹⁶⁾, 즉 GCIDA(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16)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C2C, UNESCO Category 2 Centre)는 회원국 정부와 유네스코와의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서 특정 분야에서 연구, 훈련, 역량강화를 수행하며, 유네스코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지역·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Under the auspices of UNESCO)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아울러, 중장기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GCIDA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재무 전략 또한 함께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연구 범위

- GCIDA 현황 분석
 - GCIDA 설립 배경 및 주요 경과
 - 조직 및 예산현황
- 국내·외 외부 환경 동향 및 대응 방안
 - IDA/MIDAs 지정 현황 및 동향
 - IDA/MIDAs 관련 사례 분석
 - IDA/MIDAs 관련 주요 국내외 전략 및 현안
 - 국제 주요 전략 및 주요 현안
 - 유네스코 글로벌 전략 및 주요 현안
 - IDA 전략 및 주요 현안
 - 국내 주요 전략 및 현안
 - 국내외 유관 기관 현황
 - 국내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C2C, International and Regional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er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및 해외 유관 C2C 현황
 - 국내외 협력 가능 기관 및 네트워크 현황
 - 국내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우수사례
 - 종합적 시사점
- GCIDA 미션, 비전 및 전략
 - GCIDA SWOT 분석
 - GCIDA의 비전, 미션
 - GCIDA 중장기 핵심 과제
 - 단계별 추진 방안
 - 조직 및 예산 확충 계획

1.2.2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다양한 문헌과 자료조사를 통해 최근 MIDAs 관련 국내·외 환경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함
 - IDA/MIDAs 관련 최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술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정 현황 및 동향, 관리 사례 등을 분석함
 - MIDAs 관련 국내외 이슈 자료를 확보하고 MIDAs 관련 국제적 담론을 파악함
 - 국내외 유네스코 C2C 현황, 협력 체계, 예산, 조직 운영 사례 등을 조사하여 벤치마킹 요소를 발굴함
- 센터 운영의 정책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정책 보고서, 국내 정책 보고서, 예산 계획서 등을 분석함
 - UN SDGs 2030 Agenda, K-M GBF 등을 분석함
 - 유네스코의 중기 전략, 사업 및 예산계획서 및 C2C 전략 등을 분석하여 센터의 비전과 사업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함
 - 2050탄소중립목표(환경부), 2030 CFI/세계 환경 수도 비전(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분석함
- MIDAs 관련 글로벌 연구와 훈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인 사례들을 수집하여 벤치마킹 요소를 발굴함
 - 연구개발 분야 중점 과제 및 시기별 추진 로드맵
 - 훈련컨설팅 분야 중점 과제 및 시기별 추진 로드맵
 - 협력 네트워크 분야 중점 과제 및 시기별 추진 로드맵
- 기존의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C2C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나. GCIDA와 연구진 간의 회의

① 1차 회의

- 일시 : 2025.02.26.
- 장소 : GCIDA 2층 회의실
- 참석자
 - GCIDA(11) : 이율범 센터장, 김기조 팀장 등 11명

- 연구진(5) : 김진근 책임연구원, 이수재 박사, 김태운 박사 심숙경 박사 등 5명
- 주요 내용 :
 - GCIDA 고찬솔 연구원 발표 : GCIDA 설립 취지 및 초기 운영 현황
 - 연구진 심숙경 박사 발표 :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동향

② 2차 회의

- 일시 : 2025.03.10. 14:00-17:00
- 장소 : 온라인 회의(ZOOM)
- 참석자
 - GCIDA(7) : 이울범 센터장 등 7명
 - 연구진(4) : 김진근 책임연구원, 김태운 박사, 심숙경 박사 등 4명
- 주요 내용 : 연구진 발표 및 토론
 - 연구진 김태운 박사 발표 : GCIDA 비전 및 세부추진전략

③ 3차 회의

- 일시 : 2025.03.17. 14:00-16:30
- 장소 : 온라인 회의(ZOOM)
- 참석자
 - GCIDA(7) : 이울범 센터장 등 7명
 - 연구진(5) : 김진근 책임연구원, 이수재 박사, 김태운 박사 심숙경 박사 등 5명
- 주요 내용 : 연구진 발표 및 토론
 - 연구진 이수재 박사 발표 : IDA 관리 현황
 - 연구진 심숙경 박사 발표 : GCIDA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④ 4차 회의

- 일시 : 2025.06.10. 14:00-16:30
- 장소 : 온라인 회의(ZOOM)
- 참석자
 - GCIDA(4) : 이울범 센터장 등 4명
 - 연구진(6) : 김진근 책임연구원 등 참여 연구진 전원 6명
- 주요 내용 : 연구진 발표 및 토론
 - 연구진 이수재 박사 발표 : MIDAs 관리 현황 및 글로벌 전략 등
 - 연구진 강상인 박사 발표 : 조직행정 분야 운영 전략

⑤ 5차 회의

- 일시 : 2025.06.16. 15:00-17:00
- 장소 : 온라인 회의(ZOOM)
- 참석자
 - GCIDA(4) : 이율범 센터장 등 4명
 - 연구진(6) : 김진근 책임연구원 등 참여 연구진 전원 6명
- 주요 내용 : 연구진 발표 및 토론
 - 연구진 김진근 발표 : 보고서 2장(MIDAs 관리 현황 및 글로벌 전략 등)

다. 연구 과정 보고회

① 착수보고회

- 일시 : 2024.12.06. 15:00-16:00
- ※ GCIDA 제2차 워킹그룹 회의와 동시 개최
- 장소 :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특별시)
- 참석자
 - GCIDA 및 유관기관(13)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등 13명

구분	분야	소속(직위)	이름
전문가 (7)	습지	(사)제주생태관광협회(대표)	고**
	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국장)	김**
	유네스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센터장)	김**
	습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센터장)	서**
	세계유산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연구관)	이**
	법학	IUCN 한국위원회(사무총장)	황**
	C2C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신**
관계 기관 (3)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과장)	차**
	국립공원 공단	MAB사무국(부장)	김**
		국가지질공원사무국(국장)	서**
제주특별 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과(과장)	류**	
GCIDA (3)	발주처	GCIDA 기획행정팀(팀장)	김**
		GCIDA 연구개발팀(팀장)	전**
		GCIDA 훈련교류팀(팀장)	한**

- 연구진(2) : 이수재 박사, 심숙경 박사 등 2명
- 주요 내용 : 착수보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연구진 이수재 박사 발표 : 착수보고 발표
- ②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일시 : 2025.07.08. 14:00-16:00
 - 장소 : 대면+온라인 회의(ZOOM)
 - 참석자
 - GCIDA(9) : 이울범 센터장 등 9명
 - 자문위원(5) : 차**(ICHCAP), 송**(I-WSSM), 전**(조선대학교), 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국립공원연구원)
 - 연구진(4) : 김진근 책임연구원 등 참여 연구진 4명
 - 주요 내용 : 중간보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책임연구원 김진근 책임연구원 발표 : 중간보고 발표
 - 주요자문의견 : 직원역량 강화 방안 모색, 다른 C2C와의 차별화 필요, 센터 운영방향과 인력 및 예산 관련 로드맵 제시 필요, 국제 기구로서의 정체성과 국내외 유사기능을 하는 기관과의 차별화된 포지셔닝 필요 등
- ③ 최종보고회
 - 일시 : 2025.07.30. 14:00-16:00
 - 장소 : GCIDA 2층 회의실
 - 참석자
 - GCIDA(10) : 이울범 센터장 등 10명
 - 자문위원(3) : 차**(ICHCAP), 김**(I-WSSM), 이**(WHIPIC)
 - 연구진(6) : 김진근 책임연구원 등 참여 연구진 전원 6명
 - 주요 내용 : 최종보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책임연구원 김진근 : 최종보고 발표
 - 주요자문의견 : GCIDA 만의 전략 및 콘텐츠 기반의 센터의 정체성 확립 필요, IUCN 의존도 점진적으로 낮추고 독립성 강화 필요, 센터 네트워크 대상이 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에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대상을 기관에서 유산 현장관리자/ 공동체 등으로 확대 제안 등

라. 전문가 인터뷰

① 1차 인터뷰

- 일시 : 2025.02.20. 13:00-14:00
- 장소 : UNESCO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
- 참석자
 - 전문가(2) : UNESCO 안토니오 국장, UNESCO 한스 과장
 - 연구진(1) : 심숙경 박사
- 주요 내용 :
 - 전문가 안토니오 국장 : GCIDA 운영 방향 등

② 2차 인터뷰

- 일시 : 2025.04.30. 13:30-17:00
- 장소 : 제주시 오션스위츠호텔
- ※ 국제보호지역 비전 포럼과 동시 진행
- 참석자(연구진)
 - 주요전문가(3) : UNESCO 안토니오 국장, IUCN 팀 배드만 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
 - 연구진(3) : 김진근 책임연구원, 이수재 박사, 심숙경 박사 등 3명
- 주요 내용 :
 - 전문가 안토니오 국장 : SDGs 달성을 위한 GCIDA 역할 등
 - 전문가 팀 배드맨 국장 : GCIDA와 IUCN의 협력방안 등

마. 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① 국제보호지역 비전 포럼 참여 및 발표

- 주최 : GCIDA
- 일시 : 2025.04.30.
- 장소 : 제주시 오션스위츠호텔
- 참석자(연구진)
 - 연구진(3) : 김진근 책임연구원, 이수재 박사, 심숙경 박사 등 3명
- 주요 내용 : 연구진 발표 및 토론
 - 연구진 심숙경 박사 발표 : GCIDA의 역할 및 활동전략 제언
 - 연구진 이수재 박사 토론 참여 : 종합토론의 좌장으로 참여



국제보호지역 비전 포럼		
13:30~13:40	10'	참가자 소개 사회: Darren Southcott (제주대학교)
13:40~13:55	15'	주제배경발표 Context Presentation 제주도 국제보호지역 현황 및 가치 전용문 교수 (조선대학교)
13:55~14:55	60'	생선 1 Session 1 국제사회에서 GCIDA 역할과 미래
		1.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센터의 미래발전 전략 이윤범 센터장 (GCIDA)
		2. MIDAs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촉진 안토니오 국장 (UNESCO)
3. GCIDA의 역할 및 활동전략 제언 심숙경 위원장 (유네스코MAB국제자문위원회)		
14:55~15:15	20'	coffee break
15:15~16:15	60'	생선 2 Session 1 GCIDA와 국내의 기관의 협력 방안
		1. IUCN과 GCIDA의 협력 방안 팀 베드만 국장 (IUCN)
		2. 제주-UNESCO-GCIDA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강애숙 국장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
3.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현재와 미래비전 김양보 국장 (제주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16:15~16:35	20'	break time
16:35~17:00	25'	종합토론 Plenary Discussion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발전방안 좌장: 이수재 박사 패널: 서승오(RRC-EA센터장), 강부영(환경부 국제환경협력담당), 대런 사우스콧(제주대 교수), 김은영(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림 1-1> 국제보호지역 비전 포럼 내용 및 주요 참석자

②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참여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일시 : 2025.07.03.
- 장소 : 제주시 제주한라대학교
- 참석자(연구진)
 - 연구진(1) : 김진근 책임연구원
- 주요 내용 : <그림 1-2> 참조



2025 세계유산축전
2025 World Heritage Global Forum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2025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본 포럼은 해외 자매결연 지역과 국내의 세계유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간 2025년 7월 3일(목) ~ 7월 4일(금)
장소 한라컨벤션센터(제주시 한라대로 38), 성산일출봉 등
주제 지속가능한 국제보호지역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세계자연유산마을 보존회
호텔 호텔 더원, 제주(제주시 사장3길 33)

 **참가신청**

DAY 1 | 7월 3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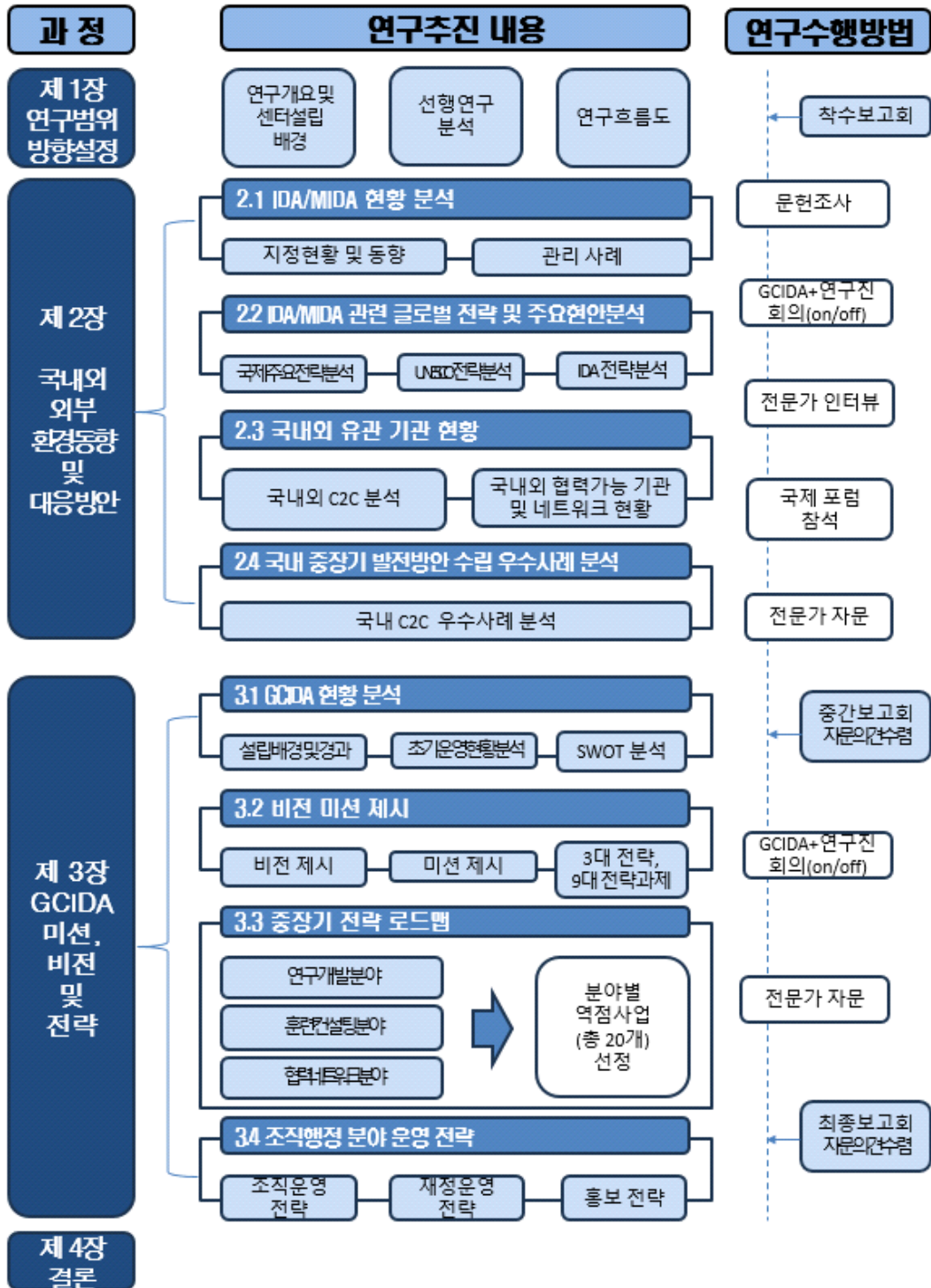
시간	내용
14:00~14:30	개회식&자매결연 체결식
14:30~15:30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국제보호지역 발 표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캐나다 칼튼대학교 건축보존 전공 교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발 표 주환우 중국 태산 풍경명승구 당공회위원 조직부 부장 발 표 참밀라 플로라 미우스 말레이시아 사바공원청 카나발루공원 부공원장 발 표 무하마드 메리드 인도네시아 지질공원 네트워크 의장
15:40~16:40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활용 발 표 다미르 쿠센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발 표 이율범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센터장 발 표 야마시타 신이치 일본 아오모리현청 환경에너지부 차장 발 표 양다 천 중국 어메이산 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16:50~17:40	토론 좌 장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캐나다 칼튼대학교 건축보존 전공 교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토 론 공현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전문관 권은정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장 고정근 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부장 김순호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유산사업실 실장



<그림 1-2>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내용 및 주요 참석자

바. 연구 흐름도

연구 흐름도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 연구 흐름도

02

GCIDA 현황



2. GCIDA 현황

2.1 설립 배경 및 주요 경과

2.1.1 설립 추진 과정

가. GCIDA 설립 논의의 발단과 전개과정

GCIDA 설립 논의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의제는 제주가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IUCN 사무총장은, 각국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국제적 조치를 제안하였다.

첫째, 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한 IUCN 주도형 매뉴얼 개발과 평가 주기 통일 등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각국에 보급할 것. 둘째, 국제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국제기구 간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셋째, 각국 정부와 UN 기구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이 조화롭게 보전·관리되도록, 관련 법 제정하고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15년, 유네스코·IUCN·환경부·제주도가 공동 개최한 국제 워크숍에서는 MIDAs의 개념의 정립과 통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사례 공유와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6년 워크숍에서는 실제 MIDAs 관리 사례와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MIDAs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하였으며, GCIDA 설립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실천 원칙을 담고 있다. ① 국제지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 상호 충돌을 방지하는 통합관리 방침 수립, ②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 ③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권한 부여, ④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⑤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이러한 흐름은 GCIDA 설립 구상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제주는 국제보호지역의 통합 관리와 훈련 거점으로서 역할을 제안받기 시작했다(IUCN, 2016).

나. 정책 기반 형성 및 연구 수행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現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부 및 제주도와 함께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및 설립 추진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GCIDA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되었다.

첫째, 제주도가 MIDAs의 대표 사례로서 실제 현장에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국제 플랫폼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기관 간 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 교육과 정책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바탕으로, GCIDA가 보호지역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책임 기관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GCIDA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와 유네스코 협정서 초안이 마련되었다. 제안서에는 설립 목적, 기능, 운영 체계, 기대 효과가 포함되었으며, 국제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 교육·훈련, 연구, 정보 공유 기능이 핵심적으로 제시되었다. 협정서 초안은 센터의 법적 지위, 운영 방식, 재정 지원, 로고 사용, 사무국 구성 등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네스코 C2C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다.

다. 국제 타당성 평가 및 공감대 형성

2019년 3월,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GCIDA 설립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실사단을 제주도에 파견하였다. 실사 결과, 유네스코는 제주가 MIDAs의 대표 사례로서 보호지역 통합관리 모델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GCIDA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 교육, 훈련, 정보 공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GCIDA는 국제보호지역 간 정책적 시너지 창출,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 과학 기반의 관리체계, 그리고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관으로 주목받았다(UNESCO, 2019).

라. 설립 추진의 구체화

2024년 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는 GCIDA 설립을 위한 공식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협정은 2024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서는 양 기관 간의 법적 합의 문서로서, 센터의 목적과 임무, 법적 지위, 운영 방식, 재정 지원, 로고 사용, 정보 교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GCIDA는 다중 국제보호지역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 습지) 간의 시너지 창출과 국가 간 협력 촉진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센터는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구조로 설계되었다(유네스코 - 대한민국 정부 협정문, 2023).

환경부는 이후 GCIDA 재단법인을 창립하고, 정관 제정, 인사·회계 규정 마련, 조직 구성 등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다(환경부, 2024).

2.1.2 주요 경과

- 2012. 09.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 채택
- 2015. 04.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모델 개발 관련 국제워크숍 개최 → 국제 네트워크 및 센터 설립 제안(제주도)
- 2016. 06. 국제보호지역 관련 유네스코 C2C 설립 건의(제주도→ 환경부)
- 2018. 12.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설립계획 용역(제주도)
- 2019. 06. 유네스코 현지 실사단 제주 방문
- 2019. 06. GCIDA 대한민국(제주도) 설립 결의(40차 유네스코 총회)
- 2021. 09.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 시범 운영(제주도)
- 2023. 03. GCIDA 설립 추진단 TF 구성(환경부)
- 2023. 11. GCIDA 설립 용역 추진(국립공원공단)
- 2023. 12. GCIDA 설립(안) 국무회의 통과
- 2024. 02. 대한민국 정부-유네스코 협정서 체결

※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체결

- 2024. 03. GCIDA 창립총회 개최
- 2024. 04. GCIDA 재단법인 설립(4.11.)
- 2025. 02. 제1대 GCIDA 센터장 취임(2.5.)
- 2025. 04. 센터 개소식(4.29.)

2.1.3 설립의 의미

가. 설립 배경과 필요성

GCIDA는 국제 환경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글로벌 거점 마련의 필요성에서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은 각각 독립된 기준과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기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국내적으로도 GCIDA는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보호지역 관리자와 연구자 양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GCIDA의 정관은 기관의 주요 역할로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① 국제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② 국내외 보호지역 관리자 대상 교육·훈련, ③ 국제보호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④ 국제기구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 수행, ⑤ 보호지역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공유(GCIDA, 2024).

나. 역할과 기대 효과

GCIDA는 앞으로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교육, 정책 연구,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표준의 보호지역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의 MIDAs 통합관리 경험은 다양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GCIDA는 국제교류와 학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024년 관리자 워크숍에서는 GCIDA의 핵심 기능을 다음과 같은 실천 모델로 구체화하였다(환경부, 2024).

- 교육 부문: 지역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과 온라인·현장 연계형 교육 플랫폼
- 정책 연구 부문: MIDAs 특성에 적합한 유기적 관리 방안와 국내외 정책 비교 연구 틀
- 국제협력 부문: GCIDA-유네스코 공동 이니셔티브, MIDAs 국제 네트워크, 글로벌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2.2 조직 및 예산현황

2.2.1 조직 및 업무현황

가. 조직현황

2025년 8월 기준 GCIDA 운영조직(<그림 2-1> 참조)은 이사회와 감사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상위 의사결정기구와 그 위임을 받아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기획행정팀, 연구개발팀, 훈련교류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은 총 11명으로 센터장 1명을 비롯하여 팀장 2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 GCIDA 조직도(<https://unesco-gcida.org>).

○ 기획행정팀

- 팀장 : 기획행정팀 업무 총괄
- 연구위원 : 기획, 인사, 채용, 감사, 직원교육, 급여관리
자문위원회 및 C2C 협의회 운영
정관 및 규정(지침 포함) 제·개정
계약체결 및 관리, 예산 편성(더존시스템 외)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 연구원 1 : GCIDA 국영문 홈페이지, SNS 채널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물 및 영상 제작 관리
이사회, WCC 홍보부스, 국제보호지역 사진전 운영
업무관리시스템, 전산(통신, 컴퓨터 등) 관리
기획행정팀 일반 서무, 기록물 관리
- 연구원 2 : 예산, 계약, 회계·정산 업무
복리후생 및 직원 복무 관리
물품 및 재산(자산, 차량) 관리

○ 연구개발팀

- 팀장 : 연구개발팀 업무 총괄(겸임)
- 연구원 1 : GCIDA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업무
연구 협력 및 교류 업무(UNESCO, IUCN,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제보호지역 지정 현황 파악 및 관련 동향 연구
GCIDA 정기보고서(연구분야) 작성
연구개발팀 일반 서무
- 연구원 2 : MIDAs 정보공유 Hub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관한 업무
국제보호지역 맞춤지원 사업 기본계획 개발 연구용역 사업
에 관한 업무
- 연구원 3 : 기후변화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국제보호지역 포럼 기획 및 운영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지 목록 작성 및 개발

다중 국제보호지역 학술조사 및 교육자료 제작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협업 운영

○ 훈련교류팀

- 팀장 : 훈련교류팀 업무 총괄

- 책임연구원 1 :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국제 교육훈련 관련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

UNESCO, IUCN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국제 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자 교류 지원

학위과정, 국제공인자격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GCIDA 정기보고서 작성 총괄(UNESCO 제출)

- 책임연구원 2 :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국내 교육훈련 관련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훈련 참가자 교류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온라인 과정 개발

기재부 관련, 2025년도 GCIDA 성과지표 관리

훈련교류팀 차량 관리

훈련교류팀 일반 사무

나. 업무현황

2025년 센터는 3대 전략별 각 3개, 총 9개 중점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기관 설립 초기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개소식(4.29.)과 개소 기념 국제포럼(4.30.) 개최 등을 통한 기관의 미래비전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인력 채용·시설 개선·규정 보완 등 센터 운영기반 확충을 위해 연구팀장, 행정팀원(1), 연구팀원(2), 훈련팀원(1) 충원 및 센터 업무시설 확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1억 원)을 통해서도 국내외 동향 분석 기반, 센터 중장기비전 및 세부 과제, 조직·인력·예산 개편 방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전략 도출할 예정이며, 차별화된 연구·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보호지역 컨설팅(맞춤지원사업)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 연구 용역(5천만 원)을 발주하였다.

다중 국제보호지역 정보공유 허브 구축 마스터플랜연구(5천만원)에서는 국내외 MIDAs 현황 및 사례, 정보공유 허브 운영 방안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센터는 또한 협업 연구 등을 통한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 IUCN, ICCROM, 아시아 보호지역 파트너십(APAP) 등과 컨설팅(맞춤지원) 협업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MIDAs의 유기적 관리 방안 등 개도국의 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 연구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서비스 제공과 교류 강화 차원에서는 수요 기반의 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협력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UNESCO GCIDA Youth Forum”(6.3., 제주지역 청소년 대상, 제주도 부영호텔),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7월, 국내 20명, 국외 14명,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협업), 미래세대 보호지역 아카데미(8월, 국내외 청소년 30명) 개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센터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 부문에서는 국내외 기관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류 채널 강화를 목적으로 제5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2025.9월, 중국),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2025.10월, 아랍에미리트)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2.2.2 예산현황

2024년 수입예산은 1,195백만 원으로 환경부 부담금(민간경상보조금) 1,125백만 원과 제주도부담 시설관리비 등 70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계획은 인건비 544백만 원, 운영기반 구축, 워킹그룹 운영,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운영비 420백만 원, 시설관리비 및 부대비용 23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 예산 집행 결산 결과, 수입예산의 74%인 888백만 원을 지출하고, 26%인 307백만 원을 미집행 또는 이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항 목	금액(백만원)	내 역	
계	1,195		
인건비	544	• 일반직 4인, 연구직 6인	
영 역 비	워킹그룹 운영	20	• 중장기운영전략, 업무계획 등 논의
	개관식	100	• 개관식 및 세미나 운영 1식
	운영기반 구축	160	• 사무 공간 설비, 업무시스템 구축 등 1식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20	• 학술연구용역 1식
	네트워크 구축	10	• MOU체결, 워크숍 개최 등 1식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80	• 강사비, 운영비 등 1식
	미래세대 보호지역 아카데미	20	• 강사비, 운영비 등 1식
	홍보비	10	• 홍보물 발간, 홍보 행사 운영 등 1식
시설관리비	50	• 시설 유지관리 등 1식	
부대비용	181	• 4대보험, 퇴직급여 적립금 등 1식	

2025년 기준 예산은 1,215백만 원으로 환경부 부담금 1,125백만 원과 제주도 부담 경상 및 자본보조비 등 90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	비고
합 계	1,215	
국비 소계	1,125	
사업비	414	개소식 행사 추진 30,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97, 미래세대 보호지역 아카데미 10, 핵심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57, 국제보호지역 권역 네트워크 강화 20, WCC 홍보부스 운영 30, 온오프라인 홍보 35,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 (이월 99), GCIDA 포럼 개최 30, MIDAs 구축방안 연구 55, 컨설팅(맞춤지원) 마스터플랜 개발 연구 50
	711	이사회 및 자문워킹그룹 운영 39,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비 47, 채용 및 인건비 624
도비 소계	90	
경상 보조비	70	센터 운영비 및 국제포럼 개최
	20	자산취득비

03

국제보호지역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대응 방안

3. 국제보호지역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대응 방안

3.1 IDA/MIDAs 지정 현황 및 동향

국제보호지역(IDA)은 세계 또는 지역 차원의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을 일컫는 용어이다. ‘세계유산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계획’,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계획’, ‘람사르협약’ 에 의해 지정된(designated) 지역¹⁷⁾이며, 전체 또는 일부의 상호 중첩 여부와는 무관하다(IUCN, 2016). 엄밀히 말하면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지질공원은 보호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하고 있어서 ‘국제지정지역’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보호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표 3-1> IDA 지정 체계

지정 체제	법적 성격	운 영	지정 기준
세계유산	국제협약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뛰어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생물권보전지역	정부 간 프로그램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	· 탁월한 생물다양성 · 조화로운 관리 체계
람사르 습지	국제협약	람사르 사무국	· 희귀한 생물종의 서식지 · 생물다양성이 보존된 습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 프로그램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	· 지구과학적 유산의 뛰어난 가치 · 유산의 활용과 주민 참여

한편,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은 ‘세계유산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계획’, ‘람사르협약’ 하의 지정지역 중 2~4가지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가 중첩되는 지역을 말한다(IUCN, 2016). 개별 IDA의 지위는 고유의 관리 기준과 운영 체계를 요구하지만, 동일 공간에서 중복으로 운영될 경우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MIDAs는 이러한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리방식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4대 국제보호지역이 중첩된 사례로, MIDAs 관리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7) 다른 형태의 지정/보호지역으로는 Natura 2000, IBA(Important Bird and Biodiversity Area) 등이 있다. 유럽 연합 영토 내 자연 보호 구역 네트워크인 Natura 2000은 2022년 기준 유럽 연합 국토 면적의 18% 이상과 해양 면적의 7%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 지역(IBA)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사용하여 조류 개체수 보존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식별되는 지역이다. 본 보고서에서 국제보호지역(IDA)은 IUCN(2016)에서 정의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에 한정한다.

3.1.1 보호지역 유래¹⁸⁾

1) 현대적 보호지역 체계의 연원

세계의 여러 문명에서 어느 특정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역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보호지역 개념과 유형은 19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의 보호지역에 관련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842년 미국 요세미티 장려금: 미국 의회에서 현재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재원을 지원하여 보호지역으로 운영함
- 1866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영국식민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전신을 운영 시작
- 1872년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법정 국립공원
- 1885년 캐나다 록키마운틴 Bow Valley의 온천: 지금의 Banff 국립공원

이들 보호지역은 주로 아름다운 경관이나 지질 특성을 보호하고 적절한 휴양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사냥터가 보호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유럽은 경관 보호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국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보호지역은 총 41,635.35 km²이며 이 중 환경부 소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9개소(249.196 km²), 습지보호지역 33개소(137.741 km²), 국립공원 23개소(6,888.394 km²), 독도를 포함한 특정도서 260개소(13.840 km²) 등이 지정되어 있다(환경부, 2025).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곳으로는 람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이 있다. 1997년에 인제 대암산 용늪의 람사르습지 최초 등록을 시작으로 창녕 우포늪, 문경 돌리네습지, 평두메습지 등 총 26개('24년 말 기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완도 및 창녕 등 10개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에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및 금강산의 5개소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 서해안권 일대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18) Phillips A (2004),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f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Parks. 2004;14(3):4-14.)를 이용하여 정리함. 일부는 연구진이 추가함.

있으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환경부, 2025).

2) 20세기 이후 보호지역의 다양화 및 확장¹⁹⁾

산업 발전과 도시의 확장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자연환경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1년에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되고, 유네스코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이 국제 정부 간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이어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 1972년에 채택되어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보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리고, 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2015년에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1970년대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제보호지역은 해당 유산을 한 나라의 것이 아닌 인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보호지역은 국제기구가 스스로 알아서 해당 지역을 지정하고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나 협약의 회원국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자신의 국가에 있는 자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보호지역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보다는 지자체가 국제보호지역 지정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사회를 알리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보호지역에 접근하는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20세기 이후에는 보호지역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숫자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21세기에는 육상보호지역은 서서히 증가하고, 해양보호지역이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보호구역의 수가 급증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만 개가 넘는 보호구역이 있으며(<그림 3-1>) 이는 지구 표면의 약 26%를 차지한다(<그림 3-2>, <표 3-2>)(UNEP-WCMC, 2024; 관계부처합동,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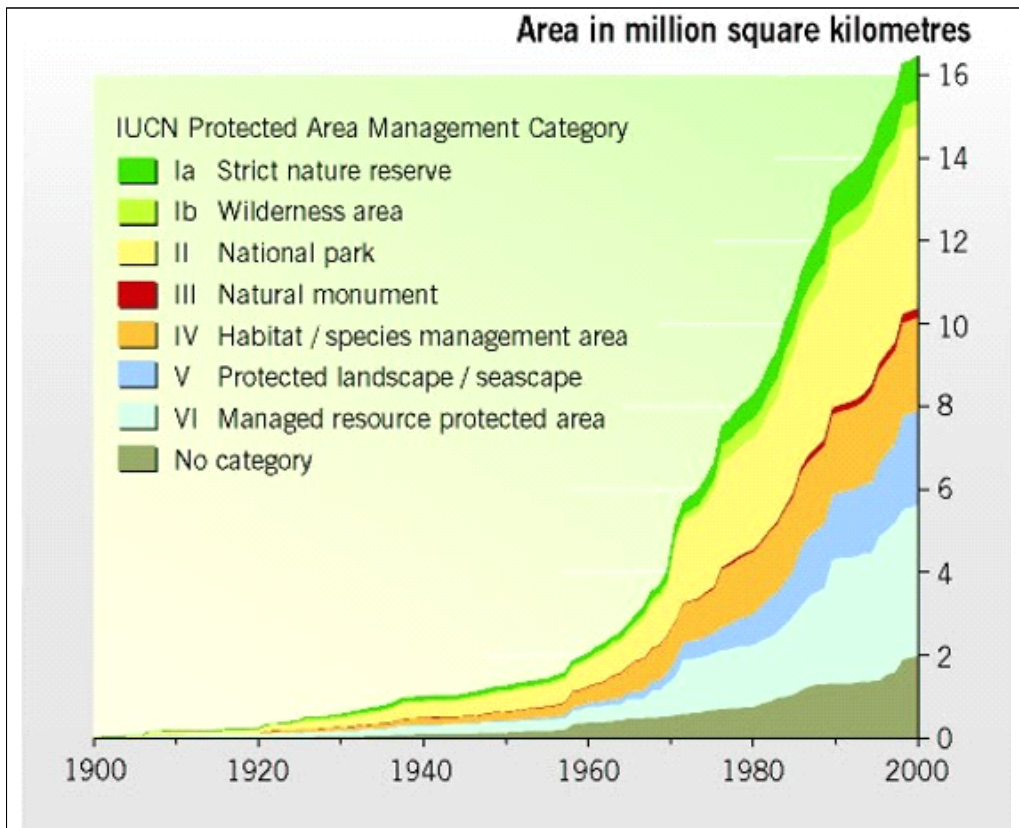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전 세계 육상의 17.6%가 보호지역 혹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자연 공존 지역)이므로, 당초의 아이치 달성

19) CDB 홈페이지 인용. <https://www.cbd.int/protected-old/needs.shtml>.

(Aichi Biodiversity Targets) 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면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달성되었으나, 해상 달성치는 8.4%로 이는 아이치 달성 목표 11(2020년까지 해상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미달된 상태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K-M GBF)²⁰이다. (<그림 3-3>참조)

<표 3-2> 글로벌 보호지역(PA+OECM) 면적 비율(%) 추이.

구분	1993	2004	2010	2020	2022	2024
내륙	8.54	12.66	15.01	16.65	16.98	17.58
해양	0.52	0.71	2.49	7.74	8.26	8.4
합계	9.06	13.37	17.5	24.39	25.24	2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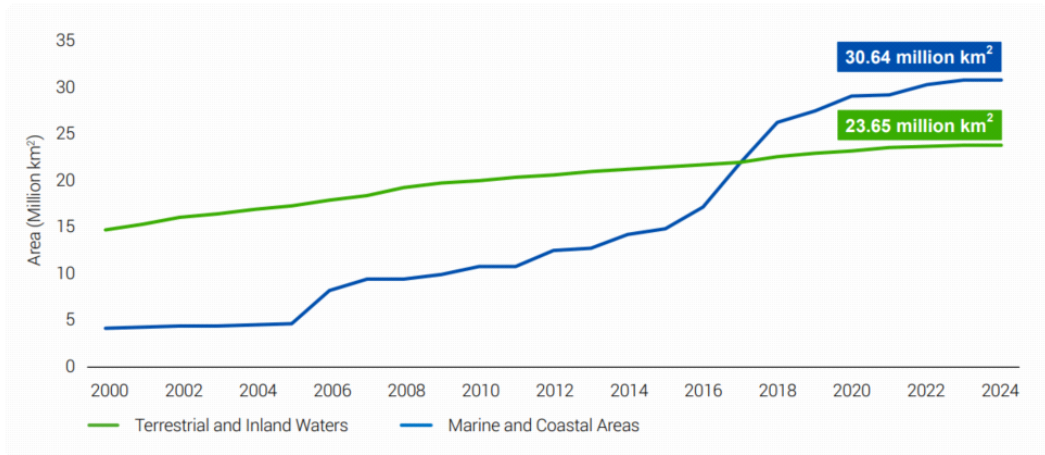


출처: <https://www.cbd.int/protected-old/needs.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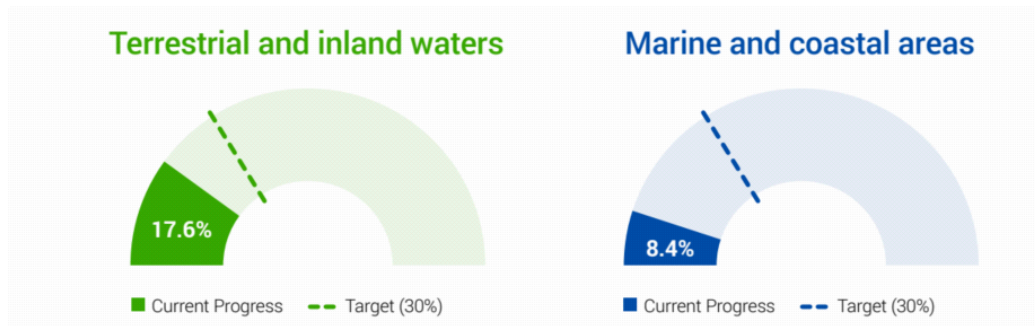
원자료: 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그림 3-1> 세계의 육상 보호지역 총면적 추세

20) 아이치 목표 및 K-M GBF는 3.3.1절에 상술됨



<그림 3-2> 세계의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A) 추세(2000-2024년)



<그림 3-3> 세계의 육상 및 해상 보호지역 달성 목표 및 달성 현황

3) HAC for N&P 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통계 현황

보호지역 통계는 최근에는 HAC for N&P(High Ambition Coalition for Nature and People,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 국가(프랑스 등 114개국 가입)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표 3-3>). 이 통계는 해양의 보호지역 지정을 각 국가의 영해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지역은 50% 내외가 지정되어 아직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지역이 더 필요하다.

4) 보호지역 유형의 구성 특징(Phillips, 2004)

보호구역의 수와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IUCN 보호구역 유형은 국립공원(범주 II²¹)과 자연 서식처 등의 지속 가

21)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IUCN protected area categories)는 보호지역을 관리목적에 따라 구분한 분류이다. 7단계로 구분되며, Ia - 엄정자연보전지, Ib - 원시야생지역, II - 국립공원, III - 자연기념물이나 특징, IV -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 V - 육상/해상 경관 보호지역, VI -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보호지역으로 구분된다.

능한 사용지역(sustainable use areas, natural habitats with sustainable offtake, 범주 VI)이 지난 2000년 이후 크게 늘었다. IUCN 관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이 12%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생물군계, 생태계 및 서식처 간에 본질적 보호지역 비율 격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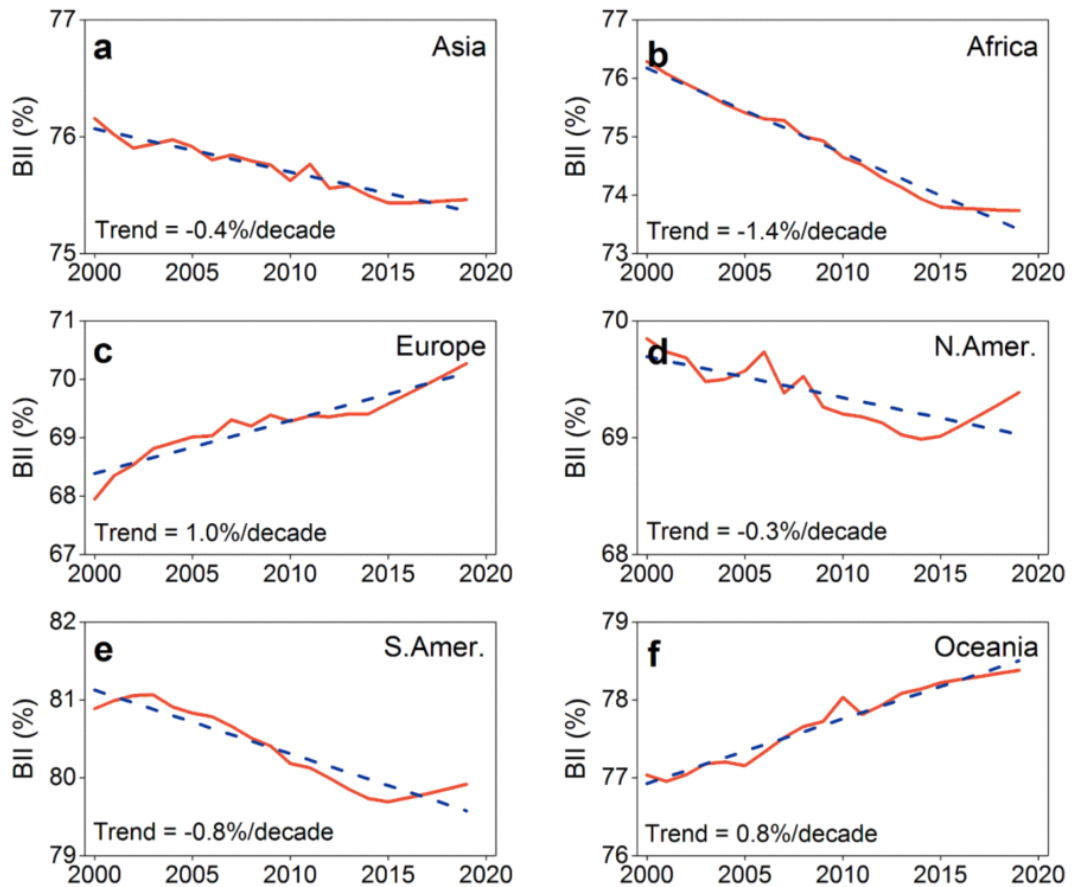
<표 3-3> HAC for N&P 국가 등의 보호지역 관련 통계(2024년 발간물 기준)

달성 목표 항목 및 지표 (Target element and indicator)	HAC for N&P 국가	동등한 세계 비율 (HAC for N&P 국가 포함)
육상 및 내수 면적	17.21%	17.58%
해양 및 해안 면적 (국가 해역만 산정: 국제 공역 제외)	19.42%	19.51% (국가 해역만 산정)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면적 (KBA* 면적)	53.72%	47.72%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면적 (부분 혹은 전체가 보호되는 KBA 비율)	74.47%	67.97%
연결성(Well-connected)	· 육상 면적의 6.86%가 보호 및 연결(ProConn) · 보호/보전지역의 22.99%가 연결됨 (ProNet)	· 육상 면적의 8.52%가 보호 및 연결(ProConn) · 보호/보전지역의 28.9%가 연결됨 (ProNet)
효과적으로 보전 및 관리 면적 (OECM, 자연공존지역)	· 보호지역의 7.38%만 효과적 관리여부 평가됨 · 보호지역 중 육상의 4.75%, 해상의 4.52%가 효과적으로 관리됨	· 보호지역의 6.8%만 효과적 관리 여부 평가됨 · 보호지역 중 육상의 4.78%, 해상의 1.26%가 효과적으로 관리됨
동등하게 협치 (Equitably governed)	보호지역+OECM 면적의 16.10%가 공유 혹은 비국가 협치	보호지역+OECM 면적의 16.28%가 공유 혹은 비국가 협치
* KBA: Key Biodiversity Area.		
참고: HAC for N&P: High Ambition Coalition for Nature and People. 자연과 사람을 위한 높은 야망 연맹/연합/연립,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고위급 연합,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관계부처 합동, 2023)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됨. GCIDA는 국제업무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직역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여 맥락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따라 coalition이 union보다 약한 결합체이므로 '연합'보다는 '연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출처: UNEP-WCMC and IUCN (2024). Protected Planet Report 2024. UNEP-WCMC and IUCN: Cambridge, United Kingdom; Gland, Switzerland.		

5) 보호지역 급증에 따른 쟁점: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관리 향상 필요성 대두
그동안 보호지역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은 감소 추세를 보이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생물다양성의 변화 여부에 대한 증거는 다양한 접근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글로벌 생물다양성 온전성 지수(Global Biodiversity Intactness Index, BII) 변화나 자연자본의 변화

추세 등이 있다. Liu et al. (2025)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평균 생물 다양성 온전성 지수(BII)는 $76 \pm 16\%$ 이며, 전 세계 평균 추세는 $-0.3 \pm 1.9\%/10$ 년으로 감소 중이고, 2011~2020년의 전 세계 평균 BII는 2000~2010년에 비해 0.41% 감소하였으며, 아프리카와 유럽은 BII가 가장 크게 감소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그림 3-4>)²²⁾.

그동안 우리 인류의 노력으로 지구상에서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양적 팽창에는 상승세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양적 팽창도 중요한 달성 목표이지만, 이들 보호지역이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질적 관리도 잘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림 3-4> 각 대륙 별 생물다양성 온전성 지수의 경년 변화(2000-2020).

22) BII 값은 0%에서 100% 사이에서 계산되지만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Scholes and Biggs, 2005). 예를 들어, BII가 50%라면 해당 지역의 중 풍부도가 원시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이미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Martin et al., 2019). BII는 지구 경계 프레임워크에서 세계 생태계가 '안전 운영 공간' 내에 있는지 평가하는 잠재적 지표로 제안되었다(Steffen et al., 2015).

3.1.2 세계자연유산

가. 보호지역 개요

1)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이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약칭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할 만큼 특별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산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제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UNESCO, 2024).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유엔 회원국들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제시하여 미래세대에 이를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 문화유적 보존과 자연 보존의 두 흐름을 하나로 통합한 협약이다. 1972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5년에 발효되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196개국이 세계유산협약을 비준 또는 수용하여 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02번째로 협약에 가입했다.

세계유산협약은 유일하게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단일 체계로 묶어낸 법적 장치이자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세계유산협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
- 세계유산 기금 설치 및 사용기준
- 일반인들의 세계유산 보호 인식 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권장

세계유산협약 운영 기구에는 협약 가입국들로 구성된 총회, 총회에서 선출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3개 자문기구가 있다. 각 운영 기구의 주요 기능은 <표 3-4>와 같다.

<표 3-4> 세계유산협약 운영 기구의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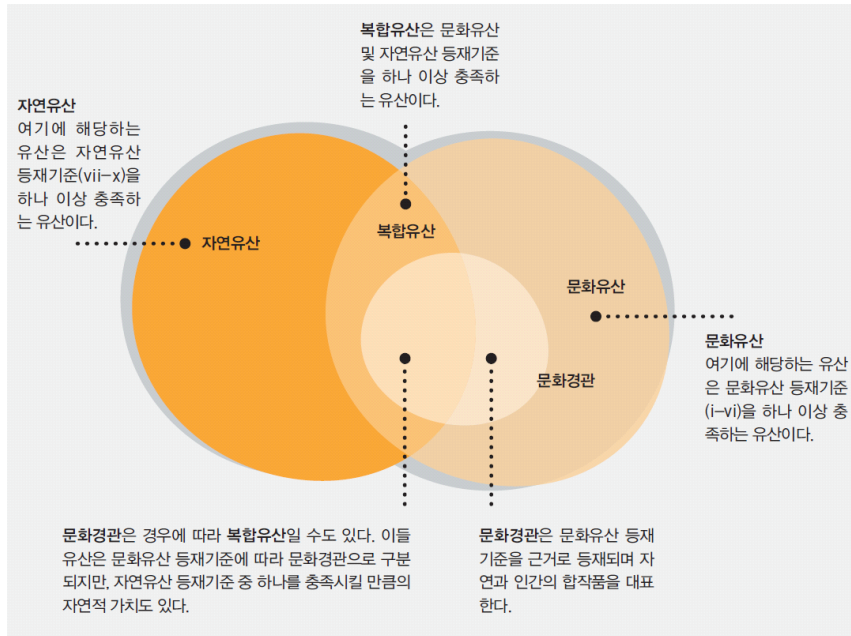
운영기구명	주요 기능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등재 결정 • 세계유산 등재 기준 결정 • 세계유산기금 사용 결정 등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 문화유산을 위한 훈련, 세계문화유산의 보전 상태 모니터링, 문화유산 관련 보전 및 역량 강화 등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 문화유산 등재 신청 건의 평가, 세계문화유산의 보전상태 모니터링 등 문화유산 분야 제반 자문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국제자연보전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 자연유산 등재 신청 건의 평가, 세계자연유산의 보전상태 모니터링 등 문화유산 분야 제반 자문

2) 세계유산 등재 기준 및 유형

세계유산의 지정은 세계유산목록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inscription)'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정의된 구체적인 등재 기준과 조건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올릴 유산을 선정한다.

등재 기준(<표 3-5>)에 따라 세계유산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그리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등재 기준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복합유산(mixed heritag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그림 3-5> 참조).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총 10가지로, 이 가운데 자연유산은 등재기준 (vii)부터 (x)까지 4개 기준 중 어느 하나에만 부합하면 자연유산 등재 기준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화경관을 위한 별도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없으며, 문화유산 기준 중 문화경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는 항목을 활용한다. 문화경관은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보전·관리가 어렵고 대상 지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 및 조성된 경관(Designed Landscapes),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Evolving Landscapes), 연상적 문화경관(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s) 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림 3-5> 세계유산의 유형 개념도(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2011)

<표 3-5>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세계유산 등재 기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결과에 해당해야 한다.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해야 한다.

이 외에 특별한 유형으로 접경(월경)유산²³⁾, 연속유산이 있다. 접경유산(transboundary site)은 둘 이상의 인접 당사국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육지 또는 바다 구역에 위치하는 유산을 말하며, 연속유산(serial site)은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성을 지니면서 한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일련의 유산이다.

3) 세계유산 등재 절차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 목록인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해당 사이트가 최소 1년 전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등재 여부 결정까지 절차를 요약하면 <표 3-6>과 같다. 신청서 제출 전까지 국내 절차는 국가별로 정해 진행된다.

유네스코로 제출된 신청서는 자문 기구가 평가하는데, 문화유산은 ICOMOS가, 자연유산은 IUCN이 맡는다. 자문 기구의 심사결과 및 권고안을 토대로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 여부에 대해 등재(inscription), 보류(referral), 반려(deferral),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정한다.

- 등재 :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서술이 채택되고 이러한 가치를 보호·관리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인정됨
- 보류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이 미비하여 3년 내에 신청서를 수정·보완하여 재신청할 경우 현지실사 없이 재심의를 가능하나 3년이 지나 신청하면 현지실사부터 다시 거침
- 반려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는 심화 연구 및 비교·분석이 부족하여 신청서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유산 경계가 완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신청서 수정 및 보완, 현지실사 등 모든 평가 과정이 다시 수행되어야 함
- 등재불가 : 신청서에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입증과 보호 및 관리 체계 모두 인정받지 못함

23) 한국유네스코(2019)에서는 세계유산관련으로 transboundary를 ‘월경’으로 해석했으며,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는 ‘접경’으로, 람사르습지 관련해서도 ‘접경’으로 해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접경으로 통일되게 기술함. 한편, 유사한 의미로 UGGp에서는 ‘초국경(transnational)’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접경으로 통일되게 기술함.

<표 3-6>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신청 전년 9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초안 송부(당사국→세계유산센터) 신청서 초안의 완성도에 대한 기술검토(세계유산센터) : 형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연도 2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접수 마감(세계유산센터)
신청 연도 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 기구 평가단(외부검토자와 현지 실사자) 구성
신청 연도 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실사 및 회부 검토
신청 연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패널회의
신청 연도 다음해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 기구의 추가 요청 자료 신청 당사국 송부
신청 연도 다음 해 2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당사국의 보완 자료 최종 접수
신청 연도 다음 해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패널회의
신청 연도 다음 해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기구 보고서 권고안 도출(자문기구→세계유산위원회) -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4단계로 권고안 송부 및 결과 공개
신청 연도 다음 해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 기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등재여부(4단계 최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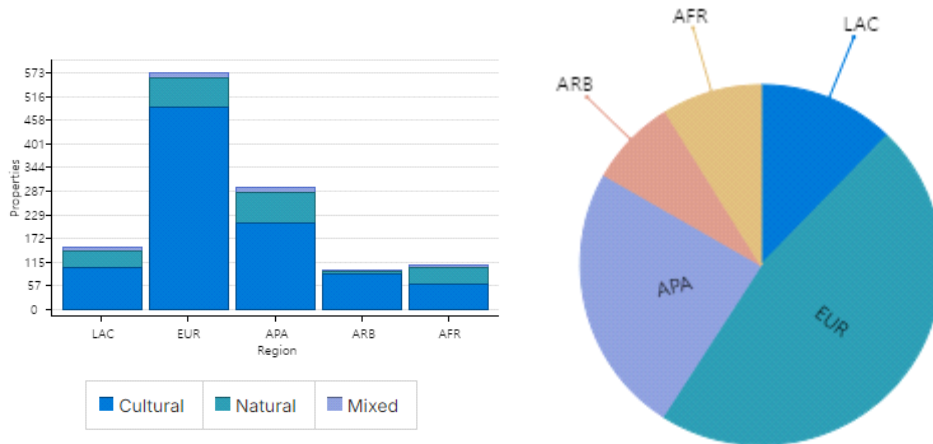
나. 등재 현황 및 동향

1) 등재 현황

2025년 5월 기준으로 168개국의 1,223건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 중 문화유산이 952건, 자연유산이 231건, 복합유산은 40건으로, 문화유산의 비율이 자연유산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에는 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2건으로 총 16건이 등재되어 있다²⁴⁾.

지역별 등재 현황을 보면 아래 도표<그림 3-6>과 같이 유럽·북미 지역에 가장 많은 세계유산(573개소, 46.85%)이 등재되어 있고, 자연유산의 비율은 아프리카 지역(108개소 중 61건)이 가장 높다(<https://whc.unesco.org/en/list/>).

24)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화성(1997), 경주역사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한국의 서원(2019), 한국의 갯벌(2021), 가야고분군(2013)



LAC: 남미카리브해 EUR: 유럽 APA Region: 아시아태평양 ARB: 아랍 AFR: 아프리카

<그림 3-6> 지역별 세계유산 등재 현황(2025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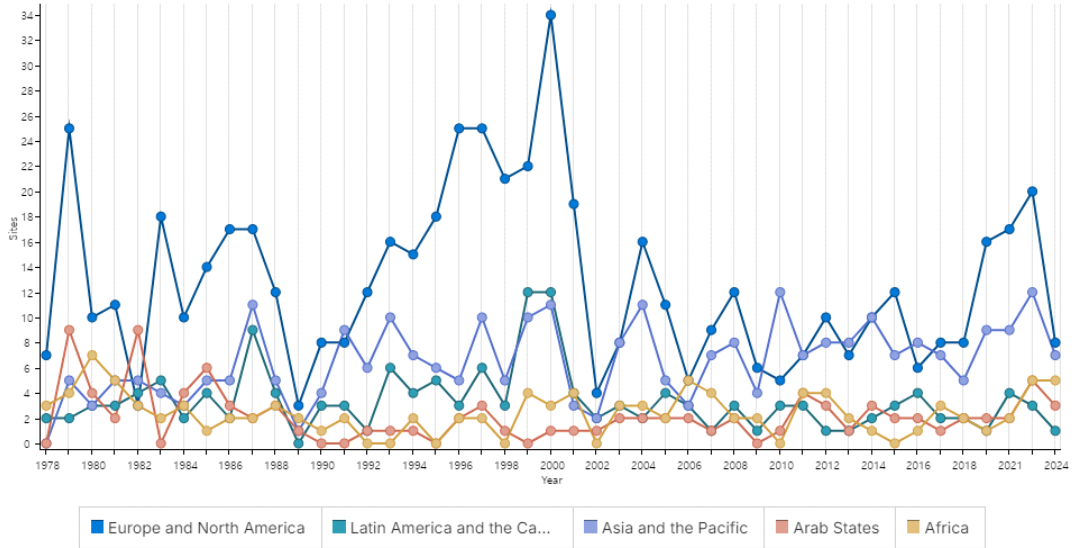
대륙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합계	비율	국가수
남미카리브해	103	39	8	150	12.3	28
유럽·북미	490	71	12	573	46.9	50
아시아태평양	211	73	12	296	24.2	36
아랍	87	6	3	96	7.9	18
아프리카	61	42	5	108	8.7	36
계	952	231	40	1,223	100	168

2) 등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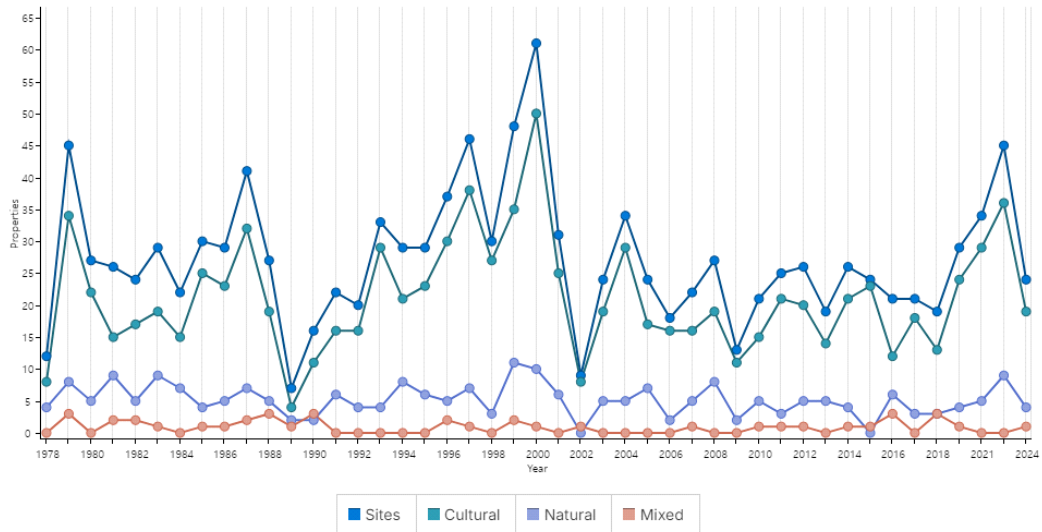
• 등재 불균형

<그림 3-7>, <그림 3-8>은 각각 세계유산이 처음 등재된 1978년부터 최근 2024년까지 지역별, 그리고 문화·자연·복합 유산과 같이 유형별로 매해 등재된 유산 수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https://whc.unesco.org/en/list/>).

세계유산 등재 동향은 문화 및 자연유산 간, 그리고 지역 간 등재 불균형을 보인다. 1978년 12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후 매년 평균 약 28건 정도의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는데, 1990년대 초반 특정 지역(유럽 및 북미)과 문화유산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특정 국가에 유산 등재가 편중되는 현상이 조금씩 줄었으나 문화권(지역)별로 보면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유산 등재 편중 현상은 지속되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일부 해를 제외하고 매해 문화유산의 수가 자연유산에 비해 몇 배씩 많은 경향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등재 불균형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3-7> 지역별 세계유산 등재 추이(1978년~2024년)



<그림 3-8> 세계유산 유형별 등재 추이(1978년~2024년)

- 업스트림 절차와 예비평가

세계유산 등재 준비 및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스트림 과정과 예비평가(upstream process and preliminary assessment) 제도가 도입되었다. 업스트림 절차는 2015년부터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포함된 것으로, 당사국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 전 초기 준비 단계에서 세계유산 센터와 자문기구로부터 등재 관련한 지침과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재 서류를 완료하기 전에 유산의 완전성, 진정성을 포함

한 뛰어난 보편적 타당성(OUV)을 정당화할 잠재적 요소를 찾기 위한 초기 준비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업스트림 절차가 효과적이라면 후보지 선정 과정의 초기 단계, 즉 당사국의 잠정목록을 준비하거나 수정하는 시점부터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이트가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된 후 예비평가 요청이 제출되기 전에도 진행될 수 있다. 업스트림 절차는 데스크 기반이지만 현장 방문이나 워크숍 개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비평가는 등재 신청 준비 초기 단계부터 자문 기구와 당사국이 논의하여 양질의 등재 신청서를 준비하도록 돕고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신청서 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겪는 등재 신청 건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자발적 예비평가 참여를 시범 운영해 왔고 2027년부터는 모든 신청서가 예비평가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다. 주요 전략 및 현안

1) 세계유산 전략목표

세계유산 관련하여 여러 전략과 현안들 중에서 자연유산과 연관성이 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계유산협약 체결 30주년을 맞이하는 2002년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을 채택하여, 세계유산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뒤이어 2007년 기존 전략목표에 '다섯 번째 C'로 지역사회(Communities)를 추가하여 전략목표는 '5Cs'가 되었다(<표 3-7> 참조). 이러한 전략목표 채택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계유산 등재와 관리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경관(landscape) 개념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졌다. 경관은 자연유산 관련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문화유산 분야로 확대되어 역사정원(historic garden),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등과 같은 개념들이 자리 잡았다. 둘째, 점 단위가 아니라 주변 공간을 포함하여 입체적으로 유산을 바라보고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무형적 요소가 중시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연속유산(serial site)의 등재 신청이 증가해 왔다. 이는 점경유산과 국가 간 연속유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연관된다. 넷째, 등재 이후 보전 및 관리 체계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에 오른 유산들과 같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적절히 보호 관리되지 못하는 유산들의 개선이 세계유산협약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표 3-7> 세계유산협약의 전략목표 5Cs(<https://whc.unesco.org/en/convention/>)

5Cs	내용
신뢰성(Credibility)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대표적이고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증거로서 세계유산 목록의 신뢰성 강화
보전(Conservation)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세계유산 협약 및 관련 수단의 이해와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 목록 등재 준비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인 역량 강화 조치의 개발 촉진
소통(Communication)	소통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 지지 제고
지역사회(Community)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2) 등재 불균형 해소

세계유산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간, 그리고 지역 간 등재 불균형 문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오래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이 선진국, 특히 유럽에 맞춰 만들어져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비유럽 지역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세계유산위원회는 1994년 ‘대표성, 균형, 신뢰성 있는 세계유산 목록을 위한 글로벌 전략’²⁵⁾을 수립하였다.

글로벌 전략의 목표는 기존의 제한된 유산 개념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조화와 교류, 인류의 창의성이 담긴 유산들의 가치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세계유산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의 잠정목록 및 등재 신청서 준비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²⁶⁾.

글로벌 전략에 따라 등재 신청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화해 왔고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누적된 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1996년, 아프리카 지역과 아랍 지역의 일부에서 유산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유산 등재의 불균형 경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 2000년대 초반, 지역적으로는 유럽 및 북미 지역, 유산 유형으로는 문화유산 편중 현상이 심화되었고, 2000년 한해에 50건의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25) Global Strategy for a Representative, Balanced and Credible World Heritage List

26) “등재 준비 초기단계부터 세계유산 전문가 도움 받아야” 울산매일. 2019년 4월 2일자 기사.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257>

총 61건이나 증가함.

- 2002년, 한 해 신청 건수를 30건으로 제한하여 등재 건수가 총 9건으로 크게 감소함.
- 2003년, 전년도에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한 해 신청 건수를 40건으로 늘림.
- 2004년, 여전히 지속되는 문화유산 편중 현상을 해결하고자 국가별 신청 건수를 총 2건으로 제한하고 최소 한 건은 자연유산이나 복합유산이어야 함. 이후 지역별, 유산 유형별 편중 현상이 완화됨.
- 2018년, 한 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신청 건수를 앞서 반려나 보류된 신청, 확장, 접경유산 및 국가 간 연속유산 신청을 포함하여 40건으로 하고, 당사국별 신청 건수는 유산 종류에 상관없이 1건 또는 이전에 보류나 반려된 건이 포함되는 경우 두 건으로 제한함.
- 2021년, 위의 제한사항 중 위원회의 검토 신청 건수를 연간 35건으로 수정함(UNESCO, 2024).

3) 자연유산 보전의 주요 위협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전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니터링 절차와 전문가 실사가 포함된다. 매년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유산들의 보전 상태(State of conservation, SOC) 보고서가 제출된다. 보전 상태 보고서에는 각 유산이 직면한 위협과 문제들이 기술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연유산 위협으로는 분쟁, 개발 압력, 기후 변화 등이 있다.

① 분쟁

전쟁과 분쟁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모두에서 나타나는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중동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의 문화유산 보전 위협 상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자연유산의 경우에도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유산들이 무장 분쟁과 사회 불안으로 직접적·간접적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특히 동부 지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있어 비룽가 국립공원(Virunga National Park)의 많은 부분이 무장 단체의 통제 아래 있다. 이에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마운틴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베닌,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 걸친 접경유산인 'W-아를리 펜자리 복합유산(W-Arly-Pendjari

Complex)’에서는 활동 중인 무장세력들로 인해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지역의 관리자들이 공격을 받아 대피하기도 하였다.

② 개발압력

세계유산 구역과 인근에서 일어나는 개발 활동이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유산의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자문 전문가들은 2023년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 2.0>을 발간하였다. 자연유산의 경우 IUCN의 그린 리스트(Green List)²⁷⁾가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를 위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에 위치한 와덴해(Wadden Sea), 케냐의 투르카나 국립공원(Lake Turkana National Park) 등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 유산들에 요청된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와 같은 절차를 활용해 복수의 개발사업들의 점진적 영향(progressive impacts)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채굴 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유산 맥락에서의 풍력 에너지 사업 지침(Guidance for Wind Energy Projec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 등과 같은 관련 지침이 제공되었다.

③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대규모 산호의 백화를 비롯하여 육상, 담수, 빙권, 연안 및 해양 생태계의 세계유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 중 하나이다. 빈번해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또는 사막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현상은 여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 세계유산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3년 11월에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을 위한 기후행동 정책 문서(Policy Document on Climate Action for World Heritage)’가 채택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세계유산센터는 이 정책 문서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과 지원을 촉진하는 지침 문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IUCN의 기후 위기위원회(Climate Crisis Committee)는 세계유산을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해법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27) IUCN 그린 리스트는 보호 및 보전 지역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식을 인정하고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이다. 이 리스트는 보호지역이 높은 보전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www.iucngreelist.org).

4) 세계유산의 생물다양성 기여

세계유산은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중요 이행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은 생태계 완전성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구 표면의 1%도 채 되지 않지만, 지도에 표시된 전 세계 종 다양성의 5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75,000종 이상의 식물과 30,000종 이상의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일부 종들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20,000종 이상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상징적인 종의 마지막 개체들이 서식하고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코끼리, 호랑이, 판다의 최대 3분의 1, 그리고 유인원, 기린, 사자, 코뿔소의 경우 최소 10마리 중 1마리가 여기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로 보호되는 지역조차도 농업 확장, 기반시설 개발, 밀렵, 자원 과잉 착취, 외래 침입종 확산 등, 지구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의 압력으로 위협받고 있다. 기온이 1°C 상승할 때마다 위험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는 종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UNESCO and IUCN, 2023).

따라서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현재의 생물다양성 및 기후위기를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23년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들이 K-M GBF의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지원하는데 세계유산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3.1.3. 생물권보전지역

가. 보호지역 개요

1)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

생물권보전지역은 지구의 생물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육상 및 연안·해양 생태계를 포함하는 곳으로서,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국가가 설립하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곳으로, 지역 공동체의 노력과 건전한 과학에 기초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3대 유네스코 보호지역 제도 중 하나이며 1976년에 첫 생물권

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유네스코 보호지역 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71년 유네스코의 정부 간 과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출범한 MAB 프로그램은 자연 및 사회과학 연구,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 실행하고 확산하는 국제사업이다.

MAB 프로그램은 1971년 11월 19일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처음 열리면서 공식 출범하였고,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²⁸⁾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보다 앞서 1968년 유네스코가 개최한 ‘생물권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의 과학적 기초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에서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일명 ‘생물권 회의(The Biosphere Conference)’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 당시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알려진 ‘생물권’ 용어가 국제사회에 친숙한 언어로 인식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70년에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 MAB 프로그램 계획이 제출되어 승인되었고 처음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언급되었으며, 1976년에는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전 세계 57곳에 지정되었다.

MAB 프로그램 초기(1976~1984년)에는 자연자원 보전, 과학적 연구, 환경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국립공원 등 기존 범정보호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5년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세비야 전략(Seville Strategy for Biosphere Reserves)’,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같은 규범이 확립되면서 MAB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점부터는 보전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인간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생물권보전지역 내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의 세 가지 용도구역<그림 3-9>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각 구역의 기능 및 활동이 정립되었다.



<그림 3-9>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자료: 유네스코 MAB 홈페이지, 저자 수정)

28)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스톡홀름 회의’)로, 현대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conservation), 발전(development), 지원(logistic support)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구역(core area), 완충구역(buffer zone), 협력구역(transition area) 등 세 가지 구역으로 공간 계획을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장 주된 목적은 과거 '전통적인' 보호지역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인접한 지역사회까지 범위에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행하는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삶과 경제활동의 원천인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경제와 생태계가 대립 또는 갈등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국제보호지역에 대비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들은 아래와 같다.

- 법적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않는 지역까지 포괄하여 경관 규모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단일 생태계보다 더 큰 경관 규모의 보호지역 체계이고 인간을 경관의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적응성(adaptability)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계획이 요구되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개념을 지역 조건에 맞게 해석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 특성은 국가나 지역의 조건과 필요에 따른 다양성,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반면에 운영제도의 모호성, 관리의 어려움 등의 제약점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사업들이 합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정부, 비정부 기관·단체, 개인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강조하며, 이런 점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을 구성하는 3개 구역 중에서 특히 협력구역(transition area)이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중요하다.
- 생물권보전지역은 국제·지역(regional)·국가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잘 발달된 메커니즘이다.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외에 각 지역 및 소지역, 여러 주제별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들 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MAB 프로그램 운영 기구에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국으로 구성된

MAB 국제조정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the MAB, MAB-ICC), MAB-ICC의 지역별 대표 6명으로 구성되는 MAB 의장단(MAB Bureau),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Biosphere Reserves)가 있다. 각 운영 기구의 주요 기능은 <표 3-8>과 같다.

<표 3-8> 세계유산협약 운영 기구의 주요 기능

운영기구명	주요 기능
MAB 국제조정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국으로 구성 • MAB 사업의 조정·감독·검토,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승인, 정기검토보고서 등 MAB 관련 의제 논의 및 결정 • 매년 이사회의 개최
MAB 의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국 중에서 6개 지역을 대표하는 6개 국가로 구성 (의장 1, 부의장 5) • MAB 국제조정이사회 기능 지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12명으로 구성 (임기 4년) •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정기보고서 평가에 대한 권고, 여타 MAB 관련 자문

2)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

1995년 채택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Statutory Framework for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은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연성법 기능을 하는 문서로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에 명시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은 <표 3-9>와 같다.

3)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절차

유네스코 회원국이 아래 지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필요 시 보완 자료를 제출을 거쳐 다음 해에 열리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세계유산, UGGp와 달리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절차에서 현장 실사가 없다.

시기	진행사항
9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상주대표부를 통해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 제출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MAB 사무국(생태지구과학국)이 신청서 검토 후 기술적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자료 요청
다음 해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의에서 신청서 전문적 검토 후 권고안 제시 - 보완 요청사항이 있을 시 신청국은 MAB 사무국으로 제출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제자문위원회의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정 여부 최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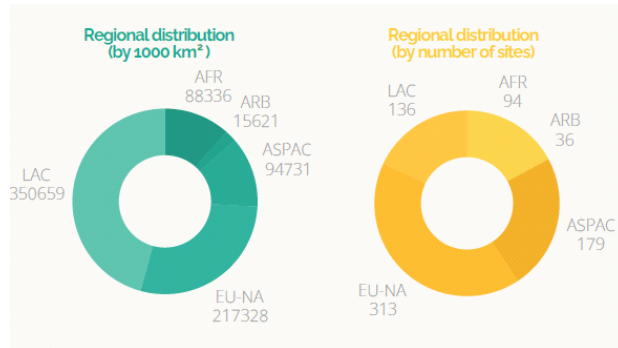
<표 3-9>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

1. 인간 간섭의 점진적 변화를 포함하여 주요한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한 부분을 포괄하여야 한다.
2.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제3조에 언급된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5. 적절한 구획을 설정하여 다음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a)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목적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갖춘 법적으로 구성된 핵심지역이나 장기 보호되는 지역
 - (b) 보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활동만이 수행되는 지역으로 핵심지역에 인접하거나 이를 둘러싸면서 명확히 구분되는 완충지대
 - (c) 지속 가능한 자원의 관리 실행이 장려되고 발전되는 바깥의 전이지역
6. 무엇보다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을 실행하고 고안하는데 관심이 있는 공공 기관, 지역공동체, 그리고 민간인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더불어 다음을 위한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 (a) 완충지역에서 인간의 이용과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 (b)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관리 정책이나 계획
 - (c) 이러한 정책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이나 메커니즘
 - (d) 연구, 모니터링,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나. 지정 현황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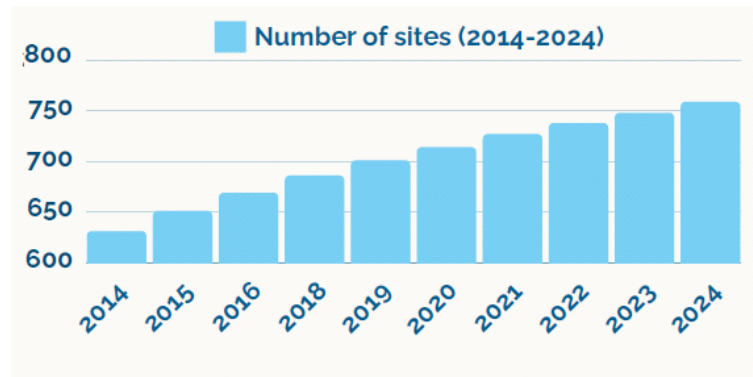
2025년 5월 기준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36개국에 759건이 지정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사회 거주 및 활동이 이뤄지는 협력구역을 포함하기에 다른 국제보호지역에 비해 전체 면적을 합하면 매우 넓고 거주 인구도 많은 편이다. 총면적은 7,667,281 km²으로 호주 면적과 비슷하며, 약 3억 명이 생물권보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미 카리브해 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118, 아랍 38, 아시아태평양 228, 유럽 및 북미 331, 남미 및 카리브해 136건이다.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유럽·북미 지역에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다. 두 개 이상 국가에 걸쳐 지정된 접경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은 25건이다(<그림 3-10> 참조).



AFR: 아프리카, ARB: 아랍, ASPAC: 아시아태평양, EU-NA: 유럽 및 북미, LAC: 남미 및 카리브해
 <그림 3-10>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역별 지정면적(좌) 및 지정 수(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1976년 57건, 1977년 61건을 시작으로 매해 지정되는 수의 큰 폭의 변화 없이 총 지정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림 3-11>은 최근 10년간 지정 수를 보여준다.



<그림 3-11> 2014-2024년간 생물권보전지역 수의 변화

2025년 5월 기준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국가는 136개국인데 해마다 처음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국가들이 있다. 유네스코는 더 많은 회원국들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NBR,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내 모든 지역의 질적 개선과 우수성 및 향상 과정(Process of excellence and enhancement of the WNBR as well as quality improvement of all members of the World Network, 약칭 출구전략)이 시행되었다. 오래 전에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기능을 강조한 세비야 전략(Seville Strategy, 1995년) 이전 70년대, 80년대에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 중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하지 않는 곳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정기검토 보고서(Periodic Review Report)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용도구역, 관리체계 등 생물권보전지역 기준 충족에 문제가 있는 270곳을 대상으로 당사국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곳들은 지정 철회를 권장하였고 몇몇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지정을 철회하였으며, 이후 다시 지정 준비 과정을 거쳐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한 곳들도 있다. 1982년에 지정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도 출구전략의 대상지로 포함되었고 2016년 4개 시군에 협력구역을 대폭 추가·확대하여 개선을 완료하였다.

다. 주요 전략 및 현안

1) 리마행동계획

1995년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2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World Congress of Biosphere Reserves)에서 첫 생물권보전지역 전략인 '세비야 전략(Seville Strategy for Biosphere Reserves)'이 채택되어 21세기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약 10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갱신된 새로운 전략이 채택되었는데, 200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마드리드 행동계획 2008-2013', 2016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리마 행동계획 2016-2025'이 있다. 2025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제5차 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여기에서 다음 전략인 '항저우 행동계획 2026-2035'가 논의되고 채택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적용되는 리마 행동계획(Lima Action Plan for UNESCO's MAB Programme and its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2016-2025))은 2015년 6월 수립된 '2015-2025년 MAB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10개년 행동계획으로 2016년 3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7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

리마 행동계획은 세계 곳곳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빈곤, 물·식량 안보 등 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방안을 모색 및 확산하여 인간과 환경의 웰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5개 전략적 영역별로 기대 성과, 행동, 결과 등을 제시한다.

- 전략행동분야 A :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 전략행동분야 B : MAB 프로그램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포용적이고 역동적이며 결과 중심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 전략행동분야 C : MAB 프로그램 및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위한 효과적 외부 파트너십과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
- 전략행동분야 D : 포괄적·현대적·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과 정보 및 데이터 공유
- 전략행동분야 E : MAB 프로그램 및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및 내부 거버넌스

2) 국제적 목표 실행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 및 기여 강화

최근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MAB 및 생물권보전지역이 국제적 전략 및 목표, 특히 SDGs, K-M GBF 이행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3-10>).

K-M GBF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특히 자연·문화 관계 분야 핵심 기관으로서 유네스코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자연과 문화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연계에 관한 유네스코, CBD, IUCN의 공동 실행 프로그램을 재개하였다. 또 CBD의 유일한 청년단체인 Global Youth Biodiversity Network와 CBD 관련 회의에서 공동으로 워크숍(부대행사)을 개최하면서 청년 참여를 지원하였다. K-M GBF 이행을 위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비롯한 유네스코 지정 지역들이 K-M GBF 이행을 지원하는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되었다.

2022년 발간된 유네스코 정책 브리프에서는 각국이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에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합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K-M GBF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UNESCO, 2022).

첫째, K-M GBF의 장소 기반 목표(area-based targets)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세부목표 1번, 2번, 3번, 12번과 연관된다.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포함된 보호지역 외에,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공간계획 및 ‘OECM(자연공존지역)’을 통해 기존 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던 지역에서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장소 기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약 18%가 핵심구역, 나머지 82%가 완충구역 및 협력구역이므로 보호지역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생물다양성 및 생물-문화 다양성 보전에 맞는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은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관리 및 보전되는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의 연결

된 시스템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각국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실행할 전체론적 조치를 제공하는 역할로 세부실행목표 14번, 15번, 16번, 20번, 21번과 연관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부문 간 생물다양성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형성을 지원하고 생물다양성 주류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각국의 장소 기반 외 목표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정하며 원주민 공동체를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실행의 중심에 놓고, 지속가능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 교육을 권장한다.

3)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제도 강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운영의 역사가 길어지고 생물권보전지역 수가 증가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운영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신청부터, 지정, 관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침을 담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세부 지침(Technical Guidelines for Biosphere Reserves)’을 2021년에 발간하였다. 그전까지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이외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공식 자료가 없었다. 이 지침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 거버넌스, 정책·관리, 비즈니스 계획, 데이터의 관리·모니터링 등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설명과 지침, 관련 사례를 제공한다.

또한 관련 주요 문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온라인 보고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는 MAB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정기검토 보고서, 이사회 보고서 등 주요 문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고 지금까지 PDF 형식으로 제출하던 신청서와 정기검토 보고서를 디지털 양식으로 제출하는 온라인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온라인 방식의 신청 및 보고 방식을 통해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절차 관련 소통 및 모니터링이 보다 명확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필요한 정보나 데이터를 추출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통계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0>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사업이 포함된 K-M GBF의 모니터링 지표

목표(Goal)/ 세부목표 (Target)	Headline indicator	Complementary indicator
목표 B	B.1.생태계가 공급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서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의 수 •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과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등재된 복합 사이트(자연적 및 문화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님), 문화경관(자연과 인간이 연계된 작품으로 인정됨), 지역 및 원주민의 지식·관행자자를 포함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연 사이트의 수 • UNESCO Culture 2030 (복수 지표)
목표 D	<p>D.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적 자금 지원</p> <p>D.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내 공적 자금 지원</p> <p>D.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적 자금지원(국내 및 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로 발간된 공동 학술논문(해양 생물다양성 정보 체계(OBIS, Oce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세부목표 3	3.1. 보호지역과OECM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지정지역(자연 및 복합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의 면적 • 긍정적인 보전성과가 있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비율
세부목표 21	21.1. K-M GBF를 위한 생물다양성 정보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생물다양성 정보 체계(OBIS)를 통해 접근 가능한 해양생물종 출현 기록의 증가

4) 참여 주체(파트너) 확대

생물권보전지역은 해당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지방정부, 기업, 청년, 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생물권보전지역 활동과 사업 참여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권장한다. 스페인, 독일 등에서는 기업이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에 참여하여 자원 확대와 인지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고, 시골 지역에서의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이탈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글로벌, 지역, 국가 등 각 단위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제1차 MAB 청년포럼이 2017년 9월 이탈리아 Po Delta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지역 네트워크, 국가별 MAB 청년포럼 등이 조직되거나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고 유네스코 MAB 청년 대사(카자흐스탄)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도 MAB 청년포럼,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 사업을 추진해 왔다.

3.1.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 보호지역 개요

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위한 운영 지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GGp, UNESCO Global Geopark)의 정의와 특성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위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UNESCO Global Geoparks)’에서 ‘단일의 통일된 지리적인 지역으로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장소와 경관이 보존, 교육, 지속 가능 발전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관리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UGGp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보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가 강한 반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중요시한다(유 등, 2024; <https://unesco.or.kr/geopark>,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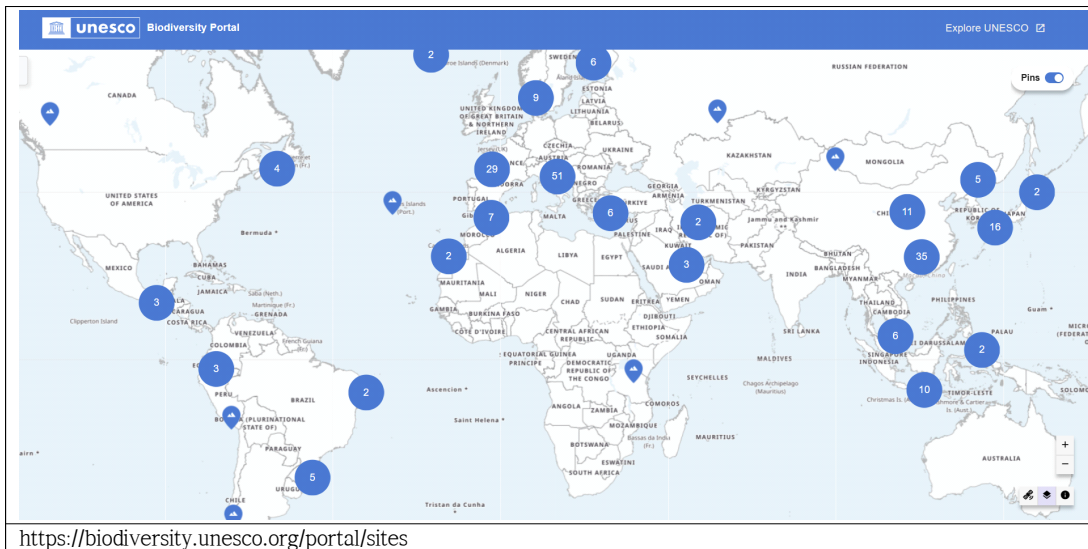
지질공원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제시되었으며, 유네스코에서는 1997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지질공원 사업이 제안되었다. 2000년에 유럽의 일

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럽지질공원네트워크가 구성되었고, 2004년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Global Geoparks Network)로 확대되었다. 유네스코는 2015년 세계지질공원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였다. 2025년 5월 기준 50개 회원국에 229개의 세계지질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4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이후 재검증 과정을 통해 세계지질공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오관광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다(유 등, 2024; unesco.org/en/igpp/geoparks, 2025).

나. 지정 현황 및 동향

1) 지정 현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25년 5월 기준 총 229개소(50개국)가 지정되어 있다. 공간적으로는 7개의 대륙 중 호주와 남극대륙을 제외한 곳에 모두 분포한다.



<그림 3-1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분포 현황(2025 기준)

국가별로는 중국이 49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스페인(18개소), 이탈리아(12개소), 인도네시아(12개소), 일본(10개소), 영국(10개소) 순이다. 한국은 총 7개소를 보유하여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표 3-11>). 한편, 인도네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므로 성장세가 매우 빠른 편이다.

현재 세계지질공원은 유럽(총 113개)과 아시아(총 92개)에 편중되어 있어서 대륙별 분포에 불균형이 심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15년에 유네스코 공

식 프로그램으로 되면서 모든 대륙에 골고루 전파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현재 남미 대륙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급증 추세를 보이거나, 미국과 호주는 세계지질공원이 없다. 세계지질공원은 200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선형적 증가세를 보인다(<표 3-12>)(<그림 3-13>).

<표 3-11> 국가별 세계지질공원 보유 개수(2025.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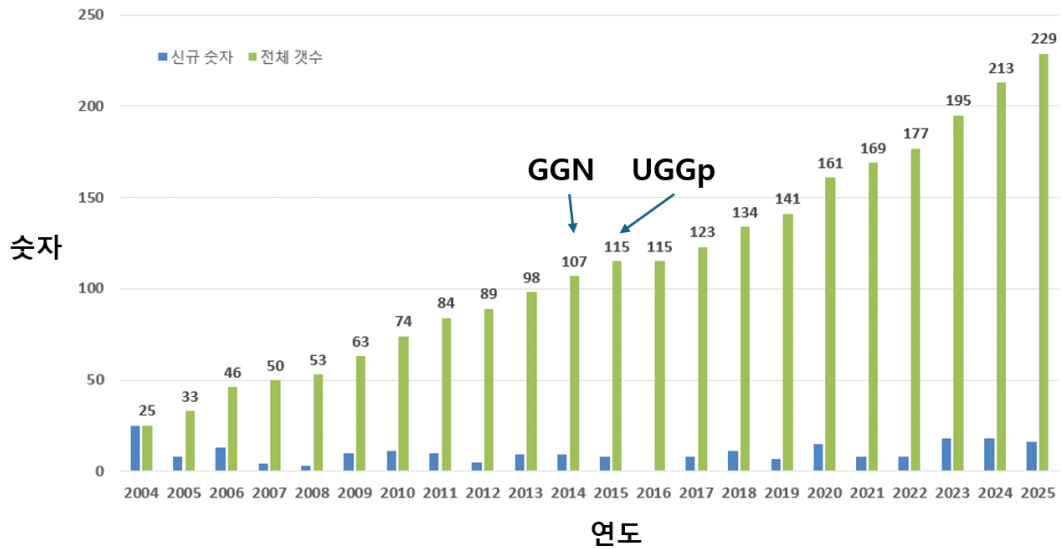
국가	개소 수	국가	개소 수
China	49	Iceland	2
Spain	18	Malaysia	2
Indonesia	12	Mexico	2
Italy	12	Netherlands*	2
Japan	10	Romania	2
UK*	10	Saudi Arabia	2
France	9	Slovenia*	2
Greece	9	Thailand	2
Germany*	8	Chile	1
Republic of Korea	7	Cyprus	1
Brazil	6	Czechia	1
Portugal	6	북한	1
Canada	5	Luxembourg	1
Finland	5	Morocco	1
Norway	5	New Zealand	1
Vietnam	4	Nicaragua	1
Austria*	3	Peru	1
Croatia	3	Philippines	1
Denmark	3	Russian Federation	1
Ecuador	3	Serbia	1
Hungary*	3	Slovakia*	1
Iran(Islamic Republic of)	3	Sweden	1
Ireland*	3	Tanzania	1
Poland*	3	Türkiye	1
Belgium*	2	Uruguay	1
		합계	234*

주) *: 접경 지질공원(5개소)으로 인해 국가별로 산정하면 5개소가 늘어남(234=229+5)

<표 3-12> 각 대륙별 지질공원 보유 숫자(2025.4. 기준)

대륙명	EGN	APGN	LAC	NA	AFN
세계지질공원 숫자	113	92	15	5	4

EGN: 유럽지질공원망, APGN: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망, LAC: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망, NA: 북미대륙망, AFN: 아프리카망



<그림 3-13> 연도별 세계지질공원 지정 현황

2) 지정 동향

•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IGGP(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중 UGGp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OEWG(Open-ended Working Group)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과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지질과학연합(IUGS,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은 UGGp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질유산의 국제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UGGp 신청서 중 지질유산 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것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가 2022년 채택하였다. 흔히 별책이라고 하는 지질유산 가치 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지오사이트에 대한 국제적 가치 입증을 강화하였다²⁹⁾.

2025년 6월에는 16개 신규 UGGp 지정지에 대하여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그동안 유네스코는 신규 지정지에 대한 별도의 축하 행사는 없었으나, 향후 유네스코에서는 이를 정기화할 예정이다.

• 미국

미국은 유네스코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아직은 UGGp는 없다³⁰⁾. 그러

29) IUGS, 2022,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THE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GEOLOGICAL HERITAGE IN UNESCO GLOBAL GEOPARK APPLICATIONS.

30) 미국은 2025년 7.22. 유네스코에서 탈퇴하였다.

나 미국 지질공원 모임이 결성되어 수개 주에서 여러 개의 지질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³¹⁾

- 호주

호주는 GGN 시절에 세계지질공원망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호주 내부에서 보호지역 성격 여부에 따른 논란 등으로 현재는 GeoRegion이라는 용어로 유사한 지질공원을 운영한다. 호주는 비록 UGGp는 없지만, 호주지질공원망(Australian Geoparks Network)을 결성하여 수개소에서 지질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4개의 지역 지질공원이 운영 중이다.³²⁾ 특히 호주는 geoheritage와 geotourism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 북한

2025년 4월에 북한 내에서는 최초로 백두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장백산(Changbaishan) 명칭과 경합하는 관계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는 중국과 접경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권고하였다. 향후 남북한 경계지역에 공동지질공원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다. 주요 전략 및 현안

1) 세계지질공원 전략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15년에 IGGP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그 이전의 유네스코 지원으로 운영되던 GGN을 기반으로 하여 이어받은 것이다. 세계지질공원은 IGGP 규정에 최상위 규정이 있으며, UGGp에 대한 전략과 계획 및 이행은 UGGp Council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IGGP 2.6조 및 OG 4.1)³³⁾.

31) <https://www.progeo.ngo/u-s-geoheritage-and-geoparks-advisory-g>

32) <https://australiangeoparksnetwork.org/>.

33)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Part B: UNESCO Global Geoparks.

Article 2: UNESCO Global Geoparks Council

2.6 The Council shall be **responsible for advising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on the strateg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UNESCO Global Geoparks and specifically:

(a) raising and allocating funds;

(b) cooperation among the UNESCO Global Geoparks and with other relevant programmes.

OPERATIONAL GUIDELINES FOR UNESCO GLOBAL GEOPARKS (OG라고 함)

4.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FUNCTIONS

4.1 UNESCO Global Geoparks Council

The Council is the decision-making body for new UNESCO Global Geopark applications and revalidations and it is **responsible for advising the Director-General on the strategy planning** and

그러나 UGGp Council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전략 계획에 대하여 가시적인 자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UGGp들로 구성된 GGN은 자체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지만³⁴⁾ 이는 GGN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네스코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 계획은 아니다.³⁵⁾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전략계획은 유네스코 회원국(MS, member states)이 참여하여 논의할 사항이나 GGN 전략은 UGGp들만 참여하여 승인한 것으로 MS는 근본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분간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중기 전략에 따른 포괄적인 전략을 유지한다.

2) 현안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 자원/인원 부족

유네스코는 운영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특히 IGGP에 새로 편입된 세계지질공원은 2015년 공식화 당시 유네스코 내부에서 추가 자원 할당 없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처럼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UGGp를 다루는 유네스코 IGGP 담당 부서는 자체 예산과 직원의 부족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중장기 전략은 공백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 OEWG: 유네스코 운영 규정(OG) 개정 관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신규 지정과 확장에서는 일정 기간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다(OG 5.4). 만일 특정 국가가 반대의사(서면)를 제기하면 해당 신청 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이 경우, 분쟁 해결은 당사자 주의를 채택(OG 5.4 iv)하여 유네스코는 그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 의견에 대하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터키와 키프러스 등).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OEWG(Open-ended Working Group)를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2025년 5월에는 유네스코에서 3차 OEWG가 개최되어 관심을 갖는 MS가 많아져서 향후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 IGGP Statutes 개정 관련

2015년 도입될 당시 UGGp 관련 규정이 GGN의 강한 영향력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지질공원 자격기준에 GGN 가입이 의무화되었다(OG 3. vi). 이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Geoparks activity of the IGGP.

34) <https://www.globalgeoparksnetwork.org/strategic-plan-and-actions>

35) 이는 UNESCO 사무국에서 가용 재원의 한계와 담당 직원의 부족이 원인이다. UGGp가 GGN에 가입시 부담하는 재원의 일부를 유네스코가 받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

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GGN 가입 증서를 UGGp 지정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에서 주의할 사항이다. 2015년 법규 마련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MS간의 논의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 도시지질공원 관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규정에는 세계지질공원이 도시에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명백한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부산이 신청한 세계지질공원은 도심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에서 가입 거부(rejection)가 되었다. 유네스코는 이는 명백한 규정의 미비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규정 개정에는 MS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진전은 없다.

3.1.5 람사르습지

가. 보호지역 개요

1) 람사르 협약

람사르협약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라는 도시에서 체결되었고,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정부 간 협약으로 습지에 관한 국제적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켜 습지의 소실과 훼손을 중지시키고, 현재 남아있는 습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습지를 최대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나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또는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으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다.

람사르협약은 채택 이후 1975년에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2025년 5월 기준 172 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가입하였다. 람사르협약의 사명(Mission) 즉, 협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여로서, 지역 및 국가의 활동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다.

협약운영은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상임위원회(SC, Standing Committee),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 및 사무국(The Secretariat)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1980년 이탈리아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이래 매 3년마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각 당사국 정부 대표가 매 3년마다 모여 이전 3년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받고 다음 3년에 대한 활동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승인하며, 사무국은 스위스 글랑에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본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당사국총회(3년 주기) 회기 간에 협약 및 사무국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상임위원회(SC)에서는 행정, 예산, 사업 및 총회 결정사항의 이행상황 등을 검토·논의하고, 과학기술검토포널(STRP)은 협약의 부속기구로서 당사국총회, 상임위원회, 사무국의 과학·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며 매 3년 단위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STRP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 국제협력 증진, 습지 보전에 대한 의사소통 증진 및 협약 활동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습지의 보전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습지를 등재
- 등록된 습지가 삭제되거나 제한된 경우 습지 자원의 소실에 대하여 보상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선별하는데 람사르 기준을 사용
- 등록된 습지를 설명하기 위해 람사르 데이터시트 또는 분류 체계를 사용
-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 습지의 용도변경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 습지에 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적절한 감독 실시
- 적절한 습지 관리를 통해 물새 개체수를 증가시킴
- 습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지역을 선별할 수 있도록 국가 습지 목록 작성
- 습지 조사, 관리 및 감독 등에 자격이 있는 인력 양성

- 습지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장기적인 국가 정책과 적절한 국제협력을 조율하여 습지의 보전 촉진
- 특히 접경지 습지 및 공유수면, 공유된 생물종에 대하여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
- 개발 원조기관과 함께 습지보전 관련 활동 촉진
- 습지 복원 프로젝트 구축

- 습지 보전에 대한 의사소통 증진
 - 조사 및 자료 교환 장려
 - 당사국총회를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 협약 당사국 확대 노력
- 협약 활동 지원
 -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 파리 의정서(Paris Protocol) 및 레지나 개정안(Regina Amendments)을 채택
 - 협약 예산 및 람사르 소액지원 기금에 재정적 기여

2) 람사르습지 지정

람사르협약은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9가지(<표 3-13>)를 제시하여, 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습지들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13>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김귀곤, 2003)

구분		기준	
그룹 A 대표적/희귀한/유일의 유형을 갖는 습지		1	해당 생물지리지역 내에서 자연 또는 유사 자연습지 유형중 대표적/희귀한/유일의 유형을 갖는 습지
그룹 B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생물종 및 생태공동체 에 근거한 기준	2	감소종, 멸종위기종, 최대멸종위기종 또는 위험생태 서식군을 보유한 습지
		3	해당 생물지리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식물군락 또는 동물종을 보유한 습지
		4	생활사의 중요한 단계에 있거나 악조건 속에 있는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는 습지
		5	20,000개체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물새에 근거한 특정 기준	6	특정 물새 중 혹은 아종의 전 세계 개체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어류에 근거한 특정 기준	7
	8		해당 습지가 어류의 먹이원, 산란장, 어린 물고기가 성장하는 곳 및 회유하는 어류군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
	다른 분류에 근거한 특정 기준	9	조류를 제외한 습지에 의존하는 하나의 생물종 또는 아종의 전세계 개체군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람사르협약이 정한 9가지 지정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습지에 한하여 람사르습지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에 관한 절차는 당사국의 중앙정부인 람사르 협약 담당부처(AA, Administrative Authority)에서 담당하며 람사르습지정보양식(RIS, Ramsar Site Information Sheet)이라 불리는 신청서 양식의 작성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람사르협약에 대한 공식적 담당부처(AA)는 환경부이며, 람사르협약 관련 공식적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RIS는 지정 대상습지의 지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정보와 람사르협약이 제시하는 9가지 지정요건 충족에 대한 근거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람사르협약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된다. 협약 사무국은 각 당사국 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면 RIS의 항목별 작성이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된 양식은 람사르협약 사무국 지역별 선임담당관이 검토하며, 불충분한 내용 또는 작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사무국의 검토와 보완절차를 통해 모든 정보가 적절히 기술되었을 경우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고, 해당 습지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된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람사르습지 정보서비스에 업로드 되어 전 세계에 공개된다. 람사르습지를 지정, 등록한 당사국은 의무적으로 해당 습지에 대한 RIS를 최소 6년에 한 번 업데이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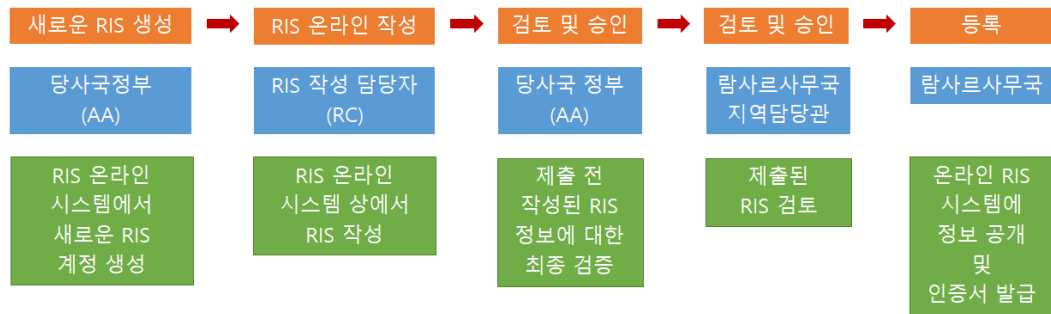
람사르습지의 지정이 타 보호지역의 지정과 다른 점은 지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협약당사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협약 사무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람사르 사무국은 제출된 RIS에 대한 수정, 보완 또는 지정요건 충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는 람사르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와 협약내에서 람사르습지가 갖는 가치와 관련이 있다. 람사르협약은 전세계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지침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지침의 최종 이행자는 협약의 당사국이며, 람사르습지의 지정 및 보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람사르협약 당사국의 의무인 것이다. 람사르 협약은 당사국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문서를 공인된 문서로 인정함으로써 신청과 검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람사르습지 등록 자체가 국내법상 법적 보호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당 국가의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호구역의 지정은 습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사항들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램사르습지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표 3-14>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도 램사르습지가 국내법상 법적보호를 받는 보호지역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램사르습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습지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램사르습지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램사르습지정보양식(RIS)의 작성, 제출, 업데이트는 현재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당사국별로 램사르습지정보양식 작성자(RIS Compiler, RC)를 지정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IS를 제출하는 과정은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그림 3-14>).



<그림 3-14> 램사르습지 등록 절차

<표 3-14> 램사르습지 등록 절차(대한민국 사례)

단계	등록 절차	담당기관
선정단계	① 습지선정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 해양환경공단 / 지자체
	② 등록기준검토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 해양환경공단
	③ RIS 작성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 해양환경공단
계획수립	④ 등록계획수립	환경부 / 해수부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해양환경공단)
의견수렴	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환경부 / 해수부 → 관계 중앙부처
부처협의	⑥ 관계 중앙부처 협의	환경부 / 해수부 → 관계 중앙부처
요청	⑦ 등록요청	환경부 / 해수부 → 협약사무국
통보	⑧ 등록통보	협약사무국 → 환경부 / 해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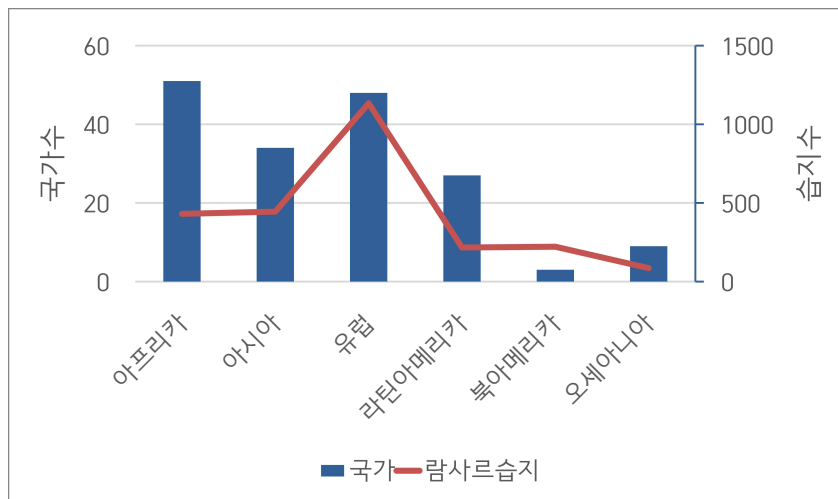
(출처 : 국립생태원(<https://www.nie.re.kr/nie/main/contents.do?menuNo=200291>))

나. 지정 현황 및 동향

협약의 중심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또는 람사르습지목록(Ramsar List)”이 있다. 이는 당사국들이 람사르협약이 제시하는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들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람사르습지목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 네트워크로 2025년 5월 기준 2,538개의 습지가 등록되어 있고, 그 면적은 2,579,790 km²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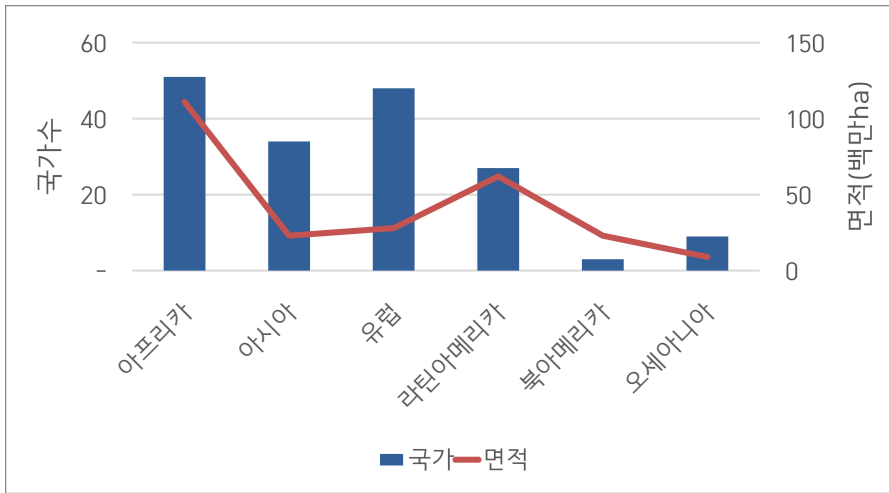
람사르습지 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가 4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가 24%, 유럽이 11%, 아시아 9%, 북아메리카 9%, 오세아니아가 4% 순이다.

지역별 국가수와 람사르습지의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아프리카는 가장 많은 당사국(51개국)을 보유하고 있으나, 람사르습지의 수(431개)는 전체 지역중 2위였고, 유럽은 국가수(48개국)는 아프리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지정된 람사르습지 수(1,134개)는 2위 아시아(445개)에 비해 2.5배 이상 많았다(<그림 3-15>).



<그림 3-15> 지역별 국가수와 람사르습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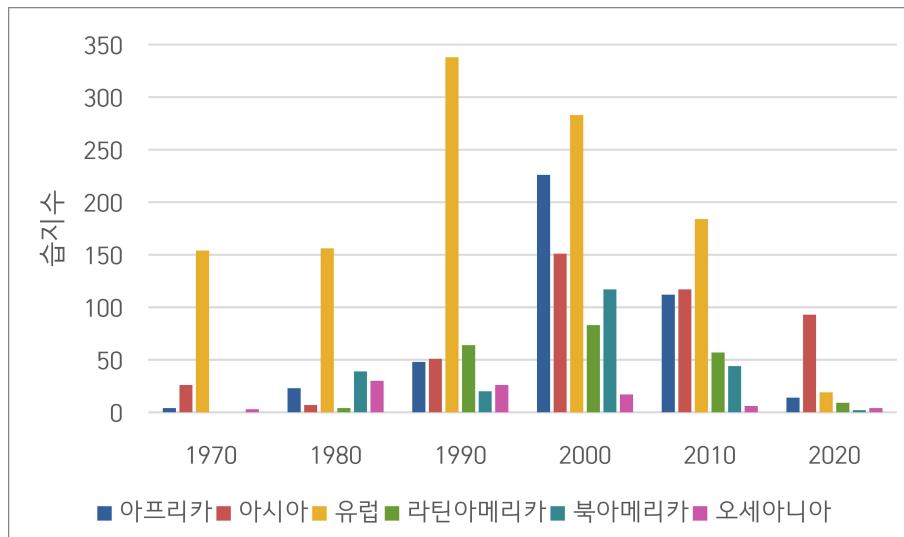
지역별 당사국 수와 습지의 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프리카가 51개 당사국, 1.11억 ha로 가장 많은 당사국과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라틴아메리카가 62백만 ha의 면적으로 아프리카의 절반 정도의 면적을 가졌으나 당사국 수는 전체 6개 지역 중 4번째(27개국)로 당사국 수에 비해 넓은 면적의 람사르습지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에 가입된 당사국 수에 비해 유럽(48개국)과 아시아(34개국)의 면적은 각 28백만 ha, 23백만 ha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그림 3-16>



<그림 3-16> 람사르 습지 국가수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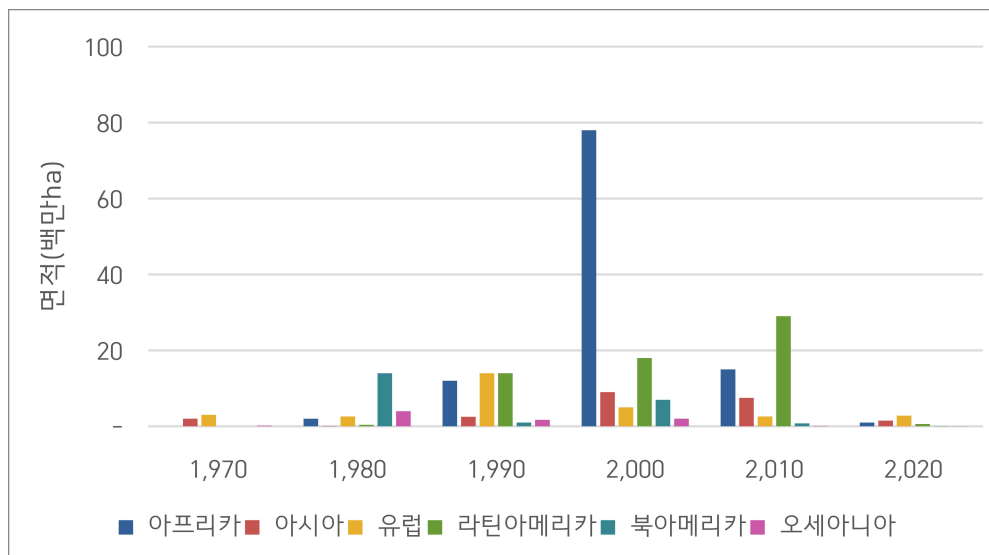
지역별 람사르습지 평균면적은 라틴아메리카(286,977 ha)가 가장 넓었고, 아프리카(253,799 ha), 오세아니아(207,794 ha), 북아메리카(106,726 ha), 아시아(51,748 ha), 유럽(25,115 ha) 순이다. 유럽은 람사르습지 수는 가장 많았으나 평균지정 면적은 가장 작았다.

1970년대 이후 람사르습지 지정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유럽지역이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며 람사르습지 수를 확대 했고, 이후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아시아가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며 람사르습지 수를 늘려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에 가장 높은 정점을 보여주었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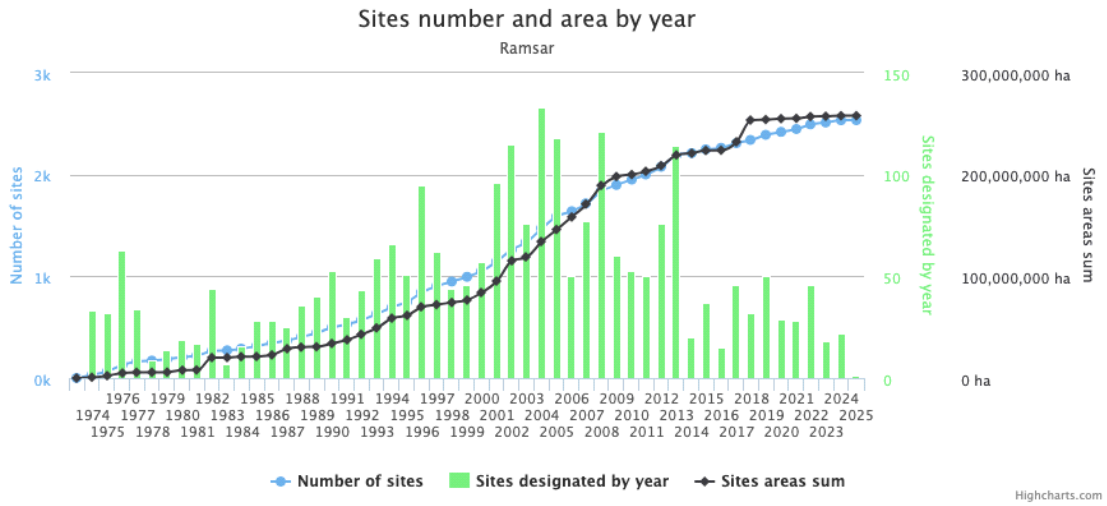
<그림 3-17> 람사르습지 수 변화 추이

람사르습지 지정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서며 북아메리카 지역의 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고루 큰 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프리카 지역이 10년간 현재 총 지정면적인 2.57억 ha의 약 30%에 해당하는 7,800만 ha의 람사르습지를 지정하면서 크게 앞서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지정면적을 크게 늘려왔다. 2020년대 들어서는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규로 지정되는 람사르습지의 면적은 거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그림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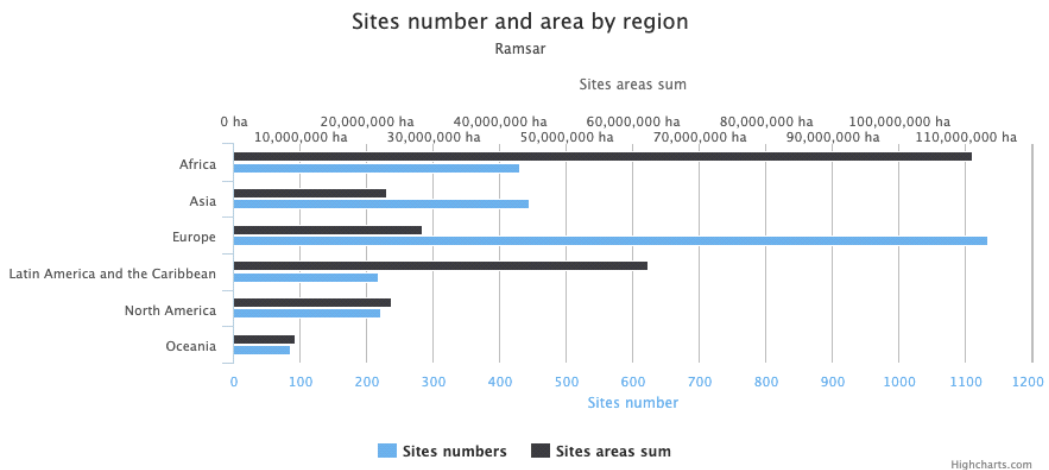


<그림 3-18> 람사르습지 면적 변화 추이

람사르습지의 지정을 1970년대부터 살펴보면 지정 면적이나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큰 성장을 보였으며 이후 증가속도는 다소 줄었지만, 이는 많은 당사국이 주요 습지를 이미 람사르습지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협약에서 국가습지인벤토리 등을 통해 당사국들이 모든 습지를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람사르습지들을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지속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18년 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4개 도시(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았고, 15차 총회를 거치며 74개 습지도시로 증가하였고 이는 이후 람사르협약이 확대되고 성장하는데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다.<그림 3-19>, <그림 3-20>



<그림 3-19> 람사르습지 개소 수 및 면적



<그림 3-20> 지역별 람사르습지 개소 수 및 면적

다. 주요 전략 및 현안

1) 람사르 사무국 (담당 부서) 자체 글로벌 전략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향후 9년간(2016-2024)의 협약활동의 기반이 될 '제4차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16-2024'과 CEPA(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 참여 및 인식) 프로그램 및 습지도시인증제를 채택하였다.

람사르협약 제4차 전략계획 2016-2024는 4대 목표 아래 1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3-15> 참조). 동 계획 실행을 위한 국가별 역량과 자원에 따른

<표 3-15> 람사르협약 4차 전략계획(2016-2024)

전략목표	세부목표
습지의 손실 및 훼손요인 해결	1. 습지의 혜택은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수자원, 에너지, 광업, 농업, 관광업, 도시개발, 사회기반시설, 산업, 임업, 수산양식, 어업과 같은 주요부문에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정책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2. 유역 수준 또는 연안지역을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적절한 규모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습지생태계 needs를 고려하여 수자원 이용
	3.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수자원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침 및 우수사례 적용 노력 강화
	4. 침입외래종과 도입 및 확장 경로를 파악·우선순위를 설정, 우선순위 침입외래종 통제 또는 제거, 그리고 외래종의 도입 및 정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응 마련 및 이행
람사르습지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	5. 효과적인 계획과 통합 관리로 람사르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유지 또는 복원
	6. 람사르 사이트 네트워크 특히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태지역 및 접경지를 포함하여 특정 유형 습지의 면적, 수 및 생태학적 연결성에서의 현저한 증가
	7. 생태학적 특징의 변화 위기에 처한 습지의 위협요인 해소
모든 습지의 현명한 이용	8. 물, 에너지, 광업, 농업, 관광, 도시 개발, 기반 시설, 산업, 임업, 수산 양식 및 수산업과 같은 주요 부문의 지속 가능성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인간 생계에 기여하는 습지대에 영향을 줄 때.8. 국가 습지 목록은 모든 습지의 보전과 효과적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완료 또는 업데이트·보급·사용
	9. 강 유역 또는 해안 지역을 따른 적절한 규모의 통합된 자원 관리를 통하여 현명한 습지 이용
	10.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습지자원의 관례적 사용과 관련된 토착민 및 지역 사회의 전통적 지식, 혁신 및 관행은 문서화하고 존중하며, 국내법 및 관련 국제 의무의 대상이 되며 모든 관련 수준에서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로 협약의 이행에 통합하여 반영
	11. 습지의 기능, 서비스 및 혜택을 널리 입증, 문서화 및 보급
	12. 생물다양성 보전, 재난 위험 감소, 생계 그리고 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적용 하여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진행
	13. 생물다양성 보전과 인간 생계에 기여하는 습지에 영향을 줄 때 물, 에너지, 광업, 농업, 관광, 도시개발, 기반시설, 산업, 임업, 수산양식 및 어업과 같은 주요부문의 지속가능성 향상
	이행강화
15. 각 지역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으로 람사르지역 이니셔티브를 협약의 완전 이행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강화하고 발전시킴	
16. 커뮤니케이션, 역량개발, 교육, 참여 및 인식을 통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 주류화	
17. 모든 출처에서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 2016-2024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이용하도록 함	
18. 모든 수준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19. 협약 및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 2016-2024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강화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전략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확보와 더불어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수준에서 란사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기술패널(STRP,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 국제기구파트너(IOPs,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 란사르지역 이니셔티브와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립생태원, 2025).

습지의 보전과 관리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지지와 조화로운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란사르협약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교육(Education), 참여(Participation), 인식증진(Awareness)과 같은 요소들을 묶어 CEPA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CEPA 활동은 란사르습지의 지정과 관리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습지도시인증제'는 습지와 도시 간의 통합 계획 및 관리로 '란사르습지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도시와 근교지역이 란사르 사이트 및 주요 습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발적인 인증시스템이다. 란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제 이행을 위한 사무국, 상임위원회, 그리고 결의안 발의 국가인 한국과 튀니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2018년 제13차 당사국총회 주요주제로 '습지와 도시'가 선정됨에 따라 '란사르습지도시인증제' 발의국가로 관련 논의에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국내 통합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2) 란사르습지 (담당 부서) 자체 주요 현안

- 습지보호지역 및 란사르습지 지정 확대
- 란사르습지 정보양식(Ramsar Site Information Sheet, RIS) 업데이트
- 국가습지인벤토리
- 란사르습지도시

3) 란사르습지 관련 기구/단체의 글로벌 전략

- 란사르협약 국제기구파트너(Ramsar IOPs)인 IUCN, Wetlands International, BirdLife International, WWF, IWMI, WWT는 란사르협약의 전략계획 이행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3.1.6 MIDAs

가. 현황

IDA는 개별 정보에 대하여는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었으나, MIDAs에 대하여는 이들에 대한 구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전산자료가 정리되지는 않았다 (<표 3-16>).

<표 3-16> IDA 현황 및 전자 정보 형태

구분	DB	개소 수	형식	경위도	Shape file	비고
RS	(1)	2,525	Excel	○	○	RSIS : xls format 선택 출력 가능 (WH, BR, UGGp 선택 추출 가능).
WH	(2)	1,199	Excel	○	○	UNESCO WHS Portal, biodiversity Portal
BR	(3)	759	Excel	○	○	UNESCO biodiversity Portal
UGGp	(4)	228	Excel	○	○	UNESCO Sites Navigator (지질공원 정보 수록) UNESCO biodiversity Portal
MIDAs	(5)	397 (2016) 406 (2024)	Excel	○	×	MIDAs(2016)
<p>출처:</p> <p>(1) https://rsis.ramsar.org/ris-search/Reserva%20Particular%20del%20Patrimonio%20Natural</p> <p>(2) https://biodiversity.unesco.org/portal/sites, https://whc.unesco.org/en/interactive-map/</p> <p>(3) https://biodiversity.unesco.org/portal/sites</p> <p>(4)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03c06a0aafba4971a666930b6f8e765a?draft=true#zoom_to_selection=true. https://biodiversity.unesco.org/portal/sites</p> <p>(5) IUCN(Schaaf and Rodrigues), 2016.</p>						

나. 2016년까지 MIDAs 현황

2016년 기준 MIDAs 현황은 <표 3-17>와 같다(IUC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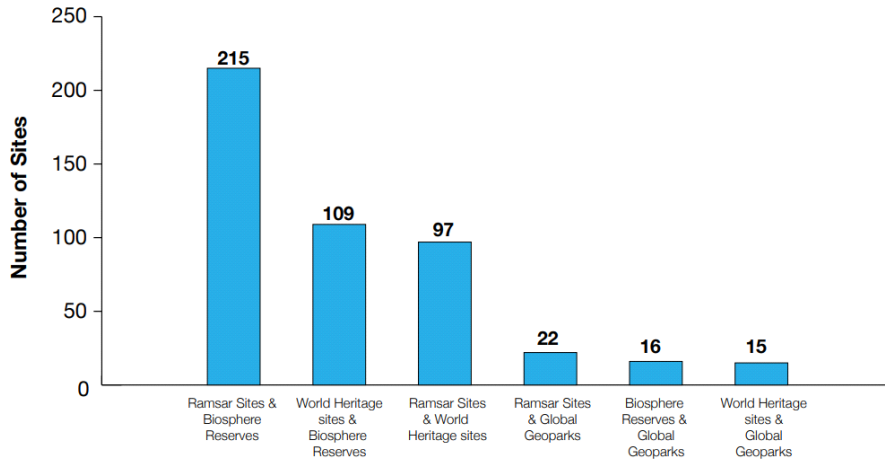
<표 3-17> IDA 별 MIDAs 숫자 현황

유형	IDAs 개소 수	MIDAs 개소 수	IDA 중 MIDAs 비율(%)
람사르습지	2,218	195	8.8
세계유산(자연, 복합, 문화 경관)	324	134	41.4
세계자연유산만 있는 경우	197	109	55.3
생물권보전지역	651	224	34.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120	23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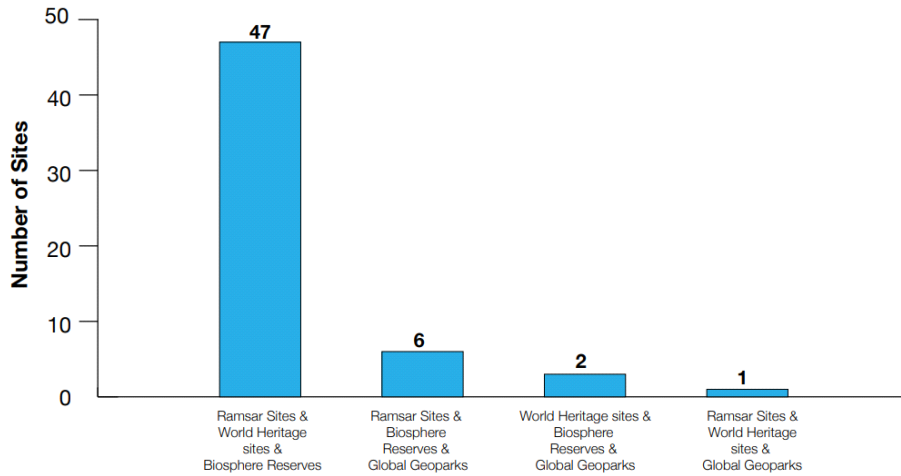
<그림 3-21>은 2개의 IDA가 중복된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차트의 각 그래프에는 이중 지정 유형별 국제보호지역의 최대치를 표시하였다.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람사르습지 215개의 전체 혹은 일부가 총 169개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총 109개의 생물권보전지역 중에서 세계유산 목록과 중첩되는 경우는 100개에 달한다.

그리고 람사르습지 97개가 세계유산지역 70개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또한 람사르습지 중 22개는 총 5개에 달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일부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16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14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15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총 13개의 세계유산지역과 중첩된다.

한편, 3개의 IDA가 중복 지정된 현황은 <그림 3-22>와 같이 총 56개소이다. 문화적경관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간주되지만, 세계유산 문화적경관과 IUCN의 보호지역 범주 시스템이 의미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 문화적경관 개수를 세계유산 총계에 합산하였다. 사실 세계유산 문화적경관 중 3분의 2 정도가 IUCN 보호지역 한두 곳과 공간상으로 일치하므로 양자 간에는 공간적 중첩이 존재한다(IUCN, 2016).



<그림 3-21> 2개의 국제보호지역이 중복된 숫자 현황



<그림 3-22> 3개의 국제보호지역이 중복된 숫자 현황

다. MIDAs 구분 기준

MIDAs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은 그 기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분 기준별 장단점은 <표 3-18>와 같다.

특히 어느 하나의 IDA가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더 작은 IDA 기준으로는 중복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 예로, 브라질의 Mata Atlantica 생물권보전지역은 총면적이 88,000 km²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은 지역이다. 이 BR에는 UGGp, WH, RS가 다수 포함되고, 또 행정구역도 다양하다. 따라서 단일 BR로 보면 그안에 다른 IDAs가 있지만, 각 지역 별로 보면 각 대상 지역 별로 같은 명칭의 BR이 별도로 중복된 곳으로 산정된다(<표 3-19>).

<표 3-18> MIDAs 구분 기준별 장단점

구분 기준	장점	단점	비고
행정 구역	가장 단순하고 명확함	행정 단위에 따라 그 대상 범위가 달라짐. 제주도는 도 단위이나, 고창과 부안은 기초 지자체단위임	국외의 경우 더욱 복잡한 행정체계가 있음 같은 행정 구역이라도 지정 범위가 다른 경우 중복으로 보지 않음 (예 포천의 광릉숲은 BR이지만 UGGp 영역에 미포함) 그러나 포천은 한탄강 UGGp로 연천이나 철원의 BR에 해당함
IDA 지정 지역 (공간 중심)	개별 IDA 마다 중복 여부를 구분하므로 아주 명확함	중복으로 인하여 과다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	람사르습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있어도 더 큰 범위가 지질공원이나 생물권보전역이라면 개수가 많은 것으로 산정됨 가장 큰 지정지역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단순해 짐
관리 기구 등	신청 주체나 관리기구를 중심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기준으로 목록화 가능	IDA마다 신청 주체나 관리기구가 다르므로 혼선 우려	세계유산과 BR은 국가가 신청 주체이고 UGGp는 해당 관리기구가 신청 주체. 신청 주체는 해당 공간에 위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3-19> 브라질 마타 아틀란티타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다른 IDAs 현황

WH	BR	UGGp	RS
12개소	1개소	3개소	10개소

3.2 IDA/MIDAs 관련 사례 분석

3.2.1 세계자연유산 관리 사례

가. 우수사례

① IDA 명칭 : 와덴해(Wadden Sea)

와덴해는 북해(North Sea)의 연안 지역인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11,456.1 km²이며 지형지질학적 가치, 생태생물학적 가치, 생물다양성의 가치 기준인 등재 기준에 부합되어 2009년 네덜란드와 독일의 와덴해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4년 덴마크 지역까지 확대등재되었다.

와덴해(바덴해)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훼손되지 않은 조간대 모래 및 갯벌이다. 와덴해는 네덜란드의 '와덴해 보호 구역(Dutch Wadden Sea Conservation Area)'과 독일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 각각의 '와덴해 국립공원(Wadden Sea National Park)', 그리고 덴마크의 '와덴해 해양보전지역'의 대부분으로 구성된다. 와덴해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함에 따라 형성된 지역으로, 온난하고 비교적 평평한 연안 습지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이러한 자연 요인 덕분에 조류로(tidal channel), 모래톱, 해초 군락, 홍합 밭(mussel beds), 사주(砂洲), 니질조간대(mudflat), 염습지(鹽濕地, salt marshes), 염하구(鹽河口, estuary), 해변과 해안사구와 같은 풍부한 전이 서식지(transitional habitat)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잔점박이물범(harbour seal), 회색물범(grey seal), 쇠돌고래(harbour porpoise)와 같은 해양 포유류를 포함하여 수많은 동식물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와덴해는 대규모 조간대 생태계 중의 하나로, 이곳에서는 자연적인 과정이 거의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철새들이 찾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한 곳으로 여겨지며, 철새들이 이동하는 다른 주요 지점의 연결망과 이어진다. 와덴해의 중요성은 동대서양 이동 경로(East Atlantic Flyway)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유라시아(African-Eurasian) 대륙을 이동하는 물새들의 보호에 매우 중요할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와덴해에서는 최대 6,100,000마리의 새가 동시에 머물 수 있고, 매년 평균 10,000,000~12,000,000만마리의 철새가 이곳을 거쳐 간다고 한다(<https://heritage.unesco.or.kr>, 2025).

와덴해는 약 14,700 km²의 와덴해 3국 협력지역을 설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

고 있다. 이러한 협력 지역 중, 11,200 km²는 유럽연합법률(조류법, 서식지법, 물 체계법, 해양전략체계법)과 국제협약(세계유산협약, 람사르협약) 등에 의해 법적 보호지역(국립공원지역 등), 세계유산지역, 특별민감해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와덴해 3국은 보전정책을 상호 협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정책은 크게 와덴해 관리 원칙, 와덴해 계획, 3국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은 와덴해 보호 및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와덴해 생태계의 연구역사는 모니터링, 정책 등을 근간으로 100년 이상 계속되었고 수많은 책으로 발간되었다. 3국 공동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니터링의 목적은 와덴해 생태계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와덴해 관리 계획에서 설정한 생태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다. 모니터링의 핵심은 모니터링 항목의 선정, 항목별 모니터링 수행 방법론 개발 및 정착, 모니터링 수행, 모니터링 후의 생태계 현황 평가, 정책 제안서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일련의 작업은 <그림 3-23>의 모니터링 조직에서 이행하고 그 결과를 3년마다 개최하는 와덴해 3국 심포지엄에서 정책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모니터링 항목은 해수 및 퇴적물, 염습지, 사구, 갯벌해역, 외해역, 어류, 철새, 포유동물 등이며, 부문별로 자세한 조사항목 및 조사 시기, 장소 등이 정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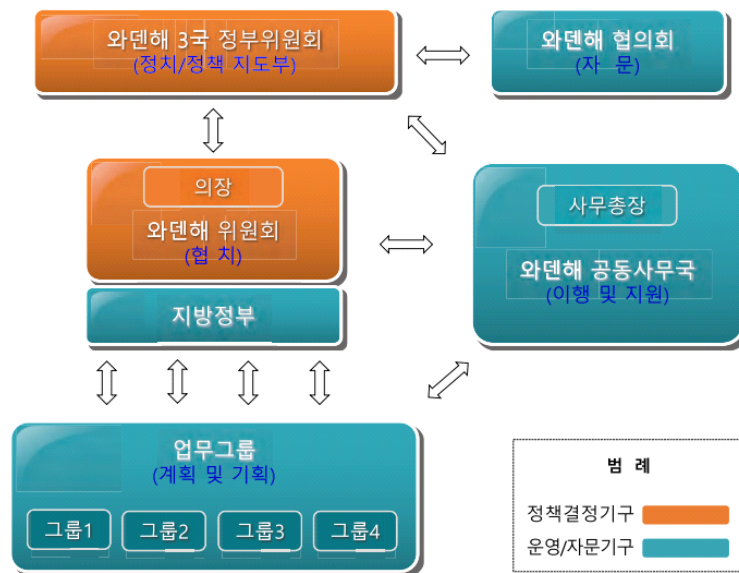
2010년 덴마크 질트에서 개최된 정부 간 회의는 와덴해 3국 협력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전문가그룹과 의사결정 기구 간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협치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새로운 유럽연합법률과 국제협약, 생태계 기반 접근법의 발달, 이해 당사자의 중요성 제고 등으로 기존의 협치 구조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좋은 협치의 원칙을 기초로 의사결정 구조를 와덴해 3국 정부위원회, 와덴해 위원회, 와덴해 공동사무국으로 하고, 와덴해 협의회와 업무그룹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결국 와덴해 3국의 보전정책은 와덴해 전체를 하나의 생태 단위로 보전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 권고, 정책 수립, 이행의 단계를 거치며 이를 다시 모니터링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며, 생물종 및 서식지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문화와의 조화 및 인간 이용과의 조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광, 휴양, 교육 등 자연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을 영유함과 동시에 방문지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와덴해 전체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 체계 구성이 필수적이

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1978년부터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덴마크는 생태적 관점에서 와덴해 보호 및 보전을 위해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1982년 와덴해 3국은 와덴해의 보호와 관련된 각국의 활동, 연구, 조사, 논의를 중심으로 와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2010년 개정)을 채택하였고, 이후 1987년 와덴해 공동사무국을 개소하였다. 공동사무국은 전체 와덴해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력체의 활동을 지원·촉진·통합하는 역할을 실시하고 있으며, 와덴해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근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유는 공동사무국이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시키는 실행 기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공동사무국은 와덴해 3국간 협의체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최대한 환경 교란 없이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의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와덴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이해 당사자 간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찾고자 농업, 에너지, 수산, 공업, 항만, 자연 보호, 관광, 휴양 부분과 지방 및 지역 정부, 3국 협력 대표가 참여하는 와덴해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로의 전달을 위해 와덴해 3국 협력 25주년인 2003년 국제와덴해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 2019)



<그림 3-23> 와덴해 3국 협력체의 정책 결정 조직도

3.2.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사례

가. 우수사례

① IDA 명칭 : 독일 쇼프하이데-코린(의사결정 교육 우수 사례)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쇼프하이데-코린(Schorfheide-Chorin) 생물권보전지역의 “숲과 나” 역할 게임을 통한 의사결정 교육 사례는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보전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보전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갈등 상황이 자주 생긴다는 것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먼저 며칠 동안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계기, 숲의 여러 가지 유형, 각각의 생물다양성과 기능 등이 포함된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어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모의 지방의회 회의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일자리와 관광객 유치) 때문에 숲이 파괴될 경우를 주제로 그룹 의사결정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경우, 네 그룹은 각각 투자자, 건설업자, 임야 소유주, 환경보전그룹 대표(또는 하이킹, 승마 클럽 같은 지역 자연 보호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각 그룹 내에서 준비하는 입장에 따른 내용뿐만 아니라 상반된 관점을 대변하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며 타협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결정’과 민주적이고 폭력 없는 갈등 해결 능력과 참여의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② IDA 명칭 : 오스트리아 그로세스 발저탈(지역경제 관련 사례)

오스트리아 서쪽에 있는 그로세스 발저탈(Großes Walsertal)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지역 학생공모를 통해 로고(<그림 3-24>)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공모 과정에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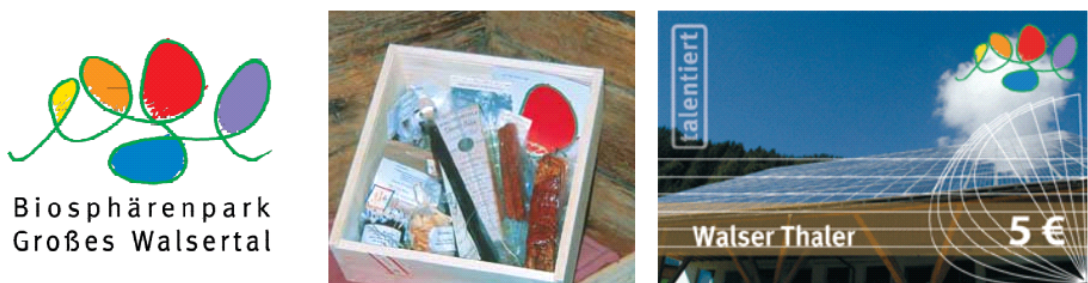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공원은 낙농인, 치즈 생산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저스톨츠(Walserstolz)’ 라는 산악 치즈 상표를 개발하여 생물권보전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치즈임을 알리기 위해 치즈에 로고를 부착하여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친생태적인 방식으로 수확하고, 지역 내에서 가공한 목재에 대해서는 ‘베르그홀스(Berghols)’란 상표를 개발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내 친환경적인 목재 상품의 개발과 로고 인증으로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수종 산림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보전지역 제품으로 채워진 마케팅 제품(<그림 3-24>)은 다양한 크기별로 주문 예약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역 농산물의 더 나은 마케팅에 일조하고 있다.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공원은 생물권보전지역 라벨 인증을 받고 싶은 기업의 경우, 단순히 개별 상품을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6년 농업, 낙농, 관광, 산림 등 사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그로세스 발저탈 비즈니스협회’는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공원의 비전에 따른 ‘발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협회 회원의 공동 마케팅, 마케팅 형성과 운영, 관련 정보 교류, 일자리 보장, 직업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 후보지에 복수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행정구역이 포함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기타 협의체인 경우에는 기초·광역 지자체 또는 기타 협의체 구성기관 간 관리체계 및 협력 방안(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등)을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시부터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협력방안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이 특정 지자체의 또 다른 이름의 보전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그림 3-24> 생물권보존지역 로고(좌), 마케팅제품(중), 지역상품권(우)

3.2.3 세계지질공원 관리 사례

가. 우수사례

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회 보고서(UGGp Council Report)

세계지질공원은 처음 가입 시 심사와 4년 후 재검증이 진행된다. 심사는 자체 평가표에 대하여 심사자의 확인 및 수정이 진행된다. 전체적인 운영 상태는 총 점으로 평가하며, 이는 유네스코 심사자 보고서에 수록된다. 재검증 요건을 충족하면 4년 유효기간의 재검증 인정서(녹색카드)를 부여 받는다. 관리나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는 경고(황색카드)를 받으며, 2년 이내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유네스코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우수사례나 미흡사례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2) GGN Best Practice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망(Global Geoparks Networks)에서는 현장 평가자가 심사 후 best practice 추천서를 GGN 사무국에 송부한다.³⁶⁾ 이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주요 수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³⁷⁾

① 2016년 제1회 GGN 최우수 실무상

<1등상>: 스페인 란사로테 치니호 군도(Lanzarote y Archipiélago Chinijo) UGGp
-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분야, 특히 '예술, 문화, 관광 센터 네트워크(network of Centers of Art, Culture and Tourism)'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등상>: 중국 팡산(Fangshan) UGGp

- 현대적이고 인터랙티브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해석하고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개선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팡산 세계지질공원의 신축 박물관과 바이리센 협곡이라는 두 개의 독특한 시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② 2018년 최우수 실무상

<1등상> 이탈리아 아다멜로 브렌타(Adamello Brenta) UGGp

36) <https://www.globalgeoparksnetwork.org/news/ggn-geopark-best-practice-awards-2016>

37)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재개함.
<https://www.globalgeoparksnetwork.org/activities/best-practice-awards>.

- 아다멜로-브렌타 UGGp는 교육과 학교 공동 협동 프로그램으로 수상했다. 지질공원은 해당 지역의 모든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해당 지역 외부의 일부 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 10,0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아다멜로-브렌타 UGGp는 지역 초등학교와 함께 진정성 있고, 독창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인 장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공원 지역에서 자라는 모든 어린이는 지질학적 기초, 야생동물, 자연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성 원칙에 대한 지질공원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지질공원 지역 어린이들에게는 검증된 지질공원 워크시트 모음이 담긴 종합 학습 폴더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제공되며, 교사들은 지질공원 직원들로부터 시스템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야외 활동과 어린이들의 발표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더 돋보이게 한다.

<2등상>: 중국 지공(Zigong), 스페인 라스 로라스(Las Loras) UGGp

- 지공 UGGp는 지오투어리즘 분야의 지오 파트너, 특히 시순 계곡(Shisun valley) 생태녹차 생산지이다. 시순 계곡이 지공 지질공원에 편입된 이후, 지질공원 관리 기관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녹차를 홍보하기 위해 현지 기업인 "GREEN·TEA·SPRING"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오투어리즘 및 생태관광은 지공 방문객에게 지역 지질과 전통 차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관광 서비스의 질, 지질공원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지질공원과 현지 가이드 간의 긴밀한 유대감은 매우 우수하다. 지오관광과 농촌 관광의 통합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질공원 내 다른 농촌 지역이 따라야 할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라스 로라스 UGGp는 지오 파트너, 특히 지역 화석 모양의 빵을 판매하는 지오 베이커리(Geo-bakery)가 우수하다. 이를 통해 지질유산과 지역 생산품 사이에 특별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준다. 지질공원은 지오베이커리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오베이커리는 암모나이트를 닮은 빵집뿐만 아니라 화석과 화석 나무 조각도 전시하고 있다. 빵집 벽에는 지역 지질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오베이커리는 작지만 매우 풍부한 민속학 박물관을 운영 중이며, 이 박물관에는 수많은 진품의 지역 유물과 고생물학 표본이 소장되어 있다. 제빵사는 뛰어난 지질유산 해설가이자 스토리텔러이며, 바스콘시요스 델 토소(Basconillos del Tozo) 지역의 지오가이드 역할도 수행한다. 제빵사는 높은 수준의 고생물학 지식이 있으며, 지질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지질공원 홍보대사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등상>: 스페인 시에라 노르테 드 세비야(Sierra Norte de Sevilla) UGGp

- 시에라 노르테 데 세비야 UGGp는 지역사회와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지오관광에 젊은 지역 가이드의 참여를 장려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신선한 지질공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질공원 지질공원 관리와 지역사회 간 협력의 좋은 사례이며, 특히 해당 지역의 생물유산과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동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질공원과 지역관광 가이드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인상적이며, 지질공원과 협력하는 여러 기업이 지질공원 지역 내에서 지질 및 광산 유산, 그리고 자연환경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 투어를 진행한다. 또한, 방문객에게 친화적인 방식의 과학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모범 사례이다. 지질공원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특히 환경부와 공간계획부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자연과 당신"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의 학생들을 자연환경으로 초대하여 지질공원의 또 다른 모범 사례로서 그들의 유산에 대한 지식과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나. 미흡 사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미흡 사례는 그동안 황색카드나 적색카드를 받은 곳이 해당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나,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보고서에서 경고를 받는 이유를 명시한다.

최근 3년 동안 황색카드는 그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표 3-20>), 이는 세계지질공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는 경향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표 3-20> 최근 3년간 재검증에 대한 심사 결과

연도	녹색카드	황색카드	적색카드
2024	33	6 (15.4%)	-
2023	48	8 (14.3%)	-
2022	39	4 (9.3%)	-

출처 : 유네스코(2022; 2023; 2024)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보고서.

재인증은 세계지질공원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이미 인증받은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공원이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를 4년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인증 1년 전 1쪽의 요약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재인증을 받게 되는 이듬해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관리 주체는 경과 보고서를 만들어 현장평가 3개월 전(보통 해당연도 2월 경)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통해 사무국에 제출한다. 의장단은 현장평가자 2명을 현장실사에 배정하게 되고, 이후 절차는 신규 신청과 같다.

재인증에 관한 결정은 녹색카드(Green Card), 황색카드(Yellow Card), 적색카드(Red Card)로 나뉘어 있다. 녹색카드를 받으면 재인증에 성공하여 또 다시 4년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다. 황색카드를 받게 되면 2년간 적절한 조치를 취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장평가 3개월 전 경과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황색카드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서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사회는 해당 지역이 가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만약 재인증 과정을 수행할 수 없거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가 취소될 수 있다.

이미 인증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중 그 경계를 변경하여 면적을 확장하려면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그 영역의 확장이 10% 미만이라면 해당 사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와 사무국에 알리면 된다. 이때 변경 사유, 변경 사항이 포함된 지도, 새로이 확장된 영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기준에 여전히 부합됨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사무국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이사회는 10% 미만의 영역 확장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과 재인증을 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시 승인과 반례로 변경안을 의결한다.

만약 면적의 확장이 10% 이상이라면, 신규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 신규 신청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공원이 국경선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모든 영역의 확장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회원국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부 간 검토를 받아야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재인증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 유형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A 세계지질공원

A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도 지정되었고, 2022년도 재검증 심사에서 황색카드를 부여받았다. 심사자는 현장 심사에서 미흡한 것이 너무 많아서 심사보고서에서 적색카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규정에서 적색카드를 바로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서 세계지질공원 이사회는 황색카드를 부여하였다.³⁸⁾ A 지질공원에 대하여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지질공원 파트너가 지질물질을 판매(자격 기준 위배)
- 영역의 10% 이상을 변경하였음에도 UGGpC(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었음
- OUV급 화석의 도난 위험에 있음

② B 지질공원

2020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은 B 지질공원은 재검증 과정에서 다음의 사유로 황색카드를 부여받았다.

- 현장 실사에서 유네스코 현장 실사 대응에 대한 준비 부족(현장 안내인의 훈련 부족, 증빙자료의 미흡, 설명 미흡 등)
- 현장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 부족으로 자료의 준비가 미흡
- 지질공원의 관리기구가 지질공원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3.2.4 람사르습지 관리 사례

가. 우수사례

① IDA 명칭 : 홍콩 마이포

습지관련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있겠지만 관리적 측면을 보자면 WWF 홍콩에서 위탁 관리하는 홍콩 마이포 습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이다. 마이포 습지는 중국 홍콩 특별자치구에 위치한 면적 1,500 ha의 람사르습지다. 1995년 람사르 습지 지정 이후, 홍콩 정부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2011년에 개정되었다. 관리 계획은 람사르습지의 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습지를 여러 관리구역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관리구역은 개별 관리 목표와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핵심지역(Core Zone)은 자연적 상호 작용 및 과정들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핵심적 관리, 모니터링, 연구 목적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한다. 현명한 이용 지역(Wise-use Zone)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양어장의 유지와 운영을 독려하며, 람사르습지 핵심지역의 외부 지역으로 완충 지역 역할을 한다. 생물 다양성 관리지역(Biodiversity Management Zone)은 물새들의 쉼터를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교육 활동에 활용한다. 민간지역(Private Zone)은 개인 사유

38) UNESCO Council Report 7th. 2022.

지로 인정되며, 관리지역에 인접한 개인 사유지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과 협력하고 있다.

마이포 람사르습지 주변은 습지 보전 지역이 둘러싸고 있다. 습지 보전 지역은 마이포 람사르습지의 육상부에 있는 운영 중이거나 버려진 양식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마이포습지 생태계의 일부분인 양식장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습지 보전 지역의 육상부 방향으로 500 미터를 습지 완충 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가 양식장의 생태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② 성공 요인

• 전문기관 위탁관리

WWF 홍콩이라는 자연환경보전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1983년부터 지금까지 마이포 습지를 장기간 위탁관리하면서 습지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부터 습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관리 기술들을 하나 하나 현장에서 테스트하며 마이포 습지와 가장 적합한 관리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이론적·경험적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고, 변화하는 환경에도 습지의 건강성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

• 이상적인 습지관리 체계

마이포 습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WWF 홍콩이 쌓아온 내부적 전문성으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으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습지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계획에 따른 습지 관리자들의 습지 관리 이행,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변화에 대한 기록 및 관리 계획 업데이트, 관리 계획 이행 완료 후, 이행 과정 중 발생한 변화와 이에 대한 조치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관리계획 수립 등 순환적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연구 및 테스트 사이트

마이포 습지 외각의 “게이웨이”라는 전통적 새우 양식장을 마이포를 찾는 철새들의 먹이공간, 쉼터로 활용하는 동시에 일부를 마이포 습지와 같은 서식환경가진 연구 및 테스트 사이트로 활용하여, 습지의 모양, 수위, 염도 등 다양한 조건들을 연구하여 종별 철새 서식에 최적의 서식조건을 찾아 마이포 핵심 습지의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나. 미흡사례

① IDA 명칭 : A 습지(관리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 사유로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A 습지관리를 미흡사례로 들 수 있다)

② 미흡요인

- 행정체계의 일부분으로의 관리로 전문성 부족

앞서 마이포 습지 사례에서 장점으로 언급했던 습지 관리자리의 전문성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습지 관리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소이다. A 습지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습지 관리자를 두지 않고, 행정직 등 비전문가가 습지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전문가가 습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습지 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정기적 인사 이동으로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한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마이포와 사례처럼 전문성을 가진 주체가 습지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물론 습지 관리에 관한 감독 및 권한은 행정기관에 남겨, 관리 활동을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 관리활동의 연속성, 연계 부족

모든 관리행위는 매뉴얼화 되어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성과의 평가는 습지의 건강성이 유지되고 있다거나 증진되었다가 아닌 습지 관리 행위로서 정기적 모니터링 수행, 습지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상 계획에 포함된 활동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각 단계별 활동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보완은 미흡하다.

또한 습지관리는 일련의 이어진 관리활동들이 논리적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인데 단계별 이행이 별개의 활동들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모니터링을 통한 현재 상태 또는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의 이행을 통해 습지의 건강성이 개선되는 과정이 습지관리인데, 모니터링과 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계획의 이행이 모두 다른 주체들에 의해 개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3.2.5 MIDAs 관리 사례

가. 제주도

2016년에 IUCN에서 발간된 *Managing MIDAs: Harmonizing the management MIDAs-Ramsar sites,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 and UNESCO Global Geoparks*(Schaaf and Rodrigues, 2016)에는 관리 상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일부 다룬 바 있다.

제주도는 2016년 발간 당시 MIDAs에 대한 개념 제안, 통합관리 필요성 강조 등을 제기하고, WH, BR, UGGp를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제주도에서는 다중 지정이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성 간의 중요한 연결성에 대한 지역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Price, 2017).

나. 중국 황산

황산은 중국 안후이성 황산시에 위치하고 있다. 독특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1990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유하고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199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화강암 지형과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인정받아 2004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 황산 대화(www.unesco-hist.org/index.php?r=en/article/info&id=1730)

중국 황산은 국제보호지역에 대하여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 2023년에는 제4차 황산대화가 개최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공식 명칭은 유네스코 지정지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황산대화(Huangshan Dialogue on UNESCO-designated Sit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유네스코 C2C인 HIST(International Centre on Space Technologies for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에서 주최한다.

- MIDAs 통합관리 실증 연구 및 적용

황산에서는 통합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MIDAs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IUCN green list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³⁹⁾ 황산의 관리 조직인 황산풍경구관리위원회(HSAC)는 2011년 IUCN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 황산은 IUCN 보호지역 그린 리스트 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 처음 재인증을 통과했다.

황산의 실제 상황과 결합한 탐색을 거쳐 HSAC는 IUCN 그린 리스트 표준을 유네스코 다중 지정 통합 관리 계획 설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IUCN 그린 리스트 표준은 통합 관리 계획 설계를 안내하는 최고의 도구로 보았으며, 이 표준은 우수한 거버넌스, 상세한 설계 및 계획, 효과적인 관리, 성공적인 보전 결과라는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지표틀 포함하는 17가지 기준이 있다. 이 논리에 따라 시너지 이론과 결합하여 황산은 종합 계획, 관리 메커니즘 설계, 과학 연구 및 위험 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통신 플랫폼,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평가 메커니즘을 포함한 유네스코 다중 지정 통합 관리 계획을 설계했다.

다. 중국 호북성 선농자

중국 선농자(神農架, Shennongjia)는 후베이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생물권 보전 지역이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1990년, 세계지질공원은 2015년에 지정되었으며, 세계유산은 중국에서는 50번째로 2016년7월에 등재되었다. 선농자 지역은 MIDAs에 대하여 유네스코 3관왕(UNESCO Triple Crown)이라는 명칭으로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호북성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https://en.hubei.gov.cn/indepth/article_18).

3.2.6 국내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사례

국내에 위치한 유네스코 C2C는 GCIDA 포함 7개소이다(3.5.1 참조). 이 중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및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의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확보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의 중장기 경영목표 보고서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39)

<https://iucn.org/news/protected-areas/202201/using-iucn-green-list-standard-integrated-management-unesco-multi-designation-areas-lessons-huangshan-china>

가.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1) 개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는 전 세계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C2C이다(kr.unesco-whipic.org, 2025). WHIPIC은 세계유산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관리,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세계유산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2020년에 수립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2)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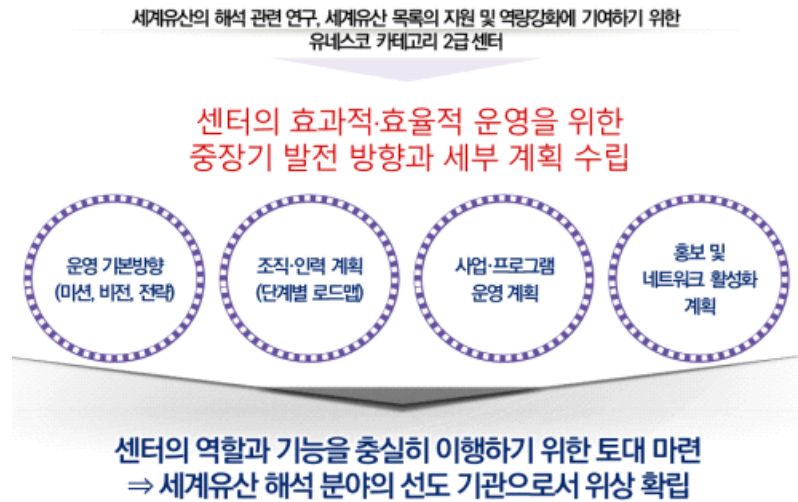
WHIPIC의 주요 전략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포용적 유산 해석 연구
 - 국제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세계유산 해석 국제정책 수립 및 실행지원
- ② 더 나은 유산 이해를 위한 역량 강화
 - 세계유산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 전문가 및 대중 인식 제고
- ③ 소통하고 공유하는 세계유산
 - 세계유산 해석 정보관리체계 운영
 -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활용 콘텐츠 개발
- ④ 함께 구현하는 세계유산 해석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국제기관 및 전문가 교류와 연대

3) 우수 사례

- ① 연구의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함(<그림 3-25> 참조)
 - WHIPIC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방향성을 제시함
 - WHIPIC이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역량을 구축함

- WHIPIC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 WHIPIC이 세계유산 분야에서 국제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함
-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서 국내외적 위상을 확립함



<그림 3-25> 연구의 기대효과

② 유네스코 회원국 전체(194개국)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원국이 세계유산 분야에서 당면한 현안분석을 위해 노력함(41개국 87명의 설문 응답 수집)(<표 3-21>참조)

<표 3-21> 응답자 소속 국가 리스트(상) 대륙별 응답 비중(하)

대륙 및 국가					
유럽	슬로바키아	유럽	알바니아	아프리카	감비아
	룩셈부르크		체코		케냐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잠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세이셸
	스페인		노르웨이		짐바브웨
	안도라		싱가폴		멕시코
	포르투갈		몽골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그루지아(조지아)		수리남
	스웨덴		몰디브		온두라스
	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북마케도니아	요르단	북아메리카	캐나다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오세아니아	니우에	
	벨기에	카타르	총 41개국		
구분			사례수		
전체			87	(100.0%)	
유럽			29	(33.3%)	
아시아			20	(23.0%)	
남아메리카			19	(21.8%)	
아프리카			14	(16.1%)	
북아메리카			3	(3.4%)	
오세아니아			2	(2.3%)	

- ③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 및 자문회의를 실시함(<표 3-22> 참조)
-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주요 이해관계자(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CROM(국제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연구센터),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센터별 역할연계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표 3-23> 참조).
-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정책 현황분석(등재기준, 등재 절차·효과·기능, 세계유산 등재의 동향 변화, 등재기준과 협약 내용에 대한 유의점)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 ⑥ 유네스코 중기전략·프로그램·예산에 대해 포괄적 분석을 실시함
- ⑦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함
- ⑧ 한국정부 설립 유네스코 C2C의 현황 및 위상을 분석함(전 세계적으로 위치한 유네스코 C2C 중 불과 20-25%만이 원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술함)
- ⑨ 센터의 포지셔닝을 4개 측면(국제적 위상과 가치, 국가적 위상과 가치, 사회문화적 위상과 가치, 공간적 위상과 가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표 3-22> 국내 자문회의 참여자 현황

담당자	기관	전문성	
1차 자문회의	김**	건국대 세계유산학과 교수	· 국내 최초 세계유산학과 설립 대학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 유산해석 회의 5~6년간 개최 · 국내외 유산해석 동향 제언
	심**	카이스트 디지털헤리티지 랩 연구원	· 유네스코 본부 근무 10년 경험 ·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 조언
2차 자문회의	김**	한국전통문화대 수리복원학과 교수	· 건축 및 문화재 관리 분야 유산해석 조언
	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 세계유산 자문 기관 한국위원회 · 국내 유산해석 수요 공유
	이**	한국의국어대 문화유산학센터 선임연구원	· 유산해석 유럽 동향 및 흐름 공유 · 아시아 분쟁 유산 전문가
관계자 인터뷰	박**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학예연구관	-
	이**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행정사무관	-
최**	건국대 세계유산학과 교수	· 세계유산 국내외 흐름 제언	
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연구팀장	· 국내 카테고리2 센터 설립 및 운영 참고 사항	
신**	유네스코 불안보교육센터 연구개발팀장	· 국내 카테고리2 센터 설립 및 운영 참고 사항	

<표 3-23> 유관센터의 주요사업 현황

구분	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CROM 국제문화재 보존 및 복원 연구센터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
주요사업	[평가]세계유산 등재 후보군 기술평가	[교육]새로운 교육 개발 및 전문 교육 제공(문화유산 응급처치 훈련코스, 리더십 프로그램 등)	[평가]세계유산, 경관 및 지역 평가, 적색목록 구분 및 관리 등
	[모니터링]유산의 보존상태, 위험유산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당사국 조치사항 요청		[모니터링]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지역 보존상태 모니터링
	[연구 및 복원활동]세계유산목록에 관한 연구, 매뉴얼 개발, 피해유산 복원활동 등	[연구]보존활동에 관한 윤리, 척도, 기술방법 등 연구방법과 학습법 논의	[연구]세계유산 주제별 연구, 분석 온라인 플랫폼 제공
	[자문서비스]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협동 및 지원]보존을 위한 기술적 자원 및 자문, 교육자료 배포, 워크숍 개최 등	[자문서비스]10-12명 전문가 세계유산패널을 통한 협의, 상담 등 자문진행
	[오픈 아카이브]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관련 자료 (다기관 통합운영)	[도서관 운영]보존 및 복원 관련 서적자료, 사진자료 보유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생태계 관리, 환경법, 숲, 젠더, 종, 물, 해양 및 극지 등 주제별 보존, 보호 사업
네트워크 활동	[국제심포지엄]총회 심포지엄, 자문위원회 심포지엄, 국제 심포지엄 및 세미나, 대학 문화기관과 문제 대응을 위한 포럼운영 (University forum)	[국제포럼]국제 보존 포럼, 보존 과학 포럼	[정보교류]C2C 간 협력 로드맵 논의, 활동 공유 및 네트워킹
	[교육] 세계유산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수업,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교육 및 워크숍] 웨비나시리즈, 보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재해 복구 워크숍, 박물관 관리 워크숍 등 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	[교육]현장관리자, 이해관리자, 국가 및 지역, 기관 간 리더십 프로그램
	[Working Groups]토착민·지역 커뮤니티, 신진 전문가, 시리아 이라크(위기유산) 그룹, 기후변화 대응 등 활동	*지역별 특화 주제로 진행(아태,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중동-아프리카)	[Connecting practice]자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프로그램

⑩ 센터의 발전방안을 3단계(단기(안정화 단계), 중기(정착단계), 장기(확산단계))로 구분하고 세부 발전방안을 제시함.

⑪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3대 기능(연구 기능, 교육훈련 기능, 정보화 기능)으로 구분하고 9개 과제 27개 사업계획을 수립함

4) 소결

WHIPIC 사례처럼 GCIDA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 연구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는 GCIDA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WHIPIC은 국내외 전문가 자문,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GCIDA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국내외 전문가, 지역사회,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중기 전략, 세계유산 해석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현황 분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GCIDA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WHIPIC은 국제적, 국가적, 사회문화적, 공간적 가치 측면에서 포지셔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GCIDA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포지셔닝과 단계별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1) 개요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는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과학분야 유네스코 C2C로 설립되었으며 통합적 문제해결 융합연구, 현장중심의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화라는 기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물 안보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2020년에 수립된 i-WSSM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지원 보고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를 i-WSSM로부터 제공받아 사례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전체 6장(1장, 서론; 2장 국내외 물안보 관련 주요 동향; 3장, 물안보 및 지속 가능 물관리 국제교육센터(i-WSSM) 현황 분석; 4장, 유네스코 C2C 운영 사례; 5장 i-WSSM 중장기 발전 방안; 6장,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4장의 보고서 발췌본을 제공받아서 분석했다. i-WSSM는 2010년 초반부터 설립이 준비되어 2017년에 설립되었다.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 기간 완료(2022년)가 다가옴에 따라 갱신 평가를 앞두고 2020년에 기존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외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기와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센터의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표 3-24> 참조).

<표 3-24> i-WSSM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지원 연구 주요 내용

구분	부문 1 국내·외 물안보 환경분석	부문 2 조직 성과·운영의 효율성 평가	부문 3 중장기 운영전략 도출	부문 4 향후 조직 운영방안
세부 목적	국내·외 물안보 동향과 시사점 도출	센터의 주요성과 분석과 운영진단 및 한계점 분석	센터 비전 및 미션, 전략과제 등 재수립	효율적 조직·인력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주요 연구 내용	- 유네스코의 물안보 전략 분석 (37C/4, 41C/4, IHP-VIII, IHP-IX 등) - 물안보 관련 정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 정 책 분석 - 국내의 유사기관 운 영사례 분석	- 기존 중장기 운영전략 (`17.12.)에 기초한 센터 운영현황 분석 - 연도별 센터 사업 (`17~`20년)의 적정 성 및 효율성 평가 - 현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및 효율성 분석	- 미래지향적 핵심전략 및 이행과제 도출 - 센터 중장기 발전방 향 제시 (업무 영역, 조직, 인력, 재원 조 달, 청사, 직원 전문 성 등) - 추진로드맵 작성	- 중장기 조직 구조 설 계 및 적정 인력 확 충방안 제시 - 직원의 국제적 경쟁 력 강화 방안 마련 - 재무비용 분석 및 재 원조달 방안 제시
대상자 (기관·주체)	- 유네스코 물분야 C2Cs	- 센터 연차보고서 - 센터 구성원 및 이사 및 집행위원 - 센터 이해관계자	- 유네스코 물분야 C2Cs - 센터 효율성 평가결과	- 유네스코 물분야 C2Cs - 센터 효율성 평가결과
기대효과	- 센터의 비전 및 미션, 전략과제의 재수립을 통한 조직의 국내·외 위상 강화 - 환경부 물분야 국제협력의 체계적 지원 - 대한민국-UNSECO 제2차 센터협정(2022년)의 선제적이고 합리적 대응			

2) 기관 현황

i-WSSM은 물 관련 국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센터로서, 정부, 연구기관, 기업, NGO 등과 협력하여 물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관의 주요 목표는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3) 우수사례

① 물 안보(water security)의 정의의 명확화

i-WSSM의 역할과 기능, 운영 전략 등을 명확화하기 위해 물 안보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물 안보(water security)’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20여 년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며 단순히 기술적인 물관리의 의미를 넘어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넓은 범위로까지 의미가 닿는 만큼, 물 안보 정의에 관한 정확한 개념과 정의 파악에 노력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중장기 물안보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37 C/4, 41 C/4 등을 확인하고, 유네스코 국제수문프로그램의 별도 전략(IHP-VIII Water Security 및 IHP-IX 초안)도 점검했다.

② 유네스코 C2C 운영 사례 분석

C2C에 대한 유네스코의 2017년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관은 198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3개에서 2015년 115개소로 2000년대 이후 그 수가 급증하였다. 2025년 5월 기준 유네스코 C2C는 7개 대분류(education, natural sciences, ocean science, social and human sciences, cultur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ransversal)로 구분하고 있으며, natural sciences로 분류된 C2C는 2025년 05월 기준 72개이다(www.unesco.org). 한편, natural sciences 분야는 9개의 중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GCIDA는 natural sciences(대분류)-ecological sciences(중분류)에 속해 있다. GCIDA와 동일한 중분류의 기관은 GCIDA를 포함하여 5개소이다(홈페이지 등재순).

③ 해외 유네스코 C2C 운영 사례 분석

물 분야 해외 유네스코 C2C 4개소(수자원 및 글로벌 변화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Resources and Global Change: ICWRGC, 독일), 국제통합수자원관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CIWaRM, 미국), 수재해 및 위험 관리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Hazard and Risk Management: ICHARM, 일본), IHE Delft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네덜란드))의 설립 및 미션,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분석했다.

④ 국내 유네스코 C2C 운영 사례 분석

국내 유네스코 C2C 2개소(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아태무형유산센터(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ICHCAP))의 설립 및 목적, 주요 활동, 갱신평가, 시사점 등을 분석했다.

4) 소결

i-WSSM 사례처럼 GCIDA도 MIDAs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유네스코 C2C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GCIDA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특히, GCIDA와 관련성이 높은 유네스코 C2C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국립공원공단

1) 개요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국립공원공단 중장기 경영목표(2025-2029) 보고서(국립공원공단, 2024)를 중심으로 발전방안 수립 사례를 분석했다. 본 보고서는 4절(그간의 경영성과 및 향후 경영환경 분석, 경영목표 체계, 세부추진 계획, 환류 등 관련계획)로 구성되었다.

2) 기관 현황

국립공원공단은 한국의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원관리기관으로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립공원의 보전
-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 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
-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3) 우수사례

① 이해관계자 분석, 대내외 경영환경 SWOT 분석 등을 실시하고, 해당 분석 내용을 전략수립에 반영함

② 외부환경 분석을 위해 PEST 분석을 실시함

- 외부 환경을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립공원공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③ 내부환경 분석을 위해 SPRO 분석을 실시함.

- 내부 환경을 전략(Strategy), 사업프로세스(Process), 자원(Resource), 조직(Organization) 측면에서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

④ 경영환경, 내부역량 분석 등을 통해 4대 전략 목표 및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함

⑤ 전략목표 계량화 시도

세부 전략별 계량화된 4대 전략목표, 32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연차별 달성목표를 제시함(<표 3-25>)

<표 3-25> 국립공원공단 4대 전략목표 및 연차별 달성 목표(예시)

전략목표	단위	실적 및 목표치								
		'23		'24		'25	'26	'27	'28	'29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 생태계 건강성 지수 1등급 달성	등급	I	I	I		I	I	I	I	I
2) 안전사고 발생 건 수 0.4명(10만명당) 이하 유지	명	0.3486	0.3475	0.3381		0.3280	0.3182	0.3084	재설정	재설정
3) 탄소중립 이행지수 S등급 달성	등급	B	B	A		A	S	S	S	재설정
4) 지속가능 경영지수 S등급 달성	등급	B	B	A		A	S	S	S	재설정

4) 소결

국립공원공단은 기관 성격상 UNESCO C2C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고, 본 계획은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의 성격보다는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의 내용이어서 성격상의 차이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이해관계자 분석, 대내외 경영환경 PEST, SPRO, SWOT 분석 등의 사례는 벤치마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IDA/MIDAs 관련 주요 국내의 전략 및 현안

3.3.1 국제 정책 프레임워크

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난 20년간에 걸친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을 점검하고, 결의문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에 합의하였다. 그 후 3년에 걸쳐 진행된 후속 논의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은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었다(<그림 3-26>).

SDGs는 과거의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경제·환경·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되어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들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세부 이행 과제들을 담고 있다. GCIDA와 관련이 높은 목표는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며, 이중 15번째 목표에는 세부목표로 12개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환경부, 2018).



<그림 3-26> UN SDGs(17개 목표)(<https://unglobalcompact.kr>)

- 15.1 -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 15.2 - 2020년까지 전세계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이행을 촉진하고, 삼림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 15.3 -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받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 황폐화가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 15.4 -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보존을 보장한다.
- 15.5 - 자연서식지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 15.6 -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한다.
- 15.7 -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종식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을 모두 해결한다.
- 15.8 -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관리종을 통제 및 박멸한다.
- 15.9 -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별 계획, 개발과정, 빈곤감소전략 및 회계에 통합한다.
- 15.a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 15.b - 지속 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자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전 및 재식림을 포함한 산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15.c - 지속 가능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중 SDGs 세부목표 15.1은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한다.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채택한 스톡홀름 선언(1972)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상의 대기, 물, 토양, 동식물군, 자연

생태계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동 의무를 재확인하고,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는 이산화탄소의 저장고이자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같은 해에 채택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1992)에서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존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SDGs에서도 삼림,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상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추진한다.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을 지표로 설정했다.

SDGs 세부목표 15.5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중단, 멸종위기 종 보호 및 멸종예방을 목표로 한다. 지구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IUCN은 1964년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Red List)를 발간하고 있다. IUCN 보고서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가 발간한 '우리의 공동된 미래' 보고서에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멸종위기 종을 포함시키고 생태계의 통합과 유지에 멸종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2010)에서 채택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12번을 멸종 위기종의 보호 및 개체수 감소 종의 유지·개선으로 설정으며, SDGs도 동 목표를 반영했으며, 레드리스트 지수(Red list index)⁴⁰⁾를 지표로 설정했다.

한편, SDGs 세부목표 15.9는 생물다양성 이슈를 국가계획과 빈곤감소전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201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관리가 중요하다. 동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 목표뿐만 아니라 명확한 이행계획이 포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01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총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연구소 및 기관이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목표를 고려하고, 이 정책을 주류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각국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국가·지역계획, 전략 및 회계에 통합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접근을 확립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와 역량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impactlibrary.net).

40) IUCN 적색 목록에 기반한 적색 목록 지수(RLD)는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수는 주요 종 그룹의 보존 상태를 정의하고 시간에 따른 멸종 위협의 추세를 측정한다. 정기적으로 보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분류학적 그룹 내 종의 위협 상태 변화를 통해 멸종 위협의 추세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

나.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개요

최근의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주로 CBD에 기반한다. CBD는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지속 가능한 이용·유전 자원 이익 공유를 3대 목표로 하며 생물다양성과 연계한 보호지역에 대하여 최상위 국제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협약을 비준하고, 1995.01.01. 발효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CBD의 구성은 전문과 42개 조항, 부속의정서 2개(나고야, 카르타헤나)로 이루어져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주요 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CBD 1조에서는 협약의 목적을 유전자원과 유전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자원제공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CBD 2조에는 보호지역(protected area)의 정의를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orld.moleg.go.kr>).

보호지역은 1992년 CBD 이전에는 각 국가는 국가법에 의하여, 국제 사회는 개별 법규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특히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는 모두 CBD 이전부터 존속하던 것으로 각각 전략계획이 마련되어 있다(<표 3-26>). CBD에서는 일정한 기간마다 전략계획이 마련되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Goals과 Targets 등을 설정한다(<표 3-27>).

<표 3-26> 보호지역의 근거, 시행 및 지정 연도

구분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근거 (연도)	세계유산협약 (1972)	MAB Program (1970/1971), 유 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1971)	유럽지질공원망 (2001), 세계지질 공원망(2004), 유 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프로그램 (2015)	특별히 물세 서 식지로서 국제적 으로 중요한 습 지에 대한 협약 (1971)
발효	1975	1976	2015	1975
첫 지정	1978	1976 (World Network of BR)	2001(EGN) 2004(GGN) 2015(UGGp)	1974

<표 3-27> CBD 시기별 전략계획 현황

구분	개별 보호지역 관리	국제 공동의 생물다양성 기반 보호지역 관리 (IDA/IPA는 1992년 이후 CBD와 연계성 강화)			
근거	각 개별 제도	생물다양성 협약(CBD, 1992-)			
글로벌 전략 계획	개별 제도 내에 마련	Plan (1992)	Strategic Plan for the CBD (2002-2010)	Strategic Plan for CBD (2010-2022)	K-M GBF (2022-2030)
Goals (기대목표)	자체 전략 계획 있음 세계유산 (1972)	생물다양성 손실 감소 노력	2010년까지 BD loss 속도 늦춤 (빈곤 타파 및 모든 지구 생명체를 위하여)	BD 평가, 보전, 복원 현명한 이용(생태계 서비스 유지)	자연을 위한 대담한 새로운 길 설정 4개 기대 목표 (2050)
Targets (달성목표)	생물권보전지역(1971)			20 Aichi Targets	23 Targets
보호지역 (면적 비율 등)	세계지질공원 (2004→2015) 람사르습지 (1971)	PA 정의 도입	PoPWA (2004): 육상(2010까지), 해상 (2012까지) 포괄적, 효과적 관리 및 생태계 대표 체계 설정 목표	Target 11 육상 17% 해상 10%	Target 3 (30x30) 육상 30% 해상 30%
보호지역 관리 등	자체 관리 법규/지침	생물다양성 위해 PA 체계 도입 권고하고, PA 주변 친환경 이용 권장	양적 팽창 지향	양적 팽창과 질적 관리 향상	강한 재원 투입 요구
출처		1	2	3	4

출처: 1. CBD Secretariat.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ontreal.
 2. CBD Decision VI/26: Strategic Plan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2).
 3. CBD Decision X/2: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2010).
 4. CBD Decision 15/4: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2022).

PA: Protected Area- "Protected area" means 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which is designated or regulated and managed to achieve specific conservation objectives.
 PoWPA: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BD: Biodiversity

2) CBD의 시기별 전략 계획과 보호지역 관련 사항

① CBD 전략계획 2002-2010(Strategic Plan for the CBD 2002-2010)

2010년 이전의 전 세계 보호지역 목표는 주로 CBD의 틀 안에서 설정되었다. 2002년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02-2010"에서 광범위한 생물다양성 손실 감소 목표를 제시했고, 2004년에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서 "보호지역 작업 프로그램(PoWPA,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을 채택하여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2010년, 2012년) 및 내용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2년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6)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전략계획의 미션은 2010년까지 전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⁴¹⁾. 본 전략계획에서는 4개의 전략 목표(goal)와 1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며, 보호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호지역 관련 사항으로 PoWPA는 이 전략계획의 하위 요소로, 보호지역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채택되었다⁴²⁾. 육상 보호지역은 2010년까지, 해양 보호지역은 2012년까지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며, 생태학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국가 및 지역 보호지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획기적인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CBD 전략계획 2011-2020(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including Aichi Biodiversity Targets)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채택된 이 계획은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이 가치 있고, 보전되며, 복원되고 현명하게 사용되어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고, 건강한 지구를 지탱하며,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비전으로 10년(2011-2020)간의 틀을 제공했다.

41) Parties commit themselves to a more effective and coherent implementation of the thre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to achieve by 2010 a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current rate of biodiversity loss at the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s a contribution to poverty alleviation and to the benefit of all life on earth.

42) 본 내용은 2004년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7,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 채택된

이 계획의 임무(mission)는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력을 갖고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효과적이고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가 제시되었다. 아이치 목표는 5대 전략목표(strategic goal)(① 생물다양성 감소의 근본 원인 해결, ②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 감소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③ 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개선, ④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얻는 혜택 증진 및 공유, ⑤ 참여적 계획, 지식 관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이행 촉진)와 서식지 손실 저감, 보호지역 확대, 멸종 위기종 관리 등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목표(target) 20개를 의미한다(www.cbd.in, 2025).

보호지역 관련 내용으로, 2020년까지 최소 17%의 육상 및 내수면, 10%의 연안 및 해양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으로 보전하는 목표(Target 11)⁴³⁾을 설정했다. 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며, 생태학적으로 대표적이고 잘 연결된 보호지역 시스템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를 통해 보전하고, 더 넓은 경관 및 해양 경관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했다(www.cbd.in, 2025).

③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K-M GBF))

4년간의 논의(2019~2022)를 거쳐 2022년에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아이치 목표 종료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는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략인 K-M GBF⁴⁴⁾가 채택되었다(환경부, 2025).

K-M GBF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43) By 2020, at least 17 per cent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nd 10 per cent of coastal and marine areas, especially area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re conserved through effectively and equitably managed, ecologically representative and well connected systems of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and integrated into the wider landscape and seascapes.

44) 기존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라는 명칭으로 논의되던 프레임워크를 이번 총회의 당초 개최지인 중국 쿤밍(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과 실제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이름으로 명명함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2050년까지의 목표(Goals, 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 23개),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도 이에 맞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12월에 수립하였다.

K-M GBF에서는 2050 Vision과 2030 Mission이 제시되었다. 또한 2050년을 위한 글로벌 목표(global goals)로 4개(① Protect and Restore, ② Prosper with Nature, ③ Share Benefits Fairly, ④ Invest and Collaborate)와 2030년까지의 긴급 조치를 위한 23가지 행동 지향적인 글로벌 목표(global targets for 2030)가 포함되었다.

보호지역 관련 사항으로, GBF 목표 3 ("30x30 목표)⁴⁵⁾은 보호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육상 및 내수면 지역의 최소 30%와 연안 및 해양 지역의 30%를 보호지역 목표로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에 중요한 지역을 생태학적으로 대표적이고, 잘 연결되며, 공평하게 관리되는 보호지역 시스템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 및 관리되도록 보장하고 가능하게 하며, 해당되는 경우 원주민 및 전통 영토를 인정하고, 더 넓은 경관, 해양 경관 및 해양에 통합하도록 명시하였다.

한편, 2022년 이후에는 Strategic Plan이라는 용어 대신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실행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5) TARGET 3: Conserve 30% of Land, Waters and Seas

Ensure and enable that by 2030 at least 30 per cent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s, and of marine and coastal areas, especially area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re effectively conserved and managed through ecologically representative, well-connected and equitably governed systems of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recognizing indigenous and traditional territories, where applicable, and integrated into wider landscapes, seascapes and the ocean, while ensuring that any sustainable use, where appropriate in such areas, is fully consistent with conservation outcomes, recognizing and respecting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ncluding over their traditional territories(<https://www.cbd.int/gbf/targets>).

3.3.2 UNESCO 전략

가. 유네스코 중기 전략 2022-2029(UNESCO Medium Term Strategy 2022-2029)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문서는 UNESCO Medium Term Strategy 2022-2029, 41 C/4로서 2022년부터 2029년까지를 포괄하는 중기 전략이다. 중기 전략은 크게 3절(1절. 미션, 2절. 전략목표, 3절. 약속(commitment))로 구분되며, 9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7> 참조)(UNESCO, 2022).

1) 주요 목표

이 전략은 회원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UN SDGs와 연계하여, 국제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비전과 행동 프레임워크를 설명한다. 이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그림 3-28> 참조).

-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 교육을 보장(평생 교육, 디지털 학습 포함)
- 과학적 진보를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 포함)
- 세계를 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으로 만들(표현의 자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인종차별 및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함)
-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인류를 위한 기술 환경 조성 포함)

유네스코 중기전략과 GCIDA 간에는 아래 표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환경부,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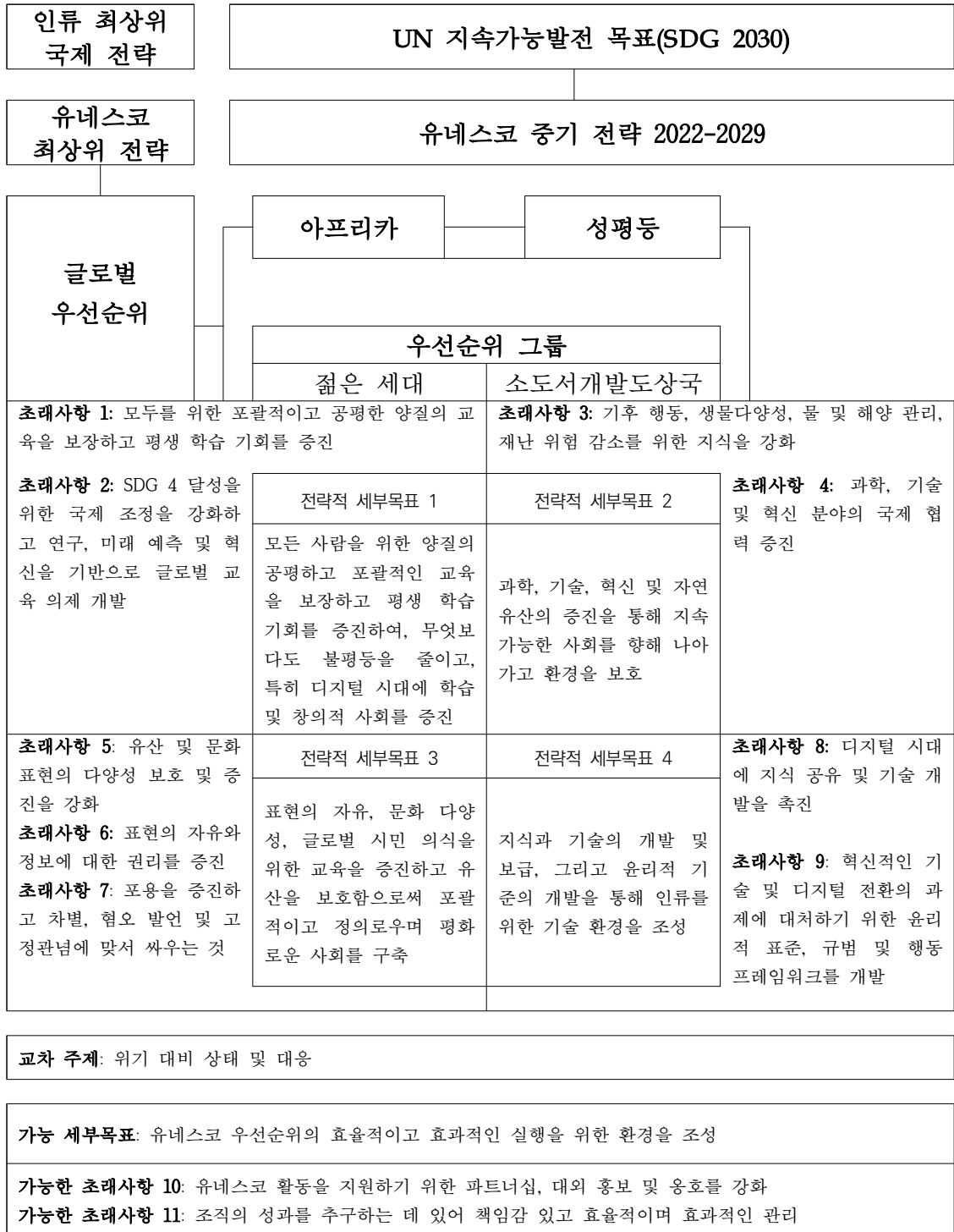
구분	유네스코 중기 전략	센터 주요 내용
유네스코 임무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환경, 사회통합 및 기술 혁신의 우선 과제 식별로 지속가능발전 기여	연구·훈련센터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우선순위	아프리카 + 성평등	아프리카 필수 훈련 대상자 선정(성비 고려)
전략 세부목표	평생학습 과학기술 협력 (지속가능 사회: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유산보호	연구훈련 프로그램 실행 과학협력(지속가능발전), 세계유산 보호 연구 및 실행

Medium-Term Strategy 2022-2029

Contents

List of acronyms	7
I. Our mission	9
UNESCO's renewed relevance in the face of major global challenges	9
Mission statement, functions and comparative advantage	11
Achieving the vision of the 2030 Agenda: strategic role and contributions	12
Key principles guiding UNESCO's action	14
Action for global priorities and priority groups	15
Priority action for countries facing crises or in fragile situations	18
II. Our strategic objectives: a common and cross-cutting framework for action	20
Meeting the educational challenges and embracing the opportunities	21
Meeting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embracing the opportunities	24
Meeting the challenges of social cohesion and embracing the opportunities	27
Meeting the technological challenges and embracing the opportunities	31
III. Our commitment: strengthening impact and partnerships	34
Deepening and diversifying partnerships	34
Reinforcing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system	36
Shaping new narratives	36
Building an agile, accountable and proactive Organization	37

<그림 3-27> 유네스코 중기 전략 보고서 표지(상) 및 목차(하)



<그림 3-28> 유네스코의 전략적 세부목표, 가능한 세부목표 및 그에 상응하는 초래 사항⁴⁶⁾

46) Objective : 세부 목표로 번역함, Outcome: 성과라고 번역하면 Performance와 혼선이 있으므로 ‘초래사항’으로 번역함. IAIOI 개념에 따라 번역함(Iuput, Activity, Output, Outcome, Impact (이수재 등 2015). 출처: UNESCO, 2022, Medium-Term Strategy 2022-2029.

2) 글로벌 우선순위 및 대상(global priorities and priority groups)

중기 전략은 유네스코의 글로벌 우선순위로 아프리카와 성 평등을 통합하며, 젊은 세대와 소도서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을 우선 대상 그룹에 포함한다.

3) 유네스코 전체 교차 주제(cross-cutting theme)

중기 전략은 위기 상황의 대응 준비 태세(preparedness) 및 대응을 포함한다. 위기(crisis)는 현재 국제사회 전체가 직면한 비상사태로서 무장 분쟁, 사회적 불안정(소요), 자연재해,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유네스코가 혁신적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UNESCO, 2022, p.17).

4) 중기 전략의 핵심 내용

중기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며, 빈곤을 퇴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5) 이행 관련

유네스코의 중기 전략을 연도별로 이행하기 위한 부분별 예산 배분 및 내용은 42 C/5(2024-2025) Approved Programme and Budget(UNESCO, 2024)에 상세히 제시되었다. 유네스코의 집행 예산은 대부분 중기 전략과 기초가 일치하며, 우선순위 및 우선 그룹의 비율이 높다.

6) IDA/IPA의 내용

중기 전략에서 보호지역 혹은 IPA/IDA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으며, 다만 이를 다루는 프로그램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⁴⁷⁾. 유네스코에서는 IPA/IDA를 다루는 유네스코의 국제 및 정부 간 프로그램은 국제적 관심을 끌어서 국제적 참여를 유인하고, 자연환경의 쇠퇴 추세를 되돌리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복력을 구축할 기회를 마련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즉, IPA/IDA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통합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유네스코의 국제 및 정부 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표 3-28>).

47) 유네스코의 다학제적 임무와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전문 지식, 그리고 국제 및 정부 간 과학 프로그램들은 국제 사회를 동원하여 자연환경의 쇠퇴를 되돌리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복력 있는 미래를 구축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빈곤 증가, 사회 불평등, 대규모 이주, 팬데믹, 그리고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위험 요소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UNESCO, 2022, p.24).

<표 3-28> 유네스코의 국제 및 정부 간 과학프로그램 종류

국제 및 정부 간 과학 프로그램	비고
Programme on Man and the Biosphere (MAB)	BR(생물권보전지역)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IGGP)	Geopark(지질공원)
International Basic Sciences Programme (IBSP)	
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Abdus Sala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 (ICTP)	
UNESCO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WWAP)	
The World Academy of Sciences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TWAS)	
주) 세계유산, 람사르습지는 협약으로 운영됨.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직접적인 언급이 안된 것으로 보임(유네스코, 2024)	

7) 유네스코의 영향력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⁴⁸⁾

유네스코는 중기 전략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상황에 따른 큰 변화: 디지털 전환 적극 수용 및 활용

유네스코는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직접 대면에 의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화상회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극적이며, 많은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과 연합(예 : 글로벌 교육 연합(Global Education Coalition⁴⁹⁾))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UNESCO 2024, 번호 7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협력 및 역할 활용

유네스코 법규상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는 국내에서 핵심적인 조정 기관으로서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하고 유네스코 임무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 변화의 주체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국가 기관, 산하 협회, 학계, NGO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회원국 내 유네스코의 존재와 가시성을 확보한다(UNESCO 2022, 번호 73).

- 유네스코의 파트너 전략(유네스코, 2024, 번호 74)

유네스코는 새로운 파트너 구축 대상을 청년, 도시 및 민간 기업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NGO는 글로벌, 지역 및 현지 수준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고 강력한 시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

48) 이 부분은 UNESCO (2024) 중기 글로벌 전략 2022-2029 중 III.에 있는 내용을 주로 이용하였다. 관련 번호는 해당 중기 전략에 있는 번호이다. 시사점은 각 사항에 따라 연구진이 제안한 것이다.

49) Global Education Coalition(<https://globaleducationcoalition.unesco.org>) :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드러나고 확산되자 유네스코는 2020년 3월 글로벌 교육 연합을 설립하여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대응과 회복을 포함한 교육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개의 연합 회원으로 구성되며, 2025년 기준 233개 프로젝트(112 개국, 4억명 학습자, 1,200만명의 교사 참여)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가족 파트너(UNESCO Family Partners)”로 부른다(<표 3-29>).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GCIDA (C2C), BR, UGGp 등은 유네스코의 가족 파트너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유네스코 가족 파트너가 모두 해당 국가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유네스코의 파트너 관계는 다양한 이유에 따라 맺어진다.

<표 3-29> 유네스코 가족 파트너 유형

유네스코 가족 파트너	비고	GCIDA 교류 대상
UNESCO Clubs (유네스코의 이상과 가치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자발적 그룹) https://www.unesco.org.tr/Pages/667/313/UNESCO-Clubs	유네스코 클럽. 100개국에 4000개 이상	PA/IDA 관련 클럽
the Associated Schools Network(ASPnet)	유네스코 학교	SDG 관련
UNITWIN/UNESCO Chairs	유네스코 석좌	IDA
UNESCO Goodwill Ambassadors	유네스코 친선 대사	아프리카
the network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UNEVOC)	유네스코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센터 망	디지털 전환 관련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and UNESCO	C2/C	11개소
Intergovernmental programmes and their membership	정부 간 프로그램 및 회원국	MIDAs 중점 TWAS*

* The World Academy of Sciences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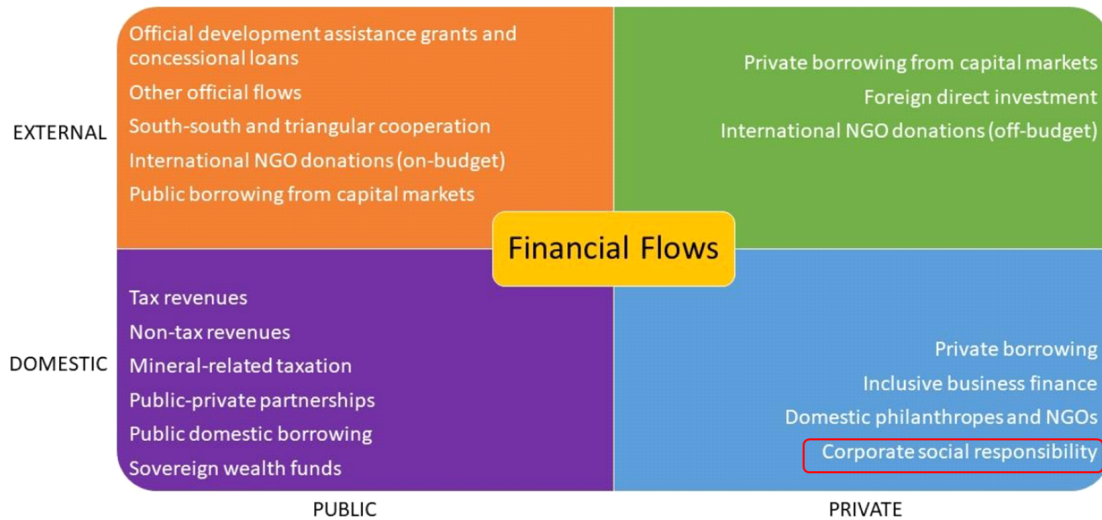
8) 유네스코의 자원 조달 및 파트너십 강화 계획

유네스코의 자원 동원 노력은 아프리카 및 성평등이라는 글로벌 우선순위와 청년 및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이라는 우선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국가 및 하위지역 수준에서 발생하는 필요와 우선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유네스코 2024, 번호 76). 한편, SIDS에 대하여 유네스코는 새로운 운영 전략(Operational Strategy for SIDS, 2023-2029)을 마련하여 적용 중이다(UNESCO, 2024).

9) UN과의 협력 강화: 유엔 지속가능개발 협동 프레임워크(UNSDCF) 공조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기관이므로 필연적으로 상위 기구의 운용 방향에 동조하여야 한다. 최근의 운영 기조는 새로운 유엔 지속가능개발 협동 프레임워크(the new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s, UNSDCF)이므로 이를 반영한다(유네스코 2022, 번호 79).

UNSDCF는 국가 단위의 유엔 개발 활동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는 위한 핵심 도구이다. 이는 국가 우선순위와 2030 아젠다에 합치를 보장하며, 유엔의 발전 노력의 계획, 이행, 모니터링, 보고, 평가 지침을 포함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아무도 뒤처진 채 남겨 두지 않는다(Leaving No One Behind)는 정책이 특징이다⁵⁰⁾. 한편, UNSDCF에서는 자원 조달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적 및 사적인 다양한 자원 확보 활동을 권고한다(<그림 3-29> 참조).



<그림 3-29> 재정 조달 개요(출처 : UNDP 2016)

나. 유네스코 프로그램과 예산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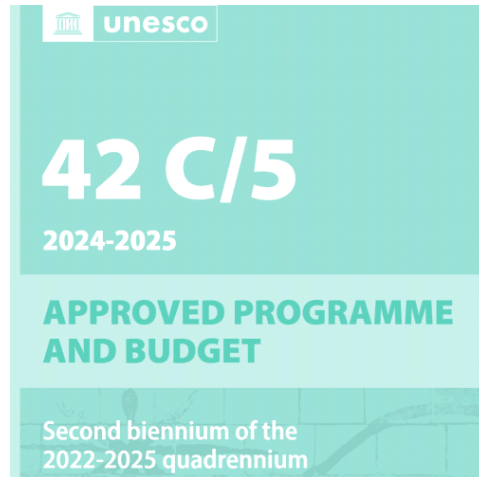
유네스코는 4년 동안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중간평가 및 방향 조정을 하는데, 2022~2025년 중 하반기 2024~2025년의 전략적 방향은 42 C/5에서 살펴볼 수 있다(유네스코, 2024)(<그림 3-30> 참조). 42 C/5에 기재된 유네스코 지정 지역 내용을 요약하면, 지정지역들은 유네스코의 독특한 자산이며, 유네스코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 기반 실체로 간주된다. 42 C/5에서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시각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2) 유네스코 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변화 주도(42 C/5, p. 4)

유네스코 지정 지역(designated sites)은 독특한 생태계에 대한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활용하여 상향식 실험과 학습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 지정지역을 살

50) unsdg.un.org/resources/united-nations-sustainable-development-cooperation-framework-guidance

아있는 실험실과 학습 허브(living laboratories and learning hubs)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세계 박물관 네트워크(the Global Network of Water Museums), 생태수문학 시범 지역(ecohydrology demonstration sites) 및 기타 해양 및 연안 보호지역과 같은 유네스코 지정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이자 학습 허브이며, 환경 및 기후 행동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30> 유네스코 프로그램과 예산 보고서 표지

마찬가지로, 생물권보호지역들을 기후 행동을 위한 방법론인 “개방형 및 시민 과학과 청년 역량 강화”⁵¹⁾ 방식을 도입하는 시험 무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Tiny Machine Learning과 같은 저비용·저전력 기술을 시범 생물권보호지역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것이다. 유네스코 석좌와 UNITWIN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의 변혁적 힘을 활용하여 국경을 넘는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2024년 아프리카 연합의 주제인 ‘교육’에 기여할 것이다.

3)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은 유네스코만의 독특한 자산(42 C/5, 02004번, p.80)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의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및 정부 간 과학 프로그램, 전문가 네트워크, 그리고 특별 보호지역들을 동원하여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지역들로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 지역(ecohydrology demonstration sites) 등이 있다.

51) UN의 “개방형 및 시민 과학과 청년 역량 강화(Open and Citizen Science and Youth Empowerment)”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개방형 및 시민 과학은 시민들이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식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년 역량 강화는 젊은 세대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 지정지역들은 오늘날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토지 이용 변화, 불충분한 수자원 관리와 같은 존재적 도전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들 장소는 지역 차원에서의 연구 '실험실(laboratories)'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의 고유한 잠재력을 점차 더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유네스코의 역할: 과학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42 C/5 02005, p. 80)

유네스코의 국제 및 정부 간 프로그램은 회원국이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고 자체 개발 의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적 전문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국제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 정부 간 수문학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기초과학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또한, C1C, C2C, 유네스코 석좌, 자원봉사 전문가 그룹인 유네스코 지구망(UNESCO Earth Network)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관련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기관 파트너로서, 유네스코는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상황 분석과 정책 해결책을 제공하는 IPBES의 주요 평가에 기여할 예정이다.

IPBES⁵²⁾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다루므로 GCIDA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2년에 가입하였으며, 환경부가 주무부처(Focal point)이고, 국립생태원(서천 소재)이 2차 Focal Point이다(<https://www.ipbes.net/countries/republic-korea>).



<그림 3-31> IPBES 홈페이지

52) IPBES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장기적인 인간 복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과학-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국가들이 설립한 독립적인 정부 간 기구이다. 이 기구는 2012년 4월 21일 파나마시티에서 94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IPBES는 유엔 기구는 아니지만, IPBES 총회의 요청과 2013년 유엔환경계획(UNEP)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IPBES에 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3.3 UNDP 관련 기구 중 유사 보호지역 관련

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네트워크(BES-Net)⁵³⁾

Th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Network (BES-NET)는 최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PBES*)의 결과물을 현장에서 생물다양성 및 보전 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행동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ES-Net은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국가 생태계 평가 주창(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Initiative)를 주관)와 유네스코(2020년부터 원주민 및 지역 지식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가 공동으로 이행하며, 독일 정부(국제 기후 주창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를 통해)와 스웨드바이오(SwedBio⁵⁴⁾)의 지원을 받고 있다⁵⁵⁾.

BES-Net은 보호지역이나 생물다양성 등 관련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에 GCIDA는 이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BES-Net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은 UNDP, UNEP-WCMC and UNESCO 이고, 독일 정보와 SwedBio는 공여기관이다. 그리고 IPBES, CBD, UNCCD and SGAN 등과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이다.⁵⁶⁾

나. GPC-RED⁵⁷⁾

GPC-RED(Global Policy Center on Resilient Ecosystems and Desertification)는 UNDP가 생태계 회복력과 사막화에 대한 운영하는 글로벌정책센터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주요 접근 내용이다. 포자 보전과 경관 복원에 대한 우수실무로 토착 지식을 보전하는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에 관심이 크다.

53) <https://www.besnet.world/>.

54) 스웨드바이오는 생물다양성 지식 및 정책의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발 프로그램이다. 스웨드바이오는 파트너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로세스에 참여한다(<https://gemini.google.com/app/b582256b7223cb58>. 2025.7.25. 접속)

55) <https://www.besnet.world/>. 2025.7.25. 접속.

56) <https://www.besnet.world/our-team/> 2025. 7. 25. 접속.

57) <https://www.undp.org/policy-centre/nairobi>. 2025. 7. 25. 접속

3.3.4 국내 전략

가. 탄소중립⁵⁸⁾

1)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및 대응현황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사용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태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표 3-30> 참조).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EU 국가들은 1990대 중반부터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2℃ 목표가 포함됐다. 2℃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포함되었으며,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됐다.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⁵⁹⁾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체

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50 탄소 중립”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에서 요약 정리함.

59)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함

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한편,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을 강화하고 산업계에 적용하는 등 매우 강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표 3-31>.⁶⁰)

<표 3-30> 전 지구 온도 상승 1.5℃ vs 2℃ 주요 영향 비교

구분	1.5℃	2℃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폭염일 온도	3℃ 상승	4℃ 상승
고위도 한파일 온도	4.5℃ 상승	6℃ 상승
산호 소멸	70-90%	99% 이상
기후영향·빈곤 취약 인구	2℃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 증가	
물 부족 인구	2℃에서 최대 50% 증가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0.77m	0.3~0.93m
북극 해빙 완전소멸 빈도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표 3-31>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 ○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26~) ○ (RePowerEU) [△]에너지 소비절감, [△]공급망 다변화, [△]신재생e 보급 확대 등 발표('22.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05년 대비 50~52% 감축 ○ (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미국내 생산기업에만 한정('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90년 대비 최소 68% 감축 ○ (원전확대) 에너지안보를 위하여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 건설 계획 발표('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목표) '50년까지 탄소중립, 30년까지 '13년 대비 46% 감축

2)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① 비전 및 전략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심화하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시장 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장기 비전과 국가전략이 제시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2020년 12월 31일 UN에 제출하였다(환경부, 2025).

“탄소중립 2050”은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순 배출되는 탄소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이다. 정부는 2023.4월 관계부처합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비전 및 전략체계도는 <그림 3-32>와 같으며, 국가비전, 전략 및 기본계획 주요과제는 <그림 3-33>과 같다(관계부처합동, 2023).



<그림 3-32>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 체계도



<그림 3-3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비전과 감축목표 및 부문별 정책

②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을 어떻게 낮춰 갈지 장기 계획을 각 나라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이 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이다. LEDS는 2020년에 수립되었으며, 향후 30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 전략으로, 탄소 감소뿐만 아니라 저탄소에 맞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명명하였으며,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은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이다. 부문별 전략은 아래와 같다.

- (에너지공급)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 (산업)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수송) 청정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 (농축수산)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탄소흡수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이행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③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했다.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해당 갱신(안)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BAU)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된 것이다(<표 3-32>).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의결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감축 목표에서 대폭 상향됐다.

<표 3-32> 감축목표 설정 방식 비교

구분	절대량 방식	배출전망치(BAU) 방식
2030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채택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터키, 에티오피아 등 80여 개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 · 공개 • 국제사회 높은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 국제사회 낮은 신뢰

3) 제주도 탄소중립 정책

①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은 2007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 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범도

조성 협약 체결 이후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기후변화대응 행정조직의 신설과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의 구성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인 지자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대 초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와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CFI)」 선언을 통한 미래 비전 제시하였다(<그림 3-34> 참조).

WCC 제주 개최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까지 추진해 나갈 '세계환경 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현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CFI 2030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도내 전력공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제주지역 운행 자동차 100% 전기자동차로 대체,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화하여 스마트그리드 선도도시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CFI 2030 계획은 2019년 수정 보완되어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도내 운행 전기차 비율 조정,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TOE/백만 원 실현, 에너지융복합 신산업 선도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후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빠르게 늘어나 2023년 기준 발전비중이 약 18.2%로 전국 평균(8.5%)의 두배 이상에 도달했다.⁶¹⁾ 제주도는 2012년에 시작한 CFI 2030의 10년간의 운영에서 당초 대비 80%를 달성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율(18.2%)과 지역 전력수요 35.1%를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⁶²⁾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생산단지 확대를 통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의 '생산부문', 활용처를 고려한 충전소 구축, 주유소·LPG 충전소 전환 등의 '보급부문', 공공영역의 안정적 활용처 확보 후 산업·생활 등 확장을 위한 '활용부문', 제도적 기반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화하는 '산업화부문' 4개 부문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표 3-33>)

61) SFOC and NEXT group., 2030 탄소없는 제주도. 출력제한 없는 섬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의 비용분석. <https://content.forourclimate.org/files/research/mqGIFUe.pdf>. 2025.7.3. 최종 검색.

62) OECD, CFI 2030, Green New Deal Frontier, Jeju. Leading global energy transition. Carbon Free Island. https://oecd-opsi.org/wp-content/uploads/2022/09/CFI-2030-Magazine_ENG.pdf.

핵심가치 Core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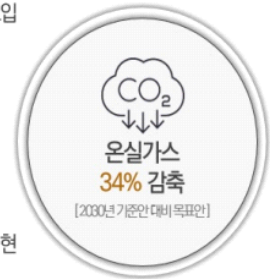


2030 정책목표 Policy Goals

- 1::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 2:: 37.7만대의 친환경 전기차 보급
- 3::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 TOE/백만원 실현
- 4:: 에너지융복합 신산업 선도

정책과제 Policy Tasks

- 1:: 신재생에너지 기반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 2:: 전기차와 충전기 확대에 청정 수송 시스템 달성
- 3:: 에너지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사회 구현
- 4::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보
- 5::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그림 3-34> 제주도 CFI 2030 비전, 목표 및 과제

2023년에는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에는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와 산업·생활 영역 청정에너지 전환,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융합 제조업 등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동력 및 당위성을 확보했다.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어서 세계 환경 수도 조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환경 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속 가능 발전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주의 지속 가능 발전 비전 및 전략 제시를 위한 기반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환경 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화했다. CFI 2030 정책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2015년) 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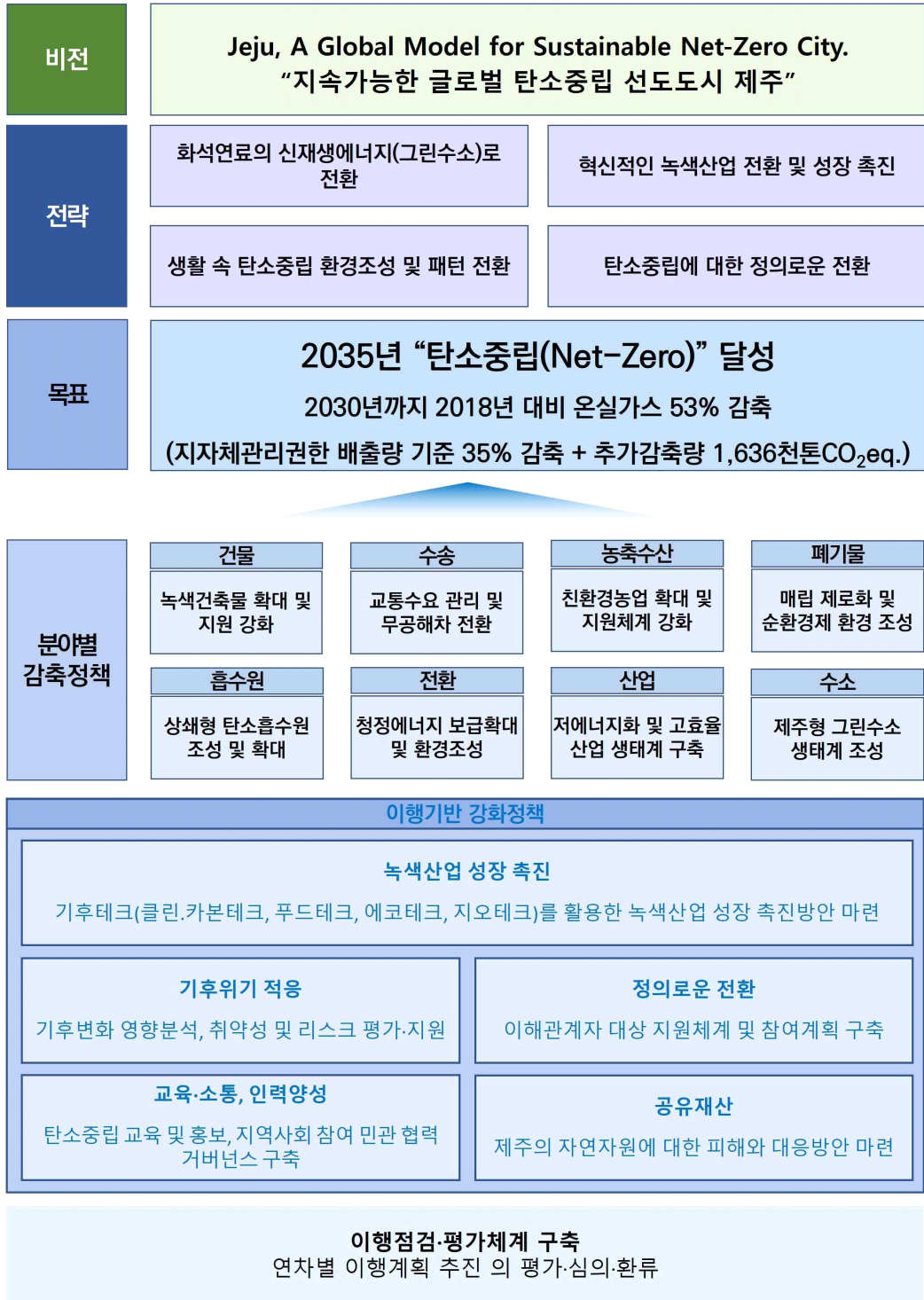
<표 3-33>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동향

연도	구분	내용
2007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 전국 규모로 전문가 33명을 기후변화대응 TF팀 구성
2008	기후변화대응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대응 로드맵 수립 및 실천전략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 구성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시범사업 개발
201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2011	세계환경수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실현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 • 폐기물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2012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 비전 'Carbon Free Island JEJU' • 도내 전력 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 37.7만대 친환경 전기차 보급 •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TOE/백만원 실현
2020	제주형 그린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 자원순환 사회 조성 + 그린전환 인프라 구축 • 「탄소 없는 섬」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수도 실현
2022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 그린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 실증, 생산단지 확대), 보급(산업·생활 전반에 걸친 수소 보급 환경 조성), 활용(모빌리티, 산업·생활 부문 활용) 구분 목표 제시
202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8개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세부계획 수립
2023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목표 •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발전 전환 • 산업·생활 영역 수소, 전전(全電)화
2024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청정자연과 공존하는 행복도시 제주(공존, 행복) • 환경, 사회, 경제, 평화·정의 4가지 전략, 17개 세부 목표 제시

②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환경 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저탄소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그림 3-35>)을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은 <그림 3-36>의 2022년 수립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22)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 탄소중립 전략<그림 3-36>에서 탄소흡수원 부분은 GCIDA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5>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략 및 비전



<그림 3-36>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비전 및 목표

또한, 제주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그림 3-37>과 같이 SDG 17개 분야에 대하여 비전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GCIDA와 관련된 것은 G14(해양생태계), G15(육상생태계), G17(글로벌 파트너십)이다(제주도, 2024).

SDG 15(육상생태계)에 대한 현안목표, 협업목표, 대응목표를 정리하면 <표 3-34>와 같다. 이 중 세부목표 15-1-1이 GCIDA의 업무와 밀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4> 제주도 SDG(육상생태계) 세부목표 목록

구분	세부 목표명	비고
현안목표	15-1-1 생태계 우수지역 발굴 및 보호지역 지정확대	SDG 11
	15-1-2 멸종위기 생물종 모니터링 및 복원 강화	
	15-1-3 침입 외래종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	
	15-1-4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공림 관리	
	15-1-5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원헬스 구축	SDG 3
	15-1-6 마을별 생태자원 복원 및 활용	
협업목표	15-2-1 지하수보호구역 관리강화 프로그램	SDG 6
	15-2-2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복원 및 확장	SDG 13
	15-2-3 육상 오염감소를 통한 해양보호	SDG 14
대응목표	15-3-1 제주 숲 복원 및 관리 프로젝트	메가 트렌드 <기후변화>
	15-3-2 제주 바이오 에너지 파크 개발	메가 트렌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비전 공존, 행복

5P 전략



17개 목표



<그림 3-37>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나. 국가생물다양성 및 국가보호 지역 전략

1)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① 개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며, 2023년에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확정되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5년마다 수립)에 의한 법정 전략이다. 이 전략은 K-M GBF의 목표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구성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에 대한 대처,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보호 및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을 포함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의 배경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생물다양성은 자연 이용의 증가로 지속 감소 중이다. 국내 현황은 주요 생물 서식지(산림, 농경지) 감소 추세, 정책적 보호·관리가 필요한 보호종 수 지속 증가 등 생물다양성 악화가 우려된다(<그림 3-38>). 국민 대다수는 생물다양성·생물자원 보전·이용의 중요성을 알지만, 스스로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 주체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으나 이용정책 인식은 낮은 편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인지도(47%)도 기후변화 협약(75%)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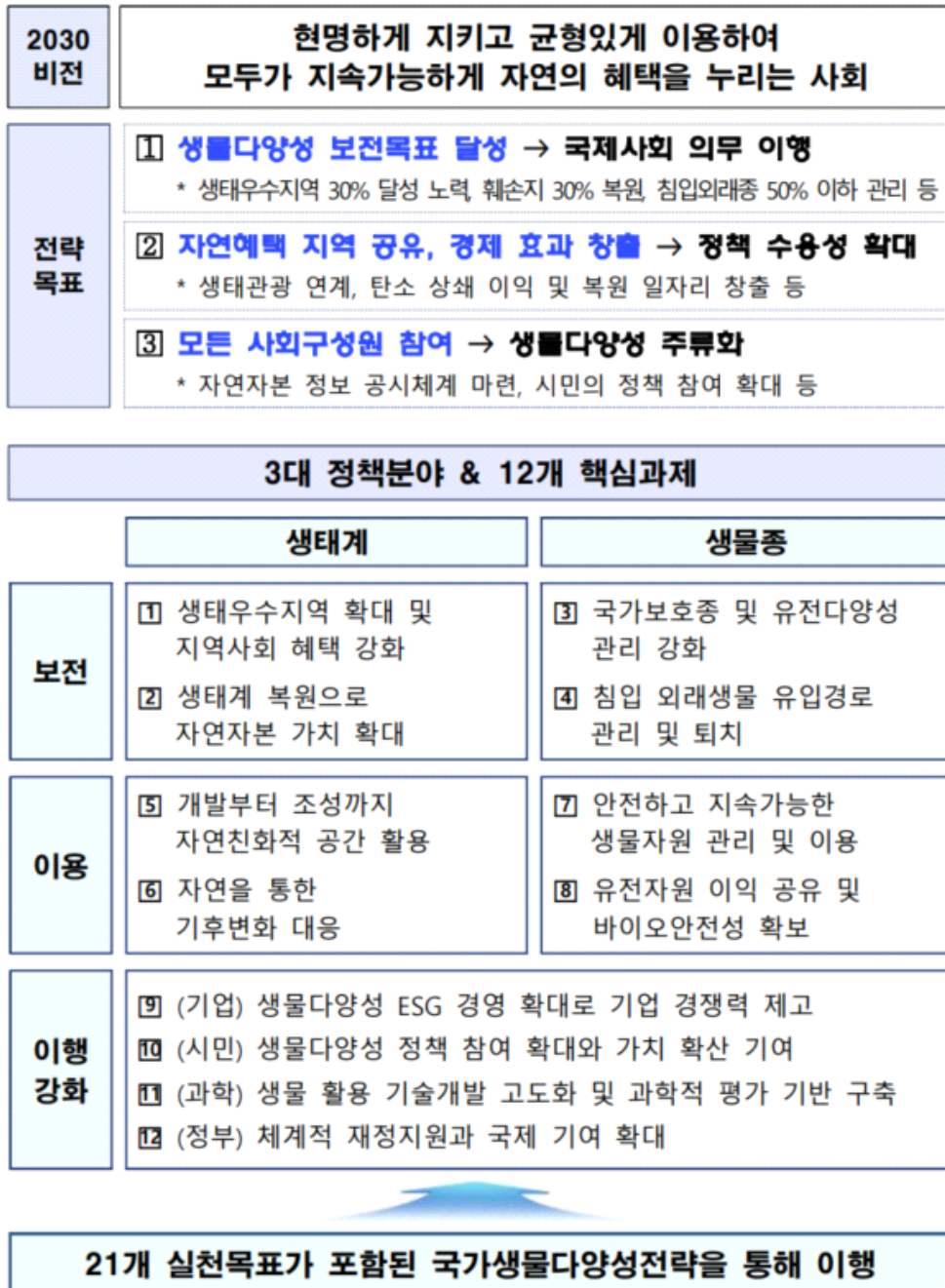
전 세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 이용은 증가(농작물, 어류, 에너지 등)했지만, 자연자본(생태계, 생물종 등)은 지속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2019 글로벌 생물다양성 평가). 최근 침입 외래종 유입, 기후변화 가속화 등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이 증가하면서 세계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침입 외래종 확산으로 연간 약 530조 원 경제적손실이 발생하고, 10년마다 4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IPBES, 2023).



<그림 3-38>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③ 비전, 목표 및 핵심 과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2030 비전을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 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설정하고, 3대 전략 목표와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그림 3-39>).



<그림 3-39>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2)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OECM(자연보존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및 OECM 확대, 관리 체계 개선,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 추진 배경⁶³⁾

- 국제 목표 달성 : K-M GBF에서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관리 목표(30by30)를 설정하였다(CBD COP15, '22.12.)
-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강화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HAC for N&P)에 우리나라 동참 선언하였다(P4G 서울 정상회의, '21.5). HAC for N&P에서는 '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전지역(보호지역+OECM)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사회와 약속 이행 : 국제사회와 약속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목표 설정, OECM 체계적 발굴 등재 방향 설정 등 국내 보호지역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 기대 효과 : 생물다양성 보전 증진,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지역 사회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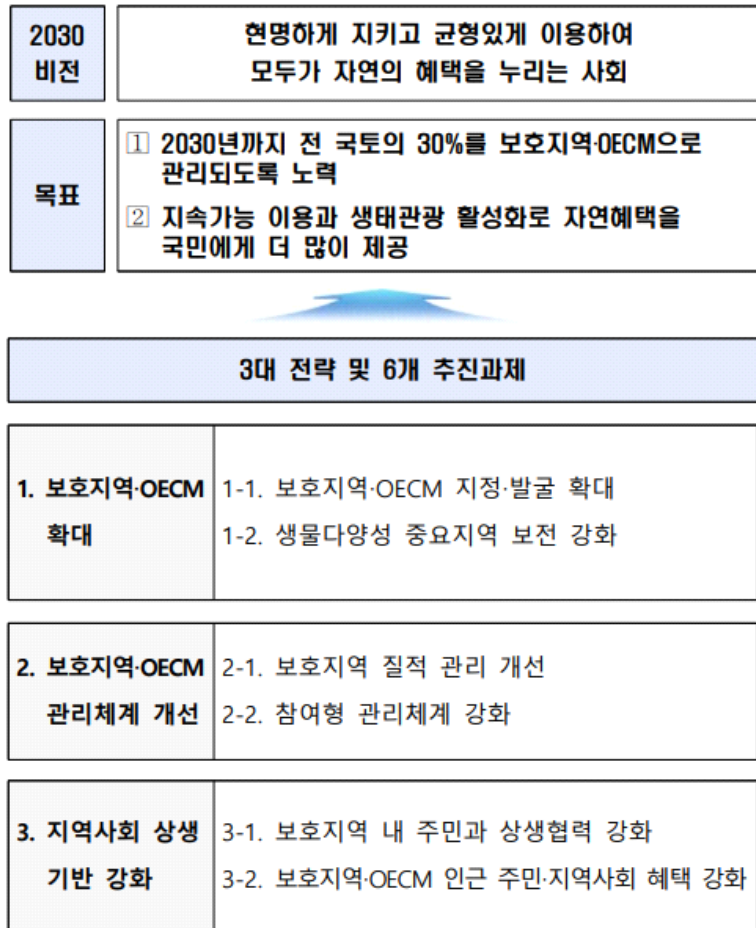
② 주요 내용

- 보호지역 및 OECM 확대 :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 중요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특히, 백두대간, 무인도서, 갯벌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 보호지역 및 OECM 관리 체계 개선 : 부처별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보호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에 지역 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③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3대 전략 및 6개 추진과제)

2030 국가보호지역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및 OECM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활용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더 많은 자연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하였다(<그림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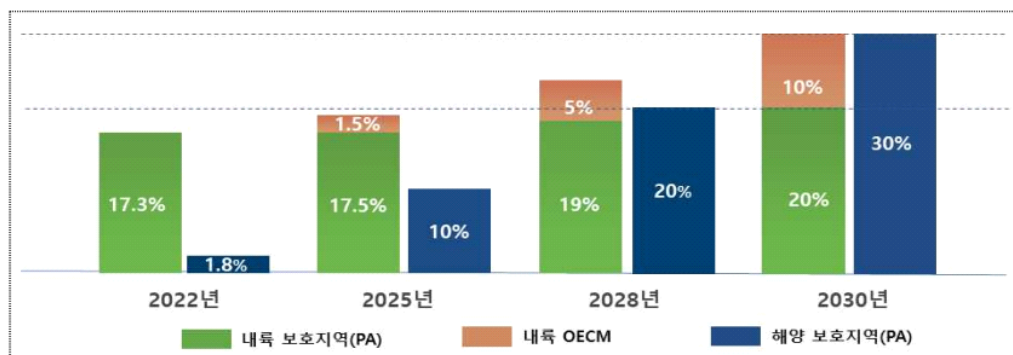
63) 관계부처 합동(2023) 2030 국가보호 지역 확대 로드맵.



<그림 3-40> 2030 국가보호 지역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

④ 국가 보전 목표 및 성과 지표

2030 보호지역 확대는 국가의 보전 목표를 내륙 보호지역(20%), 내륙 OECM(10%), 해양보호지역(30%)으로 명확히 분할 설정하였으며, 연도별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그림 3-41>).



<그림 3-41> 연도별 국가보호 지역 목표

⑤ 보호지역 관리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030 보호지역 확대 전략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더 참여시키고,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면서 예산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표 3-35>).

<표 3-35> 보호지역 관련 정책 패러다임 변화

구분	기존에는(As is)	앞으로(To be)
주체	정부 중심	정부 + 지자체·기업·민간
대상	법정 보호지역	법정 보호지역 + OECM
목표	보전 중심	보전 + 지속가능 이용 확대
체계	부처별	통합적 접근(통합 DB + 플랫폼)
접근	규제, 제한적 보상	자발적 참여+자율적 규제, 협력+지원+혜택 강화

⑥ 주요 성과지표

2030 보호지역 확대는 이행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보호지역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관여하는 관리 인력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표 3-36>).

<표 3-36> 2030 보호지역 확대의 주요 성과지표

전략	성과지표	現 상황('23.11)	목표('30)
1. 보호지역·OECM 확대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 (육상/해양)	17.3% / 1.8%	30% / 30%
	IUCN 녹색목록 인증 개소 수	3개소	15개소
2.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개선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습지·생태경관·산림유전자원·해양보호구역)	일부 이행	100%
	연간 보호지역·OECM 자원봉사자 수	약 43만명/년 ('21. 국립공원 57,125명)	40만명 이상/년 ('32. 국립공원 15만명 ↑)
3. 지역사회 상생기반강화	보호지역 내 생활여건 개선마을 (갯벌생태마을, 공원마을 등)	27개소	120개소
	자연기반 지속가능발전모델 수 (람사르습지도시, 생물권보전지역 등 중복 포함)	16개소	25개소

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환경 수도

1) 세계 환경 수도

세계 환경 수도⁶⁴⁾는 전 세계의 유명한 환경 도시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도시로서, 도시 내에서 사회·환경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회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전 세계에서 환경의 중심이 되는 기능적 의미의 수도를 말한다.

제주도의 환경수도 지정 필요성으로서,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등록, 2012세계자연보전 총회(WCC) 성공 개최 등으로 제주가 세계 환경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2 WCC에서 제주는 제주의 자연환경가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글로벌 수준을 갖춘 사회·경제·환경시스템으로 거듭나는 환경수도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제주특별자치도, 2021).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환경 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에 '2030 제주 세계 환경 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 세계 환경 수도 조성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는 <그림 3-42>와 같다.



<그림 3-42> 제주 세계 환경 수도 조성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제주도, 2021)

64) 서귀포시, 세계환경수란?

<https://seogwipo.go.kr/group/clean/environment/notice.htm?act=download&seq=37647532&page=24&no=1>. 2025.7.3. 접속.

3.4 국내외 유관 기관 현황

폭넓고 다양한 협력 가능 기관과 네트워크들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기관 및 네트워크의 성격과 GCIDA와 연관 가능성을 잘 파악하도록 한다.

3.4.1 유관 카테고리 2 센터(C2C) 현황

유네스코의 C2C는 유네스코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후원 기관 및 센터로서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지만, 법적으로 조직의 일부는 아니다. 역량 강화, 지식 공유, 연구 등을 통해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전략적 프로그램 목표 실행에 기여하기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이 제안하여 설립된다.

C2C는 물, 재생 에너지, 과학 정책, 생명공학, 지구과학, 기초 과학 및 원격 감지 분야의 방대한 관련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C2C의 목적에 근거해 유네스코 전략 프로그램 사업에 기여하고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자국 내 국내 활동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와는 독립적이지만 유네스코의 로고와 국제 및 정부 간 기구 및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특권 파트너이며 유네스코의 국제적 영향력과 소집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unesco.org/en/natural-sciences).

가. 국제보호지역 관련 국외 C2C

GCIDA의 사업 대상지인 국제보호지역, 즉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UGGp, 람사르습지와 관련한 C2C의 명단은 <표 3-37>와 같다. 유네스코 지정지역이 아닌 람사르습지를 주요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는 곳은 GCIDA 외에 없다.

현재 활동 중인 세계유산 관련 C2C는 9곳인데 자연과학 섹터 과학정책국에 소속된 HIST를 제외하고 모두 유네스코 문화 섹터 세계유산센터 소속이다. 이들 세계유산 관련 C2C들은 2024년 세계유산위원회부터 위원회 안건의 하나로 센터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밀접한 C2C는 2곳이며 유네스코 자연과학 섹터 생태지구과학국 소속이다.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을 사업대상으로 설립된 C2C는 없다.

<표 3-37> 유네스코 지정지역 관련 유네스코 C2C(2025년 5월 기준)

	센터명	소재지	설립년도	주요 목적
세계유산 관련 C2C				
1	아태지역 세계유산훈련연구센터 World Heritage Institute of Training and Research for the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HITR-AP)	중국 베이징	2007	주로 세계문화유산 연구와 교육
2	아프리카세계유산기금 African World Heritage Fund(AWHF)	남아프리카공화국 미드랜드	2007	아프리카지역 세계자연유산의 위기관리, 보전.관리 프로그램 등
3	아랍지역세계유산센터 Arab Regional Centre for World Heritage (ARC-WH)	바레인	2009	아랍지역 국가들을 위한 세계자연유산프로그램 활동 연계
4	사카테카스의 지역세계유산센터 Regional World Heritage Institute in Zacatecas	멕시코 사카테카스	2009	중남미 및 카리브해지역 문화유산 관련 활동
5	지역 세계유산 관리훈련센터 "Lucio Costa" Regional Heritage Management Training Centre "Lucio Costa"	브라질	2009	남미 및 아프리카 아시아 포르투갈어 사용국가 문화유산 관련
6	국제문화및자연유산공간기술센터 International Centre on Space Technologies for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HIST)	중국 베이징	2011	공간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전과 모니터링 기여
7	아태지역 세계자연유산 관리훈련센터 Centre on World Na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Training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WII-C2C)	인도 데라둔	2014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세계자연유산 관련 연구.교육
8	동남아시아의 인류 진화, 적응 및 확산 지역센터 Regional Centre for Human Evolution, Adaptations and Dispersals in South East Asia (CHEADSE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7	인간 진화에 대한 모든 연구 및 기타 과학 활동의 연계
9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WHIPIC)	대한민국 세종	2022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C2C				
1	지중해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센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4	지중해권역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과학연구, 지식생산, 훈련제공, 공동 프로그램 운영
2	생물권보전지역 연구소 Biosphere Reserves Institute	독일 에버스탈데	2024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발전과 미션을 지원

세계유산 관련 C2C 중에서 2014년 인도에 설립된 ‘아태지역 세계자연유산 관리훈련센터’는 세계문화유산이 아닌 세계자연유산 관련 연구·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C2C로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GCIDA 설립 준비 과정에서 개최된 국제 전문가 워크숍⁶⁵⁾에 유관 C2C의 대표로 참가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한 C2C 두 곳은 지중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곳과 글로벌한 곳이 각각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관측 조사를 지원하는 ‘국제문화 및 자연유산 공간기술센터(HIST)’는 일부 사업에서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3대 유네스코 지정지역을 다루기도 한다.

나. 국제보호지역 관련 C2C

GCIDA의 목적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 향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고려할 만한 C2C들의 현황을 아래에 소개한다.

- 아태지역 세계자연유산 관리·훈련센터

아태지역 세계자연유산 관리·훈련센터(Centre for World Na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Training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이하 인도 C2C)는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2014년 인도 환경산림부(Indi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와 유네스코가 협약을 체결하여 인도 데라둠(Dehradum)에 위치한 인도 야생동물연구소에 설립되었다. 기존 C2C 중에서 인도 C2C가 기능과 목적 면에서 가장 연관성이 큰 편이나, 아태지역 내 세계자연유산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으로 글로벌 센터인 GCIDA의 사업 지역과 범위가 다르다.

- 국제 지중해 생물권보전지역 센터

국제 지중해 생물권보전지역 센터(International Centre on Mediterranean Biosphere Reserve, 이하 지중해 C2C)는 2013년 유네스코의 설립 승인을 받아 2014년에 개소하였다. 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은 지중해 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지정 지역의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지중해 지역내 여러 기관과 정보 교환, 과학 지식 공유, 45개 지중해 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MAB 프로그램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지중해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Mediterranean Biosphere

65) 2017년 9월 15~16일 라마다호텔 플라자 제주에서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 전문가 워크숍

Reserves Network, MedMaB)를 운영한다.

- 생물권보전지역 연구소

생물권보전지역연구소(Biosphere Reserves Institute, 이하 RI)는 2019년 독일 에버스탈데 지속가능발전대학교(HNEE) 내 설치된 학술 기관으로 2023년 11월 13일 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C2C로 승인되었다. BRI의 핵심 목적은 교육, 훈련 및 연구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과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지역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독일 미하엘 주코프 재단(Michael Succow Foundation) 및 국립자연경관(National Natural Landscapes)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서 HNEE가 쌓아온 오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 과학·연구·문화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 국제 문화·자연유산 공간기술센터

국제 문화·자연유산 공간기술센터(International Centre on Space Technologies for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이하 HIST)는 201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C2C 설립 승인을 받았다. HIST는 공간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전과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설립된 세계 최초의 센터이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과학원 산하 지구관측 및 디지털지구센터(Center for Earth Observation and Digital Earth: CEODE)에 소재한다. HIST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들의 보존, 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공간기술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황산 대화(Huangshan Dialogue)'를 2014년 5월 처음 개최하였다. 유네스코 지정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 사용에 중점을 둔 "황산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5년 9월에 5차 황산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 국내 C2C

국내에 설립된 C2C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총 7곳이다. 국내 C2C들은 유사한 법·제도 아래 운영되고 있어 가장 늦게 설립된 GCIDA는 C2C 운영 관련 정보와 경험을 도움받을 수 있다(<표 3-38>참조).

이 중에서 GCIDA와 사업 연계성이나 협력 가능성을 측면에서 연관성이 큰 곳은 세계유산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와 국제보호지

역의 물 관련 사업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제주에서 개최하는 물 교육과정에 국제보호지역 관련 주제나 현장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와 협력해 세계유산 담당자 해석·설명 교육의 특별 과정으로 국제보호지역 통합 해석설명을 다루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38> 국내 유네스코 C2C 현황

	센터명	주관부처	설립년도	주요 목적
1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교육부	2000	평화문화 구축을 위해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교육 추진
2	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	국가유산청	2011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증진과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
3	국제무예센터 (ICM)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무예를 통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류의 삶에 기여
4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i-WSSM)	환경부	2017	인류의 공평하고 안전한 물 이용 및 삶의 질 개선
5	국제기록유산센터 (ICDH)	국가기록원	2020	지속 가능한 기록유산의 미래가치와 다양성 창조
6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WHIPIC)	국가유산청	2022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7	국제보호지역글로벌연구훈련센터 (GCIDA)	환경부	2024	환경보전 증진을 위함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향상

3.4.2 국내의 협력 가능 기관 및 네트워크 현황

다음으로 C2C 외에 GCIDA가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의 기관과 네트워크를 국제, 국내, 제주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국제 기관 및 네트워크

1) 유네스코 유관 기관 및 네트워크

유네스코 C2C로서 GCIDA는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유네스코 연관 기구, 네트워크 등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센터의 운영,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표 3-39>). 그중에서 밀접히 소통하고 교류할 대상은 *표시된 곳들이다.

각 기관 및 네트워크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협력 사항들을 <표 3-40>에 개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것 외에 목적과 사안에 따라 다른 내용과 방식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표 3-39> 협력 가능 유네스코 관련 기관·네트워크와 주요 협력 사항

구분		주요 협력 사항
유네스코	유네스코 지정지역 담당 부서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지구과학국(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세계유산센터(세계자연유산) 사업 기획 및 실행 관련 협의 및 자문 특히 생태지구과학국은 GCIDA 담당 부서로서 긴밀한 소통 및 정보교류 필요
	지역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의 유네스코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연계 및 협력 사업 추진 가능
	유네스코 지정지역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 및 학술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국제보호지역 관련 정책 및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GCIDA의 사업 방향 설정에 반영 GCIDA의 사업 성과를 각 국제보호지역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관계 형성 필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업무협약, 네트워크 형성 등 (상세한 현황은 3.5.1. 참고)
유네스코 프로그램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권보전지역 및 UGGp의 지역 또는 주제 네트워크 (네트워크 현황은 아래 표 참고) 유네스코 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s (ASPnet): 181개국 약 1만여 학교가 가입, 지속가능발전, 유산보전 등 유네스코 관련 가치 및 주제 활동
유니트윈/유네스코 석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석좌(UNESCO Chairs) :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대학교 총장 간의 협정에 의해 대학교나 여타 고등 교육/연구 기관에 설치된 교육·연구기관 유니트윈(UNITWIN, University Twining and Networking Scheme):여러 대학간에 구성된 자매결연 및 네트워크로 125개국에 1천여 석좌 및 45개 네트워크 참여. 한국에서는 9개 대학교 참여(한동대학교 UNITWIN Network on Capacity Buil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가 GCIDA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편임)
유네스코 회원국 및 국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GCIDA 사업 참가자 추천 및 홍보 등 유네스코 총회 및 집행이사회, 유네스코 지정지역 이사회 등에서 GCIDA 및 이의 사업에 대한 지지(advocate)

생물권보전지역, UGGp들은 지역별⁶⁶⁾ 또는 주제별 네트워크 아래 상호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역 네트워크만 설립되어 있다. 세계유산은 지역 네트워크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C2C 등이 네트워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들을 통해 GCIDA의 연구 및 훈련 사업의 주요 참여 및 수혜 대상인 유네스코 지정지역들과 연락 및 소통, 보통 정기적으로 열리는 네트워크 회의나 관련 행사에서 GCIDA 활동 소개 및 사업 참여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네트워크가 연구나 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동 연구·훈련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표 3-40> BR 및 UGGp의 지역 또는 주제 네트워크

유네스코 지정지역	지역 및 주제 네트워크
생물권보전 지역 ⁶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소지역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 EuroMAB • 아프리카 : AfriMAB • 아랍 : ArabMAB • 남미, 카리브해, 포르투갈, 스페인 : IberoMAB • 아태지역 내 소지역 네트워크(아태지역 네트워크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BRN(동북아), SeaBRnet(동남아), ACAM(남아시아,중아시아), PacMAB(태평양) ■ 주제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및 연안 : World Network of Island and Coastal Biosphere Reserves (WNICBR) • 산 : World Network of Mountain Biosphere Reserves (WNMBR) • 지중해 : Mediterranean Biosphere Reserves Network (MedMaB) • 북유럽 : NordMAB • 동굴 : CaveMAB • 포르투갈어권 :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in the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Community (CPLP MAB)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⁶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 Asian UNESCO Global Geoparks: Asia Pacific Geoparks Network (APGN) • 유럽 :European UNESCO Global Geoparks: European Geoparks Network (EGN) • 남미 및 카리브해 :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UNESCO Global Geoparks: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Geopark Network (LACGN) • 아프리카 : African UNESCO Global Geoparks Network (AUGGN)

66) 유네스코는 지역(region)을 5개, 즉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로 나누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6개(유럽을 서유럽, 동유럽으로 구분)로 나누기도 한다.

67) <https://www.unesco.org/en/mab/networks>

2) 여타 유관 국제기관

유네스코와 연관되지 않는 여타 주요 국제기관과 주요 협력 사항은 <표 3-41>와 같다.

<표 3-41> 여타 협력 가능 주요 기관과 협력 사항

구분	주요 협력 사항
람사르협약 사무국 및 지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람사르협약 사무국 : 람사르습지 관련 협력 방향 및 사업 자문 등 • 람사르지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목적 및 운영 면에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와 유사성 있음 - 4개 람사르지역센터: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순천), 중·서아시아 람사르지역 연구훈련센터(이란 람사르), 동아프리카 람사르센터(우간다), 서반구 람사르 훈련·연구 지역센터(파나마)
IU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일반 및 세계유산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개발 • IUCN 협력은 세계유산 뿐만 아니라 자연기반해법, 네이처 포지티브 등 IUCN의 여타 연관 주제 및 부서와 협력 확대 • IUCN 협력시 환경부 고위협력관과 필요시 소통 및 자문하고 한국의 IUCN 협력사업과 연계 및 조율 고려
UNEP-WCMC(세계 보전모니터링센터), ICCROM, ICOM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P-WCMC : 글로벌 IDA 현황 및 공간정보 관련 협력 •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 세계유산 관련 교육훈련 관련 전문성·노하우 자문 및 협력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복합유산, 문화경관 등 자연유산 요소 관련 자문 및 협력
국내 소재 국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F(Green Climate Fund),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유네스코와 협력 기반 조성 •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 철새 및 습지 관련 국제협력

나. 국내 협력 가능 대상 기관

국내에 GCIDA 운영과 사업에 연관된 여러 기관들이 있다. 특히, 환경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지정지역 국가위원회, 국내 소재 C2C 등과 같이 유네스코 및 국제보호지역 관련한 기관들은 초기 센터 운영 단계에서 특히 밀

68) <https://www.unesco.org/en/igpp/geoparks>

접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협력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여타 정부 부처, 학회, NGO 등 여러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표 3-42> 참조).

<표 3-42> 국내 협력 가능 대상 및 주요 협력 사항

구분	주요 협력 사항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GCIDA의 운영 감독기관으로서 긴밀한 소통 및 협조요청 관련 국가정책(특히 국제목표 기여, 개도국 지원 등)에 센터 사업 연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C2C 관련 행정 사항 자문 및 협조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파견 주재관(과학 프로그램 담당)과 주요 정보 공유
유네스코 지정지역 국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국가지질공원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해당 유네스코 지정지역의 동향 및 정보 교류, 행사(심포지엄 등) 및 부대행사 공동개최 등
국내 소재 C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C2C 기관 운영 관련 정보교류 일부 센터의 공동·연관 주제 관련 협력사업 개발
공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⁶⁹, 국립생물자원관, KEI 등 연구기관 : 자문 및 협력사업 개발 KOICA : 국제보호지역,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Green Economy) 관련 ODA 사업 추진
국제보호지역 관련 대학교 및 학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석박사 과정 (세계유산보존, 세계유산활용 전공) 국내 소재 유관 주제를 다루는 유네스코 석좌 및 유니트윈 등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R, ESG,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관련 센터 사업 지원 또는 협력사업 개발

다. 제주도 기관 및 단체

GCIDA가 소재한 제주도 내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센터 사업의 개발 및 수행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표 3-43> 참조).

69) 현재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에 직원 파견하여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사업 관련 협력 추진.

<표 3-43> 협력 가능한 제주도 기관 및 단체와 주요 협력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국 : GCIDA 주관 국으로서 센터의 운영 관련 지원 및 협조, 제주도 내 람사르습지 관련 협력 • 세계유산본부 : 제주도 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관리 관련 • 제주도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위원회 (30명, 세계유산본부 운영) : 센터 사업 홍보 및 참여 •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 사무국 : 세계유산본부에서 운영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국제평화재단의 한 기구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보호지역 인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공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 가능 •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 및 경험 교류 등
도내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 등 도내 고등교육기관 : 국제보호지역 관련 유네스코 석좌 설립 추진, 장기적으로 학위과정 개발 및 공동운영 모색 • 제주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 GCIDA의 사업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의 연구 및 교육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물박물관 글로벌 네트워크(UNESCO the Global Network of Water Museums)에 가입⁷⁰⁾. 공사-센터 협력으로 국제지원사업 또는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개발.
여타 도내 국제보호지역 관련 기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도내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여가능한 GCIDA 사업(특히,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역량형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생태관광협회, 세계자연유산해설사회, 제주도 지질공원해설사회 등

70) 2018년 유네스코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해 5년간 ‘사회를 위한 지구과학: 제주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IGGP)’ 을 후원하였다. IGGP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지구과학 분야 중 특히, 수자원 분야 교육과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3.5 종합적 시사점

- IDA 관리 역량 강화 필요: 지역 및 국가 간의 IDA 관리 역량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GCIDA는 현장 관리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MIDAs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 필요: IDA 별 정보가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MIDAs에 대한 정보 접근에 불편함이 있다. 이에 GCIDA는 4대 IDA 및 MIDAs의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공유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MIDAs 네트워크 구축 필요: 개별 IDA 내 네트워크는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으나 MIDAs 간 교류·협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GCIDA는 MIDAs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기적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MIDAs 관계자들 간의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MIDAs 유기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중첩 지정 사례의 증가에 따라 관리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GCIDA는 MIDAs의 유기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 유네스코와의 연계 강화 필요: GCIDA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서 UNESCO의 전략 및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성평등, 청년 등 유네스코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하며, 유네스코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사업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04

GCIDA 미션, 비전 및 전략

4. GCIDA 미션 비전 가치 및 핵심과제

4.1 GCIDA SWOT 분석

4.1.1 GCIDA 초기 운영 현황 진단

가. 조직 및 운영 진단

GCIDA는 2024년 공식 출범과 함께 환경부 산하의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유네스코와의 공식 협정을 통해 유네스코 C2C로 지정되었다. 비영리 공익 기관으로서, 설립 초기에는 기본적인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조직은 기획행정, 연구개발, 훈련교류 등 3개 주요 기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는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된 상태다. 총 현원은 12명(센터장과 파견 인력 포함)으로, 특히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향후에는 연구직, 국제협력 코디네이터, 교육 콘텐츠 개발자 등 핵심 인력의 단계적 확충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인건비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GCIDA, 2024).

현재는 제주시 내 임시 청사를 통해 행정 및 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 워크숍, 연구 등 핵심 사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독립 청사 확보 또는 제주 내 교육 인프라와의 연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업무 시스템은 온라인 협업 및 자료 공유 체계를 기본으로 구축하였고, 유네스코 및 국내 협력 기관과의 정기 소통 채널도 개설 중이다.

나. 예산 및 재정 운영 여건

GCIDA의 2024년 예산은 총 1,195백만 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업 집행을 위한 직접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5년 예산 계획 역시 유사한 구조로 편성되어 있어 현재는 조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원 확보에 머물고 있다(GCIDA, 2024).

재정 구조는 주로 법인 설립과 인프라 구축 등 기초 비용에 집중돼 있어, 국제 교육·훈련, 정책 연구, 협력 프로그램 등 GCIDA의 핵심 기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한계는 센터의 정체성과 실효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GCIDA가 국제기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재정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첫째, 기능별 목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 연구, 국제협력 등 각 기능별 예산 요구를 반영한 설계를 통해 국내외 기금,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등 다원화된 재원 조달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성과 기반 예산 배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부서별 사업 성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책무성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국제기구와의 공동 사업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IUCN, 각국 보호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프로젝트형 예산 운영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전략이 실행되어야만 GCIDA는 명실상부한 유네스코 후원 보호지역 전문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현황

GCIDA는 설립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보호지역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의 정체성과 핵심 기능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실행 프로그램으로는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미래세대 보호지역 아카데미, 해설사 워크숍,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등이 있으며, 이들은 GCIDA의 고유 역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GCIDA의 교육, 정책 연구, 국제협력 기능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하며, 향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첫째,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이다. 명확한 사업 목표, 대상별 전략, 연차별 확장 계획을 포함한 중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이다. 정책기획자, 교육 운영자, 국제협력 코디

네이터 등 기능별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안정적 예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GCIDA가 국제보호지역 분야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본부, 관련 C2C, IUCN, ICCROM 등 핵심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 및 시범사업을 기획하여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져야 한다.

GCIDA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단순한 교육·실행 기관을 넘어, 국제보호지역 관련 정책 생산과 확산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라. 전략체계 및 비전 구현 분석

GCIDA의 전략체계는 '(다중)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조화롭고 통합적인 연구·훈련 제공'이라는 핵심 미션을 이행하기 위해 연구, 교육, 국제협력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적 방향은 유네스코 협정서 및 정관에 명시된 국제기구로서의 핵심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실행 전문 인력 확보는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GCIDA는 단순한 실행 기관을 넘어, 보호지역 정책 기획과 국제적 지식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중장기 로드맵은 전략 목표를 시계열적으로 구조화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며, 실행 인력의 전문화는 조직의 내실화를 강화한다. 성과 기반 체계는 조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제적 신뢰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략체계는 GCIDA가 설립 목적에 따라 MIDA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보호지역 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GCIDA는 유네스코 보호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축이자, 아시아 지역 MIDAs 협력의 허브로 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정책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마. 진단 종합 및 정책 제언

GCIDA는 국제기구로서의 제도적 위상을 갖추고 공식 출범했지만, 조직 구조, 인력, 예산 등 핵심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구, 훈련,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목적 예산이 부족해 조직의 자율성과 전략적 실행력에 제약이 따른다. 공간과 시스템 역시 최소한의 기능은 갖추고 있으나, 프로그램 확장과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조직 내 실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능별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사업 기획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전략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GCIDA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재정 안정성과 목적 예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하여 확보하고, 다년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기능 중심의 예산 배분과 성과 기반 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부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유네스코, IUCN, 아시아 지역 MIDAs 기관들과 공동 연구, 공동 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GCIDA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보호지역 정책의 생산과 확산을 이끄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경우, GCIDA는 국제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유네스코 보호지역 네트워크 내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4.1.2 이해관계자 분석

가. 필요성 및 연계 구조

GCIDA는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와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 C2C로,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 분석은 단순한 협력 대상 분류를 넘어, 각 주체가 GCIDA에 미치

는 영향력과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GCIDA는 유네스코 본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국제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다층적인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법적으로는 독립법인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환경부의 정책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국제기구와 연계된 C2C로서 국제적 책무도 가진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다. 주요 기능은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연구, 관리자 교육, 정보 공유 허브 운영, 국제협력 촉진 등이다.

GCIDA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MIDAs 관련 정책·훈련·협력의 과학기반 거점으로 활동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유네스코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준을 따르면서도,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정책 틀 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성과를 내야 하는 복합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해관계자는 기능별 연계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과 기대를 지닌다. 유네스코는 전략 방향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이며, 환경부는 예산과 정책 기반을 제공하는 주요 지원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GCIDA의 물리적 거점이자 지역 연계의 핵심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는 GCIDA의 사회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기관은 GCIDA가 국제협력 거점으로 기능하는 데 핵심적 파트너로 작용한다.

따라서 GCIDA는 이러한 다층적 이해관계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렬함으로써, 전략 실행력 확보, 기관 정체성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를 실현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 분류 및 특성 분석

1) 1차 이해관계자

1차 이해관계자는 GCIDA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핵심 의사결정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주체들이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해당한다.

유네스코는 GCIDA가 국제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과 정체성을 부여하며, 국제적 신뢰성과 글로벌 적합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C2C 지정에 따른 협정문, 정관상의 임무 조항, 협력범위 등 제도적 문서를 통해 뒷받침된다.

환경부는 GCIDA의 주요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관이 국내 보호지역 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중앙정부 기관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지침, 환경정책기본계획 등과 긴밀히 연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GCIDA에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핵심 기초자치단체다. 지역사회 신뢰 구축, 지역 기반 협력사업 추진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GCIDA는 이러한 1차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전략 방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식 협의체, 전략협력위원회, 정례보고 체계 등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2차 이해관계자

2차 이해관계자는 GCIDA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 협력자이자 지식 생산 파트너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기관들이다. 이에는 국내외 협력기관(예: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제주연구원), 연구기관(예: KEI, IUCN, UNESCO MAB 관련 센터), 국제네트워크(예: WCPA, ICCA Consortium, IUCN-APAP 등)가 포함된다.

협력기관은 프로그램 실행과 교육사업 공동 운영을 통해 GCIDA의 실무역량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며, 연구기관은 정책 설계와 과학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 국제네트워크는 GCIDA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지원하고, 공동 연구 및 글로벌 사업 추진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들과의 협력은 MOU 체결, 공동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제보고서 공동 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GCIDA는 국제사회 내 정책 확산과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3) 3차 이해관계자

3차 이해관계자는 GCIDA 활동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형성하는 핵심 집단으로, 제주 지역 주민, 청년, 시민사회단체, 보호지역 해설사와 관리자 등 교육 수요자와 현장 실천 주체가 포함된다.

이들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가자에 그치지 않고, GCIDA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 전략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여자다. GCIDA는 이들과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라운드테이블, 정례 간담회, 민관 공동 운영 워크숍 등을

제도화하고, 이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해설사와 함께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청년 대상 보호지역 연계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GCIDA가 지역사회와 상호 성장하는 국제기구로 자리 잡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4.1.3 GCIDA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분석 분석

가. GCIDA 설립 배경 및 핵심 역할

GCIDA는 제주도의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 특성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국제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 교육·훈련, 정책 연구, 지식 확산, 국제 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등 주요 국제보호지역이 모두 중첩된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GCIDA는 이러한 독특한 기반 위에서 국제보호지역 간 시너지 창출과 국가 간 협력을 이끄는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나. 내부환경 분석

1) 조직 정체성과 인적 기반

GCIDA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법인으로, 기획행정, 연구개발, 훈련교류의 세 가지 기능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상근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연구, 훈련, 국제협력 등 핵심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호지역 연구, 국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특수법인 전환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2) 물리적 인프라와 행정체계

현재 GCIDA는 제주시에 위치한 임시 청사에서 기본 행정과 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 교육훈련 및 연구 공간은 확보되지 않아 주요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다만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SNS 채널 등 정보 관리 및 소통 인프라는 조속히 마련된 상황이다. 제주도와 환경부의 행정·재정

적 지원은 조직 운영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예산 및 재정 여건

GCIDA의 2024년 총예산은 1,195백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인건비 및 운영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 연구, 국제협력과 같은 주요 기능에 투입 가능한 예산은 제한적이다. GCIDA는 향후 기능별 목적예산 도입, 외부 공동기금 연계, 유네스코 관련 기금 확보 등을 통해 예산 구조를 다변화하고, 성과 기반 예산 운영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주요 사업 운영 현황

GCIDA는 설립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해설사 교육,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등 시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조직의 핵심 기능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GCIDA의 대외적 인식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 외부 환경 분석

1) 국제 정책 및 기준 변화

UN SDGs, CBD, UNFCCC, 세계유산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은 보호지역을 단순 보전 공간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회복,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간주한다. SDGs 13번(기후변화 대응)과 15번(육상 생태계 보전)은 보호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CBD의 30×30 목표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 강화를 요구한다. GCIDA는 이러한 국제 정책 변화에 맞춰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기술기반 혁신과 디지털 전환

AI, 드론, 원격 감지, 생태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은 보호지역 관리 방식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기존의 인력 중심 방식은 효율성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드론 기반 실시간 감시, AI 생물종 식별, GIS 생태 변화 시각화 등 과학기반의 정밀 관리가 가능해졌다. GCIDA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맞춰 데이터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관리자 대상 기술 훈련을 추진하고, 원격교육 및 VR 기반 훈련을 통해 국제 교육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국제재원 및 기후금융 연계

GEF⁷¹⁾와 GCF⁷²⁾ 등 국제기금은 생물다양성과 기후 대응 분야에서 보호지역 사업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GCIDA는 유네스코 C2C로서 국제보호지역 관련 글로벌 의제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러므로 GCIDA가 단독으로 직접 사업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행기구 자격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환경부, KOICA, UNEP 등 공인된 기관과의 협력 하에 사업 제안 또는 공동 이행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GEF·GCF 등 국제기금의 전략 목표와 부합하는 교육, 자문, 정책지원 사업을 유관 이행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시사점 및 전략 방향

1) GCIDA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보

GCIDA는 국제보호지역(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랍사르습지)이 한 지역(제주)에 중첩된 MIDAs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러한 복합 지정의 현장 관리 경험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GCIDA의 고유한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다.

GCIDA는 단순한 교육·연구기관을 넘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호지역 통합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IDAs 기반의 실무 경험을 분석해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거나, 통합관리 사례를 정책연구로 확장하여 개발도상국 보호지역 관리자에게 전파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GCIDA의 모든 전략과 사업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작용하며, GCIDA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보호지역 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 실행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

GCIDA는 행정적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론적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실용적 지침서, 교육자료, 정책 매뉴얼 등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71)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은 1991년 설립된 다자 환경 금융 메커니즘으로, 기후변화·생물다양성·국제수역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재원을 지원한다.

72)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2010년 UNFCCC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설립이 결정된 국제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GCIDA는 정책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교육·연구·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실행하고 확산시키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실행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이 갖는 본질적 의미다.

3) 국제 연계형 플랫폼 구축

GCIDA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IUCN, WCPA 등 주요 국제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국제회의·워크숍을 공동 주최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GCIDA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상시적인 교류 채널을 운영해야 하며, 정책연구 성과나 교육 콘텐츠 등 전문성 있는 결과물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GCIDA는 향후 보호지역 관련 국제협력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4) 중장기 로드맵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GCIDA가 국제기구로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3년,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이 로드맵은 교육, 연구, 국제협력 등 GCIDA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확장·연계해 나갈 것인지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를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체 환류 체계’의 구축이 핵심이다. 이 체계를 통해 GCIDA는 단순 사업기관이 아니라, 학습하고 발전하는 국제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구성원은 자신의 활동이 조직 전체의 전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이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4.1.4 GCIDA SWOT 분석

가. 내부 강점(Strengths)

1) MIDAs 기반의 차별화된 기관 정체성

GCIDA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네 가지 국제보호지역이 하나의 지역(제주)에 중첩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와 같은 지리적·제도적 특성

은 GCIDA 설립의 정당성과 국제적 독창성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MIDAs 기반은 GCIDA가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 모델을 국제사회에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토대이며, 이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와 정책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제공한다. 특히 보호지역마다 상이한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통합해 운영해 온 제주도의 경험은, GCIDA가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조정과 협력 모델을 세계에 확산하는 데 활용 가능한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MIDAs는 GCIDA가 단순한 교육·연수 기관을 넘어,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의 실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핵심 정체성 기반이라 할 수 있다.

2) 유네스코 C2C로서의 공식 지위 확보

GCIDA는 유네스코가 공식 인정한 C2C로서, 국제 연구·훈련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구이다.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부여하는 C2C 지위는 제한적이며, 특히 자연유산과 보호지역 분야에서는 GCIDA가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식 지위는 GCIDA를 국내 기관이 아닌, 국제적 책무와 위상을 지닌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립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국제기금 연계,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국제 정책 전파 등에서도 실질적 우위를 제공한다.

GCIDA는 이 제도적 기반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과 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3) 정책·연구·훈련·협력의 연계형 구조 구축

GCIDA는 정책개발, 연구, 교육훈련, 국제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관이다. 이러한 통합형 운영 방식은 보호지역처럼 다차원적 과제를 다룰 때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하며, GCIDA의 주요 강점 중 하나다.

이 네 가지 기능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계유산협약,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협약의 통합적 이행 방향과도 부합하며, GCIDA의 국제적 기여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GCIDA는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하며,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가 다른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업 기획과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보호지역 통합관리 역량 강화라는 GCIDA의 미션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4) 설립 초기 확보된 기반 인프라와 인력 구조

GCIDA는 설립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와 기초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센터는 사무 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 기본적인 업무 및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GCIDA가 국제기구로서 기능을 본격화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GCIDA는 이와 같은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보강, 디지털 기반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GCIDA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환경부-제주도 지원에 따른 재정 안정성

GCIDA는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대부분의 기관이 단일 재원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해 예산 연속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 면에서 뚜렷한 강점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체계는 GCIDA의 국제협력, 훈련 사업,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 기반이다. GCIDA 구성원들은 이러한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각각의 재원 제공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의 확장성과 사업 다변화를 고려해 외부 재원 확보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나. 내부 약점(Weaknesses)

1) 조직의 법적 불완전성

GCIDA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나, 국내 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유네스코 C2C로서 수행해야 할 국제적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GCIDA는 향후 관계부처 및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법적 지위를 국제기구 수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은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논의와 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국제협력 전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GCIDA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로서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국제협력 인력의 부족과 외국어 활용 능력의 미흡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국제회의 참석, 공동연구 추진, 외국기관과의 문서 협약 체결,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업무가 외국어(특히 영어)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담당할 충분한 전문인력이 현재로서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인적 기반의 취약성은 GCIDA의 국제 신뢰도와 향후 유네스코 내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CIDA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국제역량 강화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구성원들 또한 이와 같은 약점을 인지하고, 국제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 국제행정의 기본 이해,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경험 축적 등 자기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통합 콘텐츠의 정형화 부족

GCIDA는 다양한 보호지역 관련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물과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통합·표준화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 자료, 정책 보고서, 협력 지침 등 각종 결과물이 부서별, 담당자별로 상이한 형식과 용어로 관리되어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GCIDA는 기관 설립 초기부터 통합 콘텐츠 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자료와 교육 콘텐츠, 정책 결과물을 공통의 기준과 형식에 따라 구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관리 시스템 도입, 공용 템플릿 정비, 기능 부문 간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은 콘텐츠의 정형화가 단순 편집 문제가 아닌, 기관의 대외적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4) 인력 규모의 제약과 확장성의 불확실성

GCIDA는 국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인력 규모는 행정과 기본 사업 운영을 감당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정책연구, 교육훈련, 국제협력, 기획조정 등 핵심 기능에 전문 인력을 고르게 배치하기엔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유네스코 C2C로서 수행해야 할 글로벌 프로그램은 높은 복잡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므로, 안정적인 인력 확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GCIDA의 위상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한된 인력 구조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력운영을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기금 유치, 협력기관과의 연계 등을 활용한 유연한 인력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

GCIDA 구성원들도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기능 업무수행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기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5)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구조 불완전

GCIDA는 보호지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교육·연구·정책 협력에서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명확한 협업 체계나 파트너십 구조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GCIDA의 역할이 다학제적이고 전국적 범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업무분장과 공동기획 체계가 미흡하여 협업의 범위와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유관기관과의 역할 구분 및 협력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기 협업회의, 공동연구, 연수 프로젝트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공동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GCIDA 구성원들도 이 협업 구조의 미비가 단순한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성과와 성장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사안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점점 확대에 나서야 한다.

다. 외부 기회(Opportunities)

1)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수요 확대

세계유산협약, 생물다양성협약(CBD), 기후변화협약(UNFCCC),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등 국제협약에서 보호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며, 통합관리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과 기후 대응,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MIDAs처럼 보호 지위가 중첩된 지역은 여러 국제협약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므로, 통합관리 모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또한 국제적으로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GCIDA는 유네스코와의 공식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와 협업할 수 있

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사업 확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GCIDA 구성원은 이와 같은 국제 수요 확대를 전략적으로 반영하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의 연계 가능성

후 변화는 글로벌 환경 이슈로, 보호지역은 탄소흡수, 생물다양성 유지, 생태 회복력을 제공하는 주요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UNFCCC 등 국제협약은 보호지역을 기반으로 한 적응과 완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연기반해법(NbS)을 통한 보호지역 통합관리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GCIDA는 정책연구, 교육훈련,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직접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GCIDA의 기관 정체성과도 일치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정책기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는 보호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GCIDA의 전략과 연결해야 한다.

3) 디지털 기반 기술의 훈련·연구 적용 확대

디지털 기술은 보호지역 관련 교육과 연구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VR·AR 체험, GIS 및 원격탐사 기술은 국제 훈련과 생태계 연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GCIDA는 이 같은 기술을 훈련과 정책연구에 접목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연구와 자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면 개발도상국 관리자도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생태 정보로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는 GCIDA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기회이며, 유네스코 등과의 전략적 연계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운영 도구가 아니라 GCIDA의 국제적 소통과 기여를 확대하는 핵심 자산이 되어야 한다.

4) 국제 환경재정의 보전분야 집중화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흡수, 지역 지속가능발전 등 다기능적 효과를 갖춰 국제 재정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GCIDA의 교육, 정책, 협력 중심 사업은 국제기금의 투자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환경부, KOICA,

UNEP 등 공인된 기관과의 협력 하에 사업 제안 또는 공동 이행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상 역량 강화, 자연기반해법(NbS) 적용, 정책로드맵 기획 등은 GCIDA가 추진할 수 있는 대표 사업 유형이다. 이러한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트너십 확대, 제안서 개발 역량 강화, 국제기금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유네스코·IUCN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 강화 가능성

GCIDA는 유네스코 C2C로서 유네스코와 IUCN 등 국제보호지역 네트워크와 제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세계유산센터(WHC), MAB, IUCN-WCPA 등은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 기준 설정의 핵심기관으로, GCIDA와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이 크다.

특히 MIDAs 통합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GCIDA는 국제 표준 정립 과정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의 위상과 정책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협력 채널 구축, 정기 교류, 공동 사업 제안 등 실행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 외부 위협(Threats)

1) 국제보호지역 정책의 정치화 및 지정 무력화

최근 국제보호지역 지정은 과학적 기준보다 정치·경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보호지역 확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경제개발 명분으로 기존 보호지역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보호지역의 객관성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국제기구 간 협력과 자원 배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MIDAs처럼 국제 기준과 협정이 얽힌 복합 보호지역은 정치적 왜곡의 위험이 더 크다. GCIDA는 이에 대응해 과학 기반의 통합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지정의 정당성과 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따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

2) 유사 기능 기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

보호지역 관련 교육·연구·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외 기관이 이미 존재하며, GCIDA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국내 기관은 물론, 유네스코 산하 다른 C2C나 IUCN 계열 국제기관들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GCIDA는 기능 중복과 차별성 부족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할 중복은 자원 경쟁, 정책 연계 혼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설립 초기에는 정체성이 모호해질 위험이 크다. GCIDA는 MIDAs 유기적 관리라는 고유한 전문성과 유네스코 C2C라는 공식 지위를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 기관과는 기능 조정과 공동 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독자적 정체성을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

3) ODA 환경 변화 및 자원 축소 리스크

최근 글로벌 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환경은 정치·경제적 요인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GCIDA의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재정 전략을 강화하면서 ODA 예산을 줄이거나, 보건·안보 등 다른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 분야, 특히 보호지역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자원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GCIDA는 재정 다변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민관 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국제재단 연계, 유료 프로그램 운영 등 새로운 재정 모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환경재정 플랫폼과의 제휴, 성과기반의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외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성원들은 ODA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차원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다원적이고 유연한 자원 조달 전략 수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지자체 주도의 조직운영 한계

최근 국제 ODA 환경은 각국의 재정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보건, 안보 등 타 분야로의 자원 이동이 강화되면서, 보호지역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재정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GCIDA는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과 교육훈련을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어, ODA 흐름의 축소는 중장기 사업 실행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

축소는 프로그램 위축, 파트너십 약화,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GCIDA는 민관 협력, 유료 프로그램 도입, 국제기구 연계 등 재정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은 ODA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원적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 재정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

5) 국제기구 내의 영향력 미확보 시 역량 약화

GCIDA는 유네스코 C2C 지위를 갖고 있으나, 국제기구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질적 영향력은 정책 개발 참여, 의사결정 회의 개입, 협력 프로그램 주도 등 활동 성과에 의해 좌우된다.

이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GCIDA는 국제 협력에서 주변화될 수 있으며, 정책 반영력, 재원 확보, 사업 주관 기회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제기구들은 신뢰성과 실적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하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협력 기회도 축소된다.

GCIDA는 국제회의 및 전략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프로젝트 성과를 축적하며 국제기구 내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아젠다와의 정합성 확보, 정책 보고서 참여,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4.1.5 GCIDA SWOT 분석결과 대응 전략

가. S-O 전략

1) 유네스코 C2C 지위 활용,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 방안 확산

GCIDA는 유네스코 C2C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보호지역 통합관리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기준과 연계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MIDAs 중심 유기적 관리 가이드 라인을 글로벌 훈련 콘텐츠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정책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2) MIDAs 전문성 기반 공동연구 파트너십

GCIDA는 MIDAs의 고유성과 실증 기반 전문성을 활용해 IUCN, WHC 등 국제기구와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국제 공동연구, 정책워크숍, 관리자 교육을

통해 MIDAs 모델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각국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GCIDA는 제도적 파트너십을 넓히고 장기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도 동시에 가능하다.

3)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GCIDA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보호지역 관리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온라인 콘텐츠 개발, 다국어 번역, LMS 구축을 통해 국제 공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향후 공동캠퍼스 모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제 지식공유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협력국과의 지속 가능한 연결 기반을 강화한다.

나. S-T 전략

1) MIDAs 모델의 국제정책화 추진

GCIDA는 제주 MIDAs 사례를 바탕으로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유네스코·CBD 등과 협력해 보급한다. 통합관리 모델을 정책화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보호지역 정치화를 완화하고, GCIDA가 국제 기준 제시 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GCIDA 정체성 명확화

국내외 유사기관과의 기능 중복은 GCIDA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GCIDA는 내부 워크숍과 외부 기관 분석을 통해 기능 재정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 역할을 대외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차별화된 전략 제시를 통해 협업 효율을 높이고, 기관의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기능별 시너지 제고를 통해 운영 효율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3) 국제협력 자원 다변화

현재 GCIDA는 환경부와 제주도로부터 안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장기적 국제협력을 위해 외부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KOICA, 민간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기금 연계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관협력 기반 수익모델도 모색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기금 제안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관의 재정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된다.

다. W-O 전략

1) 다국어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GCIDA는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하는 국제기구이지만, 현재 국제업무에 담당할 전문인력과 외국어 역량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국어 인턴십 도입, 해외 경력자 채용,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내부 직원 대상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외교문서 작성 등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GCIDA는 글로벌 협력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해외사업 수행력과 기관의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2) 콘텐츠의 국제표준화 추진

GCIDA가 생산한 교육·정책 콘텐츠는 아직 표준화와 국제화 수준이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주제(예: MIDAs 관리, 지속가능 관광 등)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정형화한다. 디지털 기반 학습 플랫폼(LMS)도 함께 구축하여 글로벌 확산을 유도한다. 유네스코, IUCN 등 국제 표준을 참조함으로써 콘텐츠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GCIDA를 국제보호지역 지식허브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3) 유네스코 협정 기반 체계 및 매뉴얼 정비

GCIDA는 유네스코와의 협정을 통해 국제기구로 출범했지만, 국내 법령 및 내부 규정과의 정합성 부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관·조례·세부 운영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GCIDA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높여, 협력 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사업 수행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라. W-T 전략

1) 유사기관 협의체 구성 및 공동계획 수립

GCIDA는 교육·연구·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국내외 기관들과 역할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협력 비효율과 기관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GCIDA는 유관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차별 공동업무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 프로그램 기획, 정보공유, 예산 연계 등을 통해 기능 분담과 협력 모델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적 연계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업 시

너지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2) 유연한 인력 운용 및 조직 탄력성 강화

GCIDA는 고정 인력 구조로는 확대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직, 프로젝트 기반 전문가, 외부 파견형 인력 등 유연한 인사운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국제협력, 연구, 교육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전문가를 확보하고, 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사 운영규정을 개선하여 분야별 인력 배치를 탄력화함으로써 조직의 대응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전문성 확보뿐 아니라 국제기구로서의 기동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3) 공동거버넌스 기반 조직운영 체계 정비

GCIDA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출발했지만,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공동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공동 참여하는 운영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외교부, 유네스코, 국제협력기관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시킨다. 주요 정책과 예산은 운영협의체를 통해 공동심의·조정하며,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이러한 체계는 기관 운영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범정부적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4.2 GCIDA 미션, 비전

가. 미션: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개선을 위한 조화롭고 통합적인 연구·훈련 제공”

GCIDA의 미션은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관리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IDA/MIDAs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중 지정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이원화, 제도적 충돌, 현장관리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GCIDA의 가장 핵심적 책무는 바로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역량을 높이고 유기적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협약(CBD, MAB, 람사르 협약 등)은 각국에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보고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와 현장 관리자들이 전문성 부족과 기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GCIDA가 제공하는 체계적 연구·훈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국제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나. 비전: “(다중)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

비전은 GCIDA가 앞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의미한다. GCIDA의 설립 취지와 제도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연구·훈련의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연적 방향이다.

첫째, C2C의 지위는 GCIDA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와의 협력 거점으로 기능해야 함을 전제한다. 따라서 GCIDA의 비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허브로 설정되었다.

둘째, GCIDA가 다루는 대상은 단일 국제보호지역 뿐만 아니라 MIDAs와 같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을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IDA 관리 지원 기관과 차별화되며, GCIDA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협약과 유네스코 전략은 모두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한 국제보호지역의 맞춤형 관리, 국제기준 적용, 교육·훈련 확산을 강조한다. GCIDA는 이를 종합해 “글로벌 허브”라는 비전으로 응축하였으며, 이는 GCIDA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지식, 정보, 협력의 연결망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됨을 상징한다.

다. 핵심가치

1) Hub: 조화와 혁신으로 IDA/MIDAs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가 되고자 함

GCIDA는 국제보호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국제기구,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허브라는 가치는 GCIDA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훈련·정책·현장 관리 간의 연계와 조정의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Harmonization: 인간과 자연의 조화, IDAs 간의 관리 조화, MIDAs의 조화로운 관리를 추구함

국제보호지역은 자연·문화·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며, 종종 제도 간 충돌과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GCIDA는 이러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고 훈련해야 한다. 특히 MIDAs의 경우 다중 지정으로 인한 관리 체계의 복잡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므로, GCIDA가 조화로운 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은 필요성을 가진다.

3) Innovation: 혁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패러다임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 GCIDA는 기존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 연구·기술·교육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보고서 제출 시스템 지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기후 적응 전략,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등은 GCIDA가 추진해야 할 혁신 영역이다. 따라서 혁신은 GCIDA가 단순 지원 기관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림 4-1> GCIDA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 체계도

4.3 GCIDA 중장기 핵심과제

GCIDA 중장기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은 국제보호지역 및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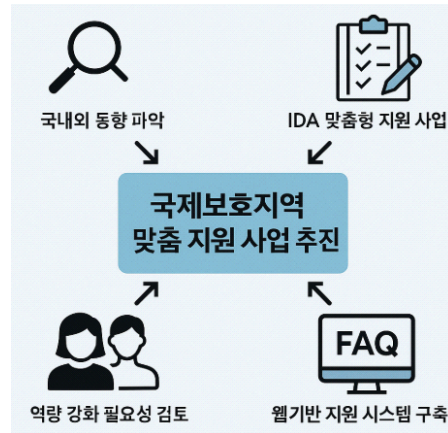
※ 9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분야 추진 방안				
구분	2024 ~	2027~	2030 ~	2040 ~
단계	기반조성	확장	도약	안정화
조직	3팀 10명	3팀 15명	3팀 20명	3팀 30명
예산	12 ~ 18억	21 ~ 27억	30 ~ 33억	40억

4.3.1 국제보호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가. 사업개요

○ IDA 관리역량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GCIDA가 운영할 수 있는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IDA 맞춤형 지원 사업의 전체 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발한다.

- 온.오프라인 맞춤형 지원 방식 개발
- GCIDA의 훈련 워크숍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방식 포함
- 지원 수요 파악 및 참여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웹기반 사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 주요 메뉴 등 개략적인 시스템 구성 체계 제안
 - ✓ FAQ의 주요 질문 예시 제시
 - ✓ 맞춤형 지원 사례 중 공개 및 비공개 구분
 - ✓ AI로 질의 및 응답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시스템 콘텐츠에 활용
 - ✓ MIDAs 관련 콘텐츠는 MIDAs 정보공유 허브에 연계 제공
 - ✓ 웹기반 시스템 구축 비용 예측 및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인력 등) 제시 등



<그림 4-2> 국제보호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개념도(예시)

○ 시범사업 실행 후 단계적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실행 및 확대한다.

- 연차별 추진사항

연차	추진내용	비고
1년차	IDA 맞춤형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2-3년차	시범사업 추진, 협력기관 파트너십 구축, 향후 확대방안 마련 등	
3년차 후	단계별 사업 발전 및 확대	

나. 기대효과

-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IDA의 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에 기여
- IDA 신규 지정 및 정기보고의 성공적 준비에 기여
- 장기적으로 각 유네스코 지정지역 운영 기구의 IDA 관리역량 강화 목표 실행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다. 소요 예산

연차	소요 예산(백만원)	비고
1년차	50/년(기본계획 수립)	
2년차	50/년	
3년차	75/년	
3년차 후	사업 확대와 함께 소요 예산 증대	

4.3.2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

가. 사업개요

○ MIDAs 관련 데이터·정보·지식(이하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그림 4-3> 참조).

○ MIDAs 정보공유 허브는 단순한 정보의 집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MIDAs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정보 아카이빙 구조, 유관 플랫폼 간 협력 체계, 정보 관리 프로토콜 등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또한 정보 분류 체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식 콘텐츠를 확충하여 MIDAs 관련 정보 등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3> MIDAs 정보공유 Hub 개념도(예시)

○ 연차별 추진사항

연차	추진내용	비고
1년차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정보 아카이빙 체계, 연차별 추진사업, 정보 관리·활용 방안 등)	
2-3년차	정보공유 허브 온라인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3년차 후	지속적인 정보수집 등 콘텐츠 확보,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개선·확대 등	

나. 기대효과

○ MIDAs 정보 공유 Hub는 이해관계자들의 MIDAs 관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GCIDA의 다른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GCIDA는 MIDAs 정보 공유 허브 구축·운영을 통해 MIDAs 관련 지식 콘텐츠 및 정보 네트워크의 허브로의 도약을 도모한다.

다. 소요 예산

연차	소요 예산(백만원)	비고
1년차	50/년	
2-3년차	30/년	
3년차 후	1차년도 기본계획 및 2~3차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산정	

라. 기타사항

○ 관련 기관(4대 IDA 정보 시스템 운영 기관(유네스코, 람사르사무국), MIDAs 사례 제공 사이트 관리 기관 등) 협조를 받아 기존 MIDAs 사례 콘텐츠를 수집하여 적극 활용한다.

4.3.3 MIDAs Guide Book 연구 및 출판 사업

가. 사업개요

○ 유네스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연구 협력을 통해 전 세계 MIDAs 지역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 MIDAs Guide Book의 콘텐츠는 기존의 여타 연구 사업과 달리 국제기구 등 상위 기관 혹은 세계적 전문가에 의해 Top-Down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을 소개하는 Bottom-Up 방식으로 마련된다. GCIDA가 지역의 소개와 홍보를 위한 템플릿과 콘텐츠의 확산을 위한 플랫폼(MIDAs 정보공유 허브 등)을 제공하여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MIDAs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기대효과

○ 전 세계의 지역 전문가들이 MIDAs 정보공유 Hub를 통해 직접 지역 소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와 현안을 풀뿌리 형식으로 수집·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이 중첩 지정을 통해 얻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소요 예산

○ 연간 50백만원

4.3.4 MIDAs 네트워크 구축 및 주기적 포럼 개최

가. 사업개요

○ 국제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연구기관, 국제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GCIDA는 유네스코, IUCN, 랍사르협약 사무국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호지역 관리자, 지방정부, NGO,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 GCIDA 주도로 MIDAs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출범함으로써 MIDAs 지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MIDAs 회원 지역 및 UNESCO, 랍사르, IUCN 등 국제기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포럼을 개최하여 MIDAs의 유기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홀수 해에는 제주도에 서, 짝수 해에는 권역별로 순회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나. 기대효과

- GCIDA가 국제보호지역 관리의 중심 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정책이 공유 되고, MIDAs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제고된다.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확대되어 GCIDA의 사업영역과 재정적 기반을 넓힐 수 있다.
- 제주도가 국제보호지역 관리 거점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전 세계의 MIDAs 관계자, 정책 입안자, 연구자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는 GCIDA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연구 및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이다.

다. 소요 예산

- 연간 50백만원

4.3.5 MIDAs 유기적 관리 매뉴얼 작성

가. 사업개요

○ 제도적 기반 정비

MIDAs는 각 국제 지정 제도가 독립된 법적·행정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관리자가 겪는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특정 제도를 흡수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도의 고유 목적과 기준을 존중하면서 상호 연계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령과 지침에 "유기적 연계 관리"의 근거를 두고, 관리계획 수립 시 제도 간 상호 참고와 공동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

현행 관리체계는 개별 지정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기적 관리를 통해 서로 간의 계획, 보고, 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일 경우, 모니터링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정기 보고 주기를 조율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하다.

○ 관리계획 및 지침의 조율

각 국제보호지역은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일 지역 내에서는 상호 모순이나 중복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유기적 관리 매뉴얼은 각 제도의 관리계획이 조율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유 원칙"과 "조정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유기적 관리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기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리 과정에서의 소통, 역할 분담, 갈등 조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각 제도별 위원회를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의 상호 연계

각 국제 제도는 고유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를 갖고 있으나, 동일 지역 내에서는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 유기적 관리 매뉴얼은 이러한 모니터링 항목과 지

표를 상호 연계하여, 데이터의 중복 수집을 줄이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 보고 의무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현장 관리자와 지역사회는 각 제도의 규범과 보고 체계를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기적 관리 차원에서 통합 교육이 아니라, 제도의 특징을 유지하되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중 지정지의 관리자는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조율 능력을 갖출 수 있다.

○ 국제협력과 사례 공유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다중 지정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적 관리 매뉴얼은 국제 사례와 협력 네트워크를 반영하여, 각 제도의 국제사무국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공동 대응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적 연계는 국내 관리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중 지정 관리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유기적 관리 매뉴얼은 보호지역 관리에 관한 중복과 단절을 줄이고, 다기관·다국가 협력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국제협약 이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내 정책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자는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해진다.

○ 제도적 효과

다중 국제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제도 간의 간극을 메움으로써 법령·조례·지침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관리 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명료해져 제도 운용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며, 이를 토대로 국제적 검증에도 대응 가능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 관리·운영 효과

유기적 관리 체계는 현장에서의 중복 업무를 줄이고, 보호지역 운영에 필요한 자

료·인력·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 상황별 대응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호지역의 관리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담보한다.

○ 학술·연구 효과

관리 매뉴얼은 다중 국제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 연구의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는 학술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제 비교 연구와 협업 연구에도 기여한다. 나아가 연구 성과가 다시 정책과 현장 관리에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 지역사회 및 경제 효과

지역 주민은 보호지역 관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자긍심을 얻을 수 있으며, 생태관광·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관리 매뉴얼은 주민 참여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 국제 협력 효과

유기적 관리 매뉴얼은 국가 간 관리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 연수 프로그램, 기술 협력 등이 확대되며, MIDAs는 국제적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강화된다.

다. 소요 예산

소요 예산 항목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백만 원)
문헌조사 및 사례 연구	국내외 보호지역 관리 사례, 국제기구 (UNESCO, IUCN 등) 기준 조사, 선행연구 분석	40
현장 조사 및 실태 분석	주요 MIDAs 현장 방문, 지역별 관리 실태 파악, 관계기관·지역사회 인터뷰	60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분야별 전문가(생태, 법제, 거버넌스 등) 자문회의, 워크숍·세미나 운영	30
유기적 관리 지침(초안) 마련	관리 매뉴얼 구조 설계, 핵심 지침 및 실행 가이드라인 작성	30
이해관계자 협의 및 피드백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 NGO 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의견 수렴	40
최종 매뉴얼 작성 및 발간	매뉴얼 최종본 집필, 편집·디자인, 출판·배포(국문·영문 병행)	30
총계		230

라. 기타사항

○ 국제 지침 및 우수사례의 지속적 반영

IUCN의 「Managing MIDAs」(Schaaf and Rodrigues, 2016)⁷³⁾ 등 유네스코, IUCN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국제보호지역 관리 지침과 더불어, 다른 국가에서 축적된 선진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매뉴얼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매뉴얼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조의 강화

보호지역 관리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매뉴얼은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매뉴얼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현장 기반의 실행 가이드라인 구체화

매뉴얼이 단순한 정책 문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평가, 보고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현장 관리자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인력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매뉴얼의 내용이 단순히 문서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실제 관리 역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기적 환류 메커니즘 구축

매뉴얼은 일회성 산출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관리 여건에 적응하는 '살아 있는 지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재정적·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

유기적 관리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파트너십, 국제기구 펀딩 등을 활용하는 다각적 재원 확보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73) 현재 IUCN 세계유산팀은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협력하여 2026년 6월 발간을 목표로 「Managing MIDAs 2.0」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4.3.6 e-Campus 및 인증 제도 추진

가. 사업개요

○ e-Campus 플랫폼 개발

본 과제는 GCIDA 활동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과 협력 기능을 결합한 e-Campus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보호지역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교육 수강자 간 상호 학습과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또한, 실시간 강의·토론·자료 공유가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전문가 인증제도 도입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표준화된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본 제도는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와 역량 검증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자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 무대에서 통용 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교육 수료자 DB 구축

교육 수료자의 이력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DB는 개인별 교육 이력, 자격 인증 현황, 연구·실무 경험 등을 포함하며,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및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향후 교육 과정 개선 및 역량 강화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공된다.

○ 지속가능 운영체계 확립

e-Campus와 인증제도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운영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유지·보수, 교육 콘텐츠 갱신, 인증제도 관리 등 핵심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외부 파트너십과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나. 기대효과

○ 교육·훈련 효과성 제고

e-Campus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호지역 관

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전문 역량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모듈형 학습과 인증 제도는 학습자의 진도와 성취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일관성과 질이 보장되며,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단발성 교육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역량 개발이 가능해진다.

○ 전문가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 수료자와 인증 전문가의 DB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내외 전문가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생 관리 차원을 넘어,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화를 촉진하고, 향후 국제 협력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진다.

○ 제도적 신뢰성과 국제적 위상 강화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이수 결과가 단순한 '수강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공인된 '자격' 또는 '역량 인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교육 과정의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 및 협력기관에 대해 GCIDA의 전문성과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

다. 소요 예산

소요 예산 항목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백만원)
플랫폼 개발 및 유지관리	e-Campus 플랫폼 설계·개발(웹/모바일), 서버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및 보안 관리	300
교육 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다국어 번역, 인터랙티브 학습자료 개발	200
전문가 인증제도 운용	인증기준 및 심사 프로세스 설계, 전문가 위원회 운영비, 인증시험 시스템 구축	150
수료자 DB 및 관리 시스템	수료자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개인정보 보호 체계, 통계·분석 모듈 개발	100
운영 및 인건비	상시 운영 인력(관리자, 콘텐츠 담당, 기술지원),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	150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파트너십 구축, 유관 기관 협력 프로그램	80
예비비	예상 외 기술 보완, 긴급 유지보수, 정책 변화 대응	50
합계		1,030

라. 기타사항

○ 제도적·정책적 고려

표준화·인증 연계성 확보: e-Campus 과정과 인증제도를 국내외 기존 제도(예: UNESCO, ISO 표준 등)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법적·행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필요 시 유네스코, 환경부 등 관계 기관, 부처와의 협업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 운영·관리 측면

운영 거버넌스 마련: e-Campus와 인증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설 운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구 내에는 교육 기획, 콘텐츠 품질관리, 인증 심사, 데이터 관리 등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야 한다. 품질 관리 지표(QA/QC):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과 인증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적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피드백·개선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 기술적 측면

플랫폼 확장성 고려: 초기에는 교육과 인증 기능 중심으로 설계하되, 향후 빅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AI 추천 학습, 다국어 지원 등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조를 개방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료자 DB와 전문가 인증 DB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데이터 보호 규정(예: GDPR,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 재정·지속가능성 측면

수익 모델 다각화: 단순히 예산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수강료, 인증 수수료,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자립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 대비 효과(ROI) 분석: 소요 예산에 비례한 성과(교육 수료자 수, 인증 인력 배출, 정책 활용도 등)를 정량화하여,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국제협력 및 네트워킹

국제 공동 플랫폼 활용: 이미 운영 중인 유사 플랫폼(예: UN CC:e-Learn, IUCN Academy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한다.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공동연구와 현장 적용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4.3.7 유네스코 연계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가. 사업개요

○ 교육·훈련 세션 운영

워크숍은 보호지역 관리자가 직면하는 구체적 현안과 관리기법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생태계 관리, 지역사회 참여, 법·제도 이해, 그리고 최신 국제 기준의 적용 방법 등이 주요 교육 내용으로 포함된다. 특히, 실제 사례 기반의 강의와 시뮬레이션 학습을 결합하여 관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점에 둔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 공유 및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

국내외 보호지역에서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본 워크숍은 각 지역의 성공적·실패적 경험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관리자의 교훈 학습을 촉진하며, 더 나아가 국가 간, 기관 간 협력 체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참여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초석을 제공한다.

○ 현장 학습 및 실습 병행

이론과 사례 공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호지역 현장에서의 체험 학습을 병행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의 구체적인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문제 발생 시의 대응 방식과 정책 집행의 실질적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론적 이해를 실제 경험과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며, 향후 자신의 보호지역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다.

○ 성과 평가 및 후속 지원 체계 마련

워크숍은 단발적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역량 향상 정도와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학습 모듈, 후속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후속 체계는 워크숍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며, 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나. 기대효과

○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의 실질적 강화

본 워크숍은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들에게 최신의 관리기법과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지역사회 참여 증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관리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다.

○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관리자들이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보호지역 관리의 공동 이슈에 대한 협력 기반이 공고히 마련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향후 공동 프로젝트 발굴, 학술 교류, 현장 경험 공유 등 실질적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국내 관리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 내에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국내 보호지역 정책과 제도의 개선 촉진

워크숍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국제 사례와 교훈은 국내 정책 체계에 직접적으로 환류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공유를 넘어, 국내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촉진제가 된다. 특히, 현행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본 워크숍의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이다.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본 워크숍은 관리자들이 지역주민, NGO, 관광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리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적 관리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다. 소요 예산

○ 연간 100백만원

라. 기타사항

○ 정책·제도적 정합성 확보

국제보호지역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정책, 법제도, 그리고 국제 규범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네스코, IUCN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관리기준과 국가·지자체의 행정체계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단계에서 관계 부처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하고, 워크숍 결과가 제도 개선과 실무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운영·실행의 지속 가능성

단발성 워크숍으로는 보호지역 관리자의 역량을 장기적으로 제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례적인 연수, 온라인 학습 플랫폼, 현장 기반의 후속 컨설팅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역량 강화가 일회성 교육을 넘어, 현장 실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강화

보호지역의 관리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민간단체,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워크숍 추진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동의 학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참여형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주민 리더와 NGO 활동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경우, 정책과 실무 간 간극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제적 연계 및 네트워크 확장

워크숍은 국제보호지역 관리의 현안을 다루는 동시에, 국내 관리자와 국제 전문가 간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사례 공유, 국제기구 파트너십 구축,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 연계 등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형 관리모델을 국제무대에 확산시키는 전략적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과 관리 및 환류 체계 확립

워크숍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환류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 전후의 성과 평가, 참가자의 현장 적용 사례 수집, 후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다음 단계 사업 설계 시 실증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3.8 미래세대 국제보호지역 교육과정 개발

가. 사업개요

○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국제보호지역 관리 및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설계된다. 기본 과정은 국제보호지역의 개념, 관리 원칙,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심화 과정에서는 실제 관리사례 분석, 정책 설계, 현장 적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특화 모듈로서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신홍 과제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국제적 시각과 실천 역량을 동시에 습득하게 된다.

○ 현장 기반 학습 운영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 보호지역 현장을 활용한 학습을 병행한다. 참가자들은 실제 보호지역 관리사무소, 커뮤니티 거버넌스 사례, 생태 복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관리 현장의 문제와 해법을 직접 탐구한다. 현장 실습 과정은 전문가 멘토링과 병행되며, 참가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도록 구성된다.

○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본 교육과정은 국제기구(UNESCO, IUCN 등),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국제 NGO와의 연계를 통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공동 프로젝트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글로벌 차원의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 청년 참여 및 미래세대 역량 배양

본 교육과정은 특히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 전문가 등 미래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참가자는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닌,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일부에 직접 참여하여 주체적 학습 경험을 축적한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보호지역 관리의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융합형 운영 방식

운영 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 모델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해외 참가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 및 토론 플랫폼을 마련하고, 국내 참가자를 중심으로는 집중 합숙형 워크숍을 병행한다. 아카데미는 교육·현장실습·국제 네트워크·참여형 프로젝트로 구성된 모듈식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유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된다.

나. 기대효과

○ 차세대 리더 육성 효과

본 과정에 참여한 미래세대는 보호 지역의 보전 가치와 지속 가능한 관리 원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보호지역 관리와 정책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차세대 인재군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 국제 교류 및 네트워크 확장

양한 국가와 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협력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이는 보호지역 관리와 관련한 글로벌 담론을 미래세대가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과제와 글로벌 의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 보호지역 관리의 사회적 기반 확충

미래세대의 참여는 보호지역이 특정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 자산임을 인식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나아가 청년층의 보호지역 참여 확대는 시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관리 실천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 국내 보호지역 관리 체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본 아카데미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성과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미래세대 교육 및 보호지역 역량 강화 분야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든다. 이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 확대, 글로벌 정책 기여, 그리고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이어져, 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국가적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할 수 있다.

다. 소요 예산

- 연간 50백만원

라. 기타사항

- 전략적 방향

국제 연계성을 강화한다. 유네스코, IUCN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아카데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단년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연례화 및 모듈화된 교육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영 체계

참가자 선발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공모·추천제 등을 병행하는 선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대학, 연구기관, 보호지역 관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사전에 조직하여 아카데미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학습 프로그램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단순 강의식 전달을 넘어, 보호지역 현장 탐방·프로젝트 학습·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미래세대 맞춤형 학습법을 채택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학습 모듈·멀티미디어 자료·국제 공동토론을 병행하는 융합형 교육이 효과적이다.

- 예산 및 재원

다원적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공공재원뿐 아니라 국제기구 펀딩, 민간기업 ESG 기부, 대학 산학협력 기금 등을 다각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이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현장학습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시, 사전·사후 효과 분석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성과 관리 및 확산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참가자 만족도, 후속 연구·취업 연계, 국제 네트워크 참여도 등 정량·정성 지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지속적 환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교육 성과가 국내 보호지역 정책·현장 관리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기 보고서 발간 및 정책 제안 과정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4.3.9 기타 핵심과제

가. 국제환경재정 연계형 사업 발굴 등 재원 다변화 전략 수립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유·무상 ODA와 민관 협력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GCIDA는 관련 재원과 연계한 연구 및 교육 훈련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 등 GCIDA의 전략 사업을 GCIDA는 GEF, GCF 등 국제환경기금 및 국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원의 다변화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ODA 기여 확대 노력에 부응할 수 있다.

나. 주기적 중장기 계획 환류 및 수립 체계 확립

C2C는 6년마다 설립 협정서를 갱신해야 한다. GCIDA는 갱신 주기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가 필요하다.

12년마다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협정서 상의 목적·기능과 실제 운영 성과를 비교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지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협정문에 GCIDA의 비전과 가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GCIDA는 기관 운영의 장기적 연속성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관의 운영 방향과 국제법적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국제 공동사업 활성화 및 환류 체계 구축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 GCIDA 유관 기관은 UNESCO, IUCN, CBD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기여금 기탁⁷⁴⁾, 공동 사업 운영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GCIDA 또한 국제 협력 및 공동 사업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여 국제 기금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GCIDA 사업 운영의 가시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74) 일례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와 IUCN과 체결된 업무협약(MOU) 및 재정 기여 서신 등 그 부속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IUCN에 재정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로 GCIDA와의 협업을 명시하고 있다.

4.4 단계별 추진 방안

4.4.1 기반 구축기(2025~2026)

본 단계(2025~2026년)는 GCIDA가 향후 10년 전략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준비 기간이다.

첫째, 비전·브랜드(BI) 공식화를 통해 기관의 존재 이유와 가치 제안을 정립한다. GCIDA는 통일된 BI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을 병행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지도를 높인다.

둘째, 법·제도 체계 정비를 통해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국제보호지역 관리 기준과 국내 법령을 정합성을 분석하여 모순 요소를 제거하고, 표준 운영절차(SOP)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한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세부 실행 로드맵 및 조직 확대 설계를 수행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연차별 프로그램·KPI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전담 전략실·교육팀·협력팀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단계별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단계로의 확장을 준비한다.

4.4.2 심화 확장기(2027~2030)

본 단계는 기반 구축기에서 마련된 제도·조직적 토대를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GCIDA의 기능을 가속·확장하는 시기다.

MIDAs 통합관리 모델 심층 연구는 다중 국제보호지역(UNESCO-MAB, WHC, Ramsar 등)별 규범을 교차 분석해 유기적 관리 매뉴얼을 수립한다. 모델 검증을 위해 시험 대상지 3곳을 선정, 공동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정책과 현장 간 편차를 최소화한다.

디지털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은 보호지역 관리자·연구자·지방정부 공무원 전용 ‘GCIDA e Campus’를 론칭하고, 4개 핵심 모듈(생태관리, 정책설계, 커뮤니케이션, ESG)을 개발한다. ISO 29993 등 국제 표준 학습 서비스 인증을 취득해 콘텐츠 품질을 보증하고, 연간 수료자 1,000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조직·데이터 전면 디지털 전환은 연구·사업 데이터를 클라우드 통합하고, AI

기반 분석틀을 도입해 의사결정 속도·정확성을 향상한다. 모든 부서가 공통 '데이터 거버넌스 스탠더드'를 적용, 문서·프로세스·지표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위 세 과제가 완료되면 GCIDA는 물리적·지역적 제약을 넘어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 협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관된 MIDAs 관리 체계와 국제 인증 교육 플랫폼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신뢰도와 영향력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4.4.3 성과환류 및 다변화기(2031~2035)

기존 단계(전문인력·글로벌 연계기와 성과 환류·재원 다변화기)를 통합한 본 단계는 GCIDA가 국제 협력으로 얻은 지식·성과를 국내 정책에 효과적으로 환류하고, 동시에 재원 구조를 다층화하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시기이다.

첫째, 현장형 전문가 생태계를 구축한다. 2027년부터 가동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연 100명 이상을 배출하며, 이들이 국내외 프로젝트에 순환 배치되어 경험을 축적하도록 한다. 이렇게 형성된 인재풀은 GCIDA 정책 실행력을 현장에서 즉시 발휘할 수 있는 '모바일 태스크포스'로 기능한다.

둘째, 글로벌 공동사업의 국내 환류를 체계화한다. UNESCO·IUCN 등과 수행한 모델 사이트 운영 결과를 정책 브리프·매뉴얼 형태로 전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성과 공유 세미나를 연 2회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제 프로젝트 성과가 국내 보호지역 관리 기준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연결된다.

셋째, 재원 다변화 전략을 실행한다. 국제환경재정(IEF), 녹색기후기금(GCF), 민관 협력(PPP) 등 다중 파트너와 펀딩 MOU를 체결하고, 2028~2035년 누적 3,000만 USD 이상을 확보한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성과연계지표(Outcome based financing)를 도입하여 투자자 신뢰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전문 인력, 국내 정책 수요, 국제 자금을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 'GCIDA 국내 기관 국제기구' 삼각 협력 모델을 정례화한다. 이 구조는 전략 성과가 일회성으로 소진되지 않고 다음 단계 혁신으로 재투자되도록 한다.

4.5 조직 및 예산 확충계획

4.5.1 조직 확충계획

1) 2024년 운영성과

GCIDA는 정부·유네스코 협정서 체결(2024.2)을 거쳐 설립된 이후, 미래세대 보호지역 아카데미(8.11~14, 국내 대학생 29명, 국립공원공단 등과 협업),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워크숍(11.19~22, 국내 40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과 협업), 다중 국제보호지역 해설사 워크숍(12.18~20, 국내 해설사 28명) 등,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IUCN 리더스포럼 참가(10월), IUCN·유네스코·람사르협약 본부 방문(12월) 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센터 출범 시기의 조직과 현원은 파견 인력 4인을 포함 3개팀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까지 14명, 2030년까지 20명으로 확충될 예정으로 조직 안정화가 진행된 후에는 현재 4명(제주도 2, 국립공원공단 2)에 이르는 파견인력은 단계적으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2) 2025년 업무 현황

2025년 센터는 3대 전략별 각 3개, 총 9개 중점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기관설립 초기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개소식(4.29)과 개소 기념 국제포럼(4.30) 개최 등을 통한 기관의 미래비전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인력채용·시설개선·규정 보완 등 센터 운영기반 확충을 위해 연구팀장, 행정팀원(1), 연구팀원(2), 훈련팀원(1) 충원 및 센터 업무시설 확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국내외 동향 분석 기반, 센터 중장기비전 및 세부 과제, 조직·인력·예산 개편 방안 등을 도출하고, 차별화된 연구·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보호지역 컨설팅(맞춤지원)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또한, MIDAs 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외 현황 및 동향, 국내외 사례조사, 개도국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센터는 또한 협업 연구 등을 통한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 IUCN, ICCROM, 아시아 보호지역 파트너십(APAP) 등과 맞춤형 지원 협업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유기적 MIDAs 관리 등 개도국의 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 연구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서비스 제공과 교류 강화 차원에서는 수요 기반의 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협력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UNESCO GCIDA Youth Forum”(6.3, 제주지역 청소년 대상, 제주도 부영호텔),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7월, 국내 20명, 개도국 10명,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협업), 미래세대 보호지역 아카데미(8월, 국내외 청소년 30명) 개최 등이 포함된다.

센터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 부문에서는 국내외 기관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류 채널 강화를 목적으로 제5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9월, 중국),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10월, 아랍에미리트)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유네스코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이 가능한 연구·훈련·컨설팅 과제(12월, 2천만원)를 도출할 계획이며, 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GCIDA의 내부 훈련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3) 조직 강화전략 검토

2025년 8월 기준 센터 근무 인원은 센터장 1인과 공석인 연구개발팀장을 제외한 팀장급 전문가 2인, 3개 팀에 나누어진 선임연구원과 연구원 8인, 합계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중장기 운영 전략 및 추진 계획 개요를 담은 GCIDA 설립 계획(안, 환경부, 2024.4)에 따라 센터 운영은 기반조성기(2024~2026, 3팀 10인), 도약기(2027~2029, 3팀 15인), 안정화기(2030~2033, 3팀 20인)를 거쳐 약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운영 전략은 기관별로 12인에서 36인의 인력규모를 보이는 기존 C2C 운영 사례를 참고한 것이며, 안정화기의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이사회(16인 이내), 감사(1인), 자문위원회(15인 이내)와 센터장(1인)을 포함 정원 20인의 기획행정팀(5인), 연구개발팀(7인), 훈련교류팀(7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센터 개원시 신규 채용 10인의 직급은 1급 센터장 1인, 2급 연구개발팀장 1인, 3급 기획행정팀과 연구개발팀 각 1인으로 합계 2인, 4급 기획행정팀과 훈련교류팀 각 1인으로 합계 2인, 5급 기획행정팀 1인, 연구개발팀 2인, 교류훈련팀 1인으로 합계 4인으로 하고, 전체 신규채용 인원의 평균임금을 5천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바 있다.

센터는 정관에 정한 직제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 직원 외에도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국내외 정부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파견되어 센터에 근무하는 파견자, 유네스코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센터에 근무하게 된 유네스코 직원 등을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조직 강화와 관련하여, 이들 파견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경상 보

조금을 주로 하는 제한된 센터 운영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인적 자원 소스로서, 정관에 정한 목적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외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또는 유네스코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인력 지원 협의를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4) 2025년 조직/인력 현황 및 중장기 확충계획

GCIDA의 미션과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 핵심과제의 원만한 수행에 필요한 사업기간 2026-2035년의 추가 인력 수요는 연구개발 분야의 신규 인력 6인과 교육훈련 분야의 신규 인력 6인을 합한 12인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력과 신규 채용 인력을 고려한 채용시기와 업무분장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 훈련교류 분야의 신규 인력 각 1인, 합계 2인은 중장기 핵심과제의 하나로 GCIDA 고유의 계속사업 영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e-Campus의 기획 및 운영을 전담할 인력이다. e-Campus 사업의 기획과 콘텐츠 개발 등 세부 과업은 연구개발과 훈련교류 부문의 기존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기획과 콘텐츠 개발에 투입될 연구개발 인력 1인은 2026년, e-Campus 운영단계에 투입될 훈련교류인력 1인은 2028년을 채용 적기로 볼 수 있다.

MIDAs 보유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GCIDA이 시그니처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MIDAs 통합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장기적인 GCIDA 위상을 고려할 때, 맞춤형 지원사업은 맞춤형 지원 수요국가들이 존재하는 동남아/태도국,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라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맞춤형 지원 사업의 주요재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발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에 통상 2년의 준비기간과 3년의 사업수행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5개년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투입될 신규인력은 모두 10인으로 연구개발분야에 5인, 훈련교류분야에 5인이 필요할 것이며, GCIDA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 기획이 2026년부터 시작될 경우, 해당 시범사업 기획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수원국과의 협의 및 기획조사는 2027년을 시작으로 지원전략수립(2년차), 매뉴얼개발 및 역량배양(3년차), 현지적용 시범사업 실시(4-5년차) 및 성과관리(5년차)로 이어지는 5개년 실행 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매년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2031년부터 5개 지역에 1개 사업씩 매년 5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의 성과는 e-Campus, 유네스코 연계 MIDAs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미래세대 국제보호지역 교육, MIDAs 네트워크 구축 및 주기적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공유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표 4-1> 참조).

4.5.2 예산 확충계획

1) 중장기 재원조달 여건

센터 설립 배경과 사업 분야 및 중장기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센터 재원조달 방안을 정관 1조에 정한 센터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경비'와 정관 4조에 정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재원'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 센터 설립 목적: 정관 1조,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협정」(이하“협정”)에 따라, 1. 국제보호지역(다중 국제보호지역 포함)의 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제공, 2. 국제보호지역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및 정책 주도, 3. 국제보호지역 관련 우리나라의 전문성과 영향력 강화로 구분

※ 센터 (목적) 사업: 정관 4조,

1.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에 관한 선진 지식의 확산

2. 국제보호지역의 보전 관리와 통합된 지역 발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사례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수행과 우수 사례에 관한 지침의 개발

3.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다중 국제보호지역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역 당국의 관리자와 대표를 위한 역량개발 사업의 제공

4.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신청 문서 및 정기보고서의 작성과 관리 정책의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지원

5. 특정 생태계나 생물군계 또는 특정 지역이나 소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위한 기반의 제공

6.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기여하도록 국제보호지역의 역량을 증진 강화할 연구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제연합(UN) 기관 사업과 그 밖의 국제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및 글로벌 기금 재단과의 파트너십의 개발

7.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국제보호지역 관리 연구 거점화, IUCN·Ramsar 사무국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 정책을 선도하고, 쿤밍-몬트리올 GBF, 파리협정 등 글로벌 어젠다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 개선 연구·훈련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의 경상 운영 경비는 기반 조성기(2024~2026, 3팀 10인), 도약기(2027~2029, 3팀 15인), 안정화기(2030~2033, 3팀 20인)를 거치는 인력 확대 수요에 맞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4-2>). 한편, 2040년 이후에는 3팀, 3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GCIDA 인력 운영 계획(환경부, 2024)

구분	단기(2024~2026)	중기(2027~2029)	장기(2030~2033)
단계	기반조성	도약	안정화
조직	3팀 10명	3팀 15명	3팀 20명

센터 운영 계획은 기반 조성기, 도약기, 안정화기로 나누는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주요 사업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영역에 포함된 개별 목적사업의 범주와 특성에 따른 사업 자원 수요를 제기한다.

기반조성기 운영 계획은 수요자/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호지역 관리 연구 사업 (다중 국제보호지역정책 연구, 보호지역별 현황 및 동향 연구, 보호지역 지정 효과 연구), 협력 파트너십, 네트워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약기의 운영계획은 특성화된 개도국 전문가 교육관점에서 보호지역의 혁신·효율·포괄적 관리 방안, 보호지역 지정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보호지역 관리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 보호지역 통합 관리방안 연구와 협력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안정화기의 운영계획에는 학기 단위 학위과정 연계,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과정 국제 공인자격 부여, 지속가능발전 모형 개발, 제도·재정적 기반 조성 연구, 보호지역 관리 선도 기관 도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재정 운영 현황 및 수요 전망

2026년 예산 가운데 인건비 항목은 2025년 인건비 예산 624백만 원에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인상분 반영)을 감안

하여 추정 가능하며, 2027~2029년간 연차 예산 가운데 인건비 규모는 기반 조성기의 인건비 624백만 원에 센터 도약기의 신규 인력 수요 5인과 인당 평균 연봉 50백만 원을 감안한 250백만 원을 추가, 874백만 원으로 추산(물가인상율을 고려한 연봉인상분 미반영)할 수 있다.

2030년 이후 안정화기의 센터 인건비 연간 규모는 추가 신규인력 수요 5인과 평균 연봉 수준 50백만 원을 고려한 1,124백만 원으로 추산 가능(물가인상율을 고려한 연봉인상분 미반영)하다.

센터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정관 4조에 정한 센터 목적사업 이행을 위한 중장기 운영 전략(연구개발,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및 연차별 작업계획을 따라 수립될 수 있으나, 연도별 사업비 규모는 센터의 기존 사업비 산정 지표와 유사한 사업 내용을 가진 기존 C2C의 예산 요구자료들을 참조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장기 재원 조달 전략 1: 부처 국제교류협력 예산 활용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운영 현황

목적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증진과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
현황	설립년도	2011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운영주체	국가유산청
	조직체계	4실 2팀 21명 사무총장1, 정책개발실(실장1, 직원3), 기획관리실(실장1, 직원3), 연구정보실(실장1, 직원2), 협력네트워크실(실장1, 직원3), 윤리경영지원팀(팀장1, 직원1), 디지털콘텐츠개발팀(팀장1, 직원2)
주요업무		- 위기에 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전통 유산 보호 - 무형유산 정보의 기록·보존 및 활용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무형유산 가시성과 인식 제고 등

- 국가유산청 산하 C2C 기관인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운영(1134-303)사업은 2024년 기준 4실 2팀 21명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위기에 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전통 유산 보호, 무형유산 정보의 기록과 보존 및 활용,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무형유산 가시성과 인식 제고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소관의 유산정책국(세계유산정책과)이 담당하고 있는 동 사업은 문화 및 관광분야 국가유산 부문의 유산정책 프로그램(1100)으로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 단위사업(1134)으로 분류되는 세부사업명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303)으로 국고보조율 100%의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동 센터는 GCIDA의 안정기에 예상되는 인력 수요와 유사한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결산기준 27.84억 원, 2024년 본예산 집행액 28.74억원, 2025년 확정예산안 기준 31.23억 원의 사업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기획 및 행정관리에 19.15억 원,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다변화와 인식제고 사업에 12.08억을 배정하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현황

설립목적(배경)		세계유산 보호의 개념이 물리적 보존뿐 아니라 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함에 따라, 세계유산 갈등 심화되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침 개발 전담 국제기구 필요성 대두
현황	설립년도	2022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운영주체	국가유산청
	조직체계	1사무국 4실 1팀, 20명 센터장1, 사무국장1, 전략기획실(실장1, 직원4), 연구개발실(실장1, 직원3), 교육협력실(실장1, 직원3), 정보관리실(실장겸직, 직원2), 미래성장TF팀(팀장1, 직원2)
주요업무		- (연구) 세계유산 해석·설명 연구기반 활성화 및 국제 정책 수립 - (교육) 세계유산 이해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정보화) 세계유산 해석·설명 자료의 정보관리체계 개발 및 정보 접근성 확대 - (네트워킹) 유관 기관 및 관련 전문가 파트너십 강화 및 교류 확대

- WHIPIC 운영 사업은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운영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소관의 유산정책국(세계유산정책과)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1134-304)의 일부로 2023년 23.83억, 2024년 26.11억, 2025년 26.51억 원을 편성 받았다.
- 국가유산청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 사업(1134-301)과 유산 기반국제협력(ODA) 사업(1134-302)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목적사업과 협력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GCIDA 소관기관인 환경부 예산 가운데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유산기반 국제협력사업(ODA)과 유사한 사업 예산 항목을 GCIDA 운영 사업 외부에 편성되어 협업이 가능한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중장기 재원조달 전략 관점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여기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유산기반 국제협력(ODA) 사업에 사업시행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GCIDA가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지정지역 관련 국제교류협력 사업 혹은 기후, 생태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ODA에 사업시행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2025년 기준,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 사업(1134-301)과 유산기반 ODA 사업(1134-302)에 배정된 사업예산은 각각 32.02억과 131.13억원에 달한다.

3) 중장기 재원 조달 전략 2: 무상 국제개발협력 재원 활용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원조 형태의 개발협력사업 또한 GICIDA가 글로벌 다중보호지역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데 유용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무상원조 방식의 개발협력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뿐만 아니라, 개별 부처 및 공공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추진 가능하며, 문체부산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Asian Culture Center)이 자체 ODA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진행중인 개도국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ACC의 ODA 사업은 2015.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ODA 사업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ACC는 2018년부터 2021.8월까지 미얀마 종교문화부(고고학·박물관국)를 파트너로 미얀마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문화 발전 마스터플랜 개발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미얀마 전국에 산재된 문화유산에 관한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통합된 문화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GPS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1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문화자원 정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최근 만날레이 인근을 강타한 진도 7.7의 지진으로 다수의 인명과 사회 인프라 및 문화유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 무형의 문화자산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는 개기를 제공하였다.

인간계와 생물권을 포함하는 다중 국제보호 지역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개발과 개도국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도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자연재해와 개발 압력에 노출된 다중 국제보호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필수 요소로서 GCIDA가 특화해야 할 연구 및 교육 훈련 사업영역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ACC는 미얀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이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과 동남아시아 라오스를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2024년 몽골 및 스리랑카 등을 대상으로 개별국가의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해당국의 주요 문화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산재하는 다양한 유형 및 무형의 문화 유산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정보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연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입력된 메타 데이터의 구성, 디지털 표출 형식, 지리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등은 글로벌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와 보전에 바탕이되는 개별 당사국의 다중 국제보호지역 지정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 선행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ACC는 2025년부터 이들 개별 협력대상국에 구축된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 시스템 허브 구축 사업을 기획 중에 있으며, 이는 GCIDA와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개별국가에 구축될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글로벌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허브로 구체화하고, 이를 GICID 고유의 사업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중장기 발전 전략화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ACC가 채택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표는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생성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디지털규제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협력 대상국의 현지 문화유산 관리 담당 기관들이 자체 개발한 문화 콘텐츠를 문화유산 관리 및 관련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의 관리 보전과 사회경제적 편익을 도모에 창출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는 국가 혹은 지역이 보유한 다중 국제보호 지역의 관리 및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 관점에서 GCIDA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도 참조될 필요가 있다.

ACC 사례는 GCIDA의 글로벌 다중지역 통합 정보시스템 혹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허브화가 개별 당사국 주도로 개발될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는 물론 GCIDA가 개별 국제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혹은 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도 중요한 중기 전략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중장기 자원 조달 전략 3: 국제 기후변화 대응자원 활용

기후변화는 다중보호지역 내의 생태계는 물론 동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GCIDA가 제공하는 연구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적응 및 자연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 완화 관련 활동을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금세기 인류문명의 최대 선결 과제로 제기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유·무상 ODA와 민관협력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협정 당사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자발적 의무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파리협정 하의 신기후체제는 최근 국제사회는 GEF, GCF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된 기후 자원 매카니즘을 넘어, 다자개발은행(MDBs)의 개발협력 자원,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등 통화 금융 관련 국제기구 재원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및 손실과 피해 대응에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GCIDA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유네스코 C2C서의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자원 확보전략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 및 관련 국제기금 재원을 활용한 다중 국제보호지역 대상 연구 및 교육 훈련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UGGp, 람사르습지와 같이 GCIDA 업무영역인 다중 국제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환경 생태학적 변화는 물론 사회 경제적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기후재원을 GCIDA의 중장기 자원 전략과 연계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국제보호지역 관리와 관련된 기존 정책 모델, 개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국제 협력 네트워크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이들 협력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차별화된 협력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후재원을 이용한 GCIDA의 장기 자원 전략은 기후재원의 접근 주체가 기후협약 및 파리협정 당사국인 개도국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GCIDA의 차별성은 GCIDA의 지원하에 개도국이 주도하는 다중 국제보호지역 대상 통합관리 모델 개발 및 운영과 이들 국가의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시스템 간의 상호연결을 바탕으로하는 글로벌 다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GCIDA가 2025년 연구 사업으로 진행 중인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GCIDA와 기존 국제보호지역 관리기구 및 관련 기관의 사업영역과 중복 우려가 적고, 당사국 주도적인 MIDAs 관리 및 보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 당사국에 구축된 통합 관리정보

시스템의 네트워킹 연계 허브 구축의 기본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중 국제보호지역을 지정, 등록, 관리하는 국제기구 혹은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MIDAs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해당 MIDAs를 보유한 당사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MIDAs를 구성하는 개별 IDA 관리 운영 주체가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구 사무국인 것과 차별화되는 접근이다.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 기본계획 연구는 국내외 MIDAs 통합관리 사례에 대한 폭넓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개별 IDA 관리 모델과 차별화 되고 상호보완적인 통합관리 모델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3.6절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분야의 중점 과제 및 시기별 추진로드맵상의 첫 두 과제인 MIDAs 통합관리 정책모델 개발, MIDAs 기반 통합관리 평가지표 체계 개발과 직결되는 것이다. 평가 지표 관련해서는 생태적 건전성, 지질학적 보전, 문화적 지속성, 지역사회 참여와 특히 당사국 주도의 관리체계 운영이 MIDAs 통합 관리모델의 핵심 성과영역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인문 및 자연 생태를 포괄 하는 디지털 기반의 지리정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개별 국제 지정지역 정보 시스템의 통합에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적 기반으로 다중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대응형 협력 사업 개발은 물론 시민 과학(civil sciences) 등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기여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GCIDA의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주도과 IUCN간의 양자협력 성과(Managing MIDAs: Harmonizing the management MIDAs-Ramsar sites,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 and UNESCO Global Geoparks, IUCN, 2016) 혹은 중국 황산풍경구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유네스코 다중 지정 통합 관리계획에 포함된 종합계획, 관리 메커니즘 설계, 과학 연구 및 위험 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통신 플랫폼,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평가 메커니즘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후 재원을 다중 국제보호지역 대상 GCIDA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다중보호지역을 가진 당사국 정부의 보호지역 관리정책 담당 기관은 물론 기후재원 사업 관리 담당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소관 기후 재원의 50%를 기후변화 적용에 투입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의 경우, 관련 사업 제안서가 GCF 이사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통상 기후환경 담당 부처내에 지정된 국가지정기구(NDA)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결정된 기후 재원을 신탁관리할 승인기구(Accredited Entity) 지정 등이 필요하다.

제2기 녹색기후기금(GCF) 2기(2024~27년) 운영 방향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 보

고서⁷⁵⁾에 따르면, 2023년 7월 GCF 이사회(B.36)는 GCF 2기 신규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4-2027)을 채택하고, 31개 GCF 2차 재원 보충 참여국의 기여 총액을 128억 달러로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원기여 예상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약 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CF 재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누적 243건의 사업에 대해 13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이 승인되었으며, 협조금융(co-financing)을 포함한 총 사업 규모는 51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GCF 지원 재원에 대한 사업 인증기구(AE)를 통한 접근과 개도국 직접 접근 비중은 약 8:2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적응 지원의 약 2/3가 취약 개도국 대상 사업에 주어졌는데, 이는 녹색기후기금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지정된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전과 동 보호지역의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 지역공동체의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차원의 주요한 재원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개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11개의 성과목표로 구성된 GCF 2기 신규 전략계획에는 기후정보 및 조기경보 지원, 자연기반 해법, 생태계 기반 접근, 지역사회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 등 새로운 주제와 이행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GCIDA에 2025년 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 정보시스템 디자인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하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전략계획에 명시된 4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은 ① 능력배양 및 기후 대응 사업 준비 지원, ②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③ 적응지원 사업의 확대, ④ 지역 사회를 포함하는 민간 기후변화 대응 주체에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원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11개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어 다중 국제보호지역(MIDAS) 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GCIDA의 주요 활동 영역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 주제를 통합함으로써,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양자 ODA 기여의 확대와 다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GCIDA가 글로벌 다중 국제보호 지역 연구 교육 훈련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 재우너과 취약 개발도상국의 다중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및 보전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실행 할 수 있을 것이다

GCF 이외에도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를 통해 지원하는 기술지원 프로그램,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를 방지, 최소화, 복

75)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KIEP 기초자료 24-01, 2024.2.26

구를 위해 지원되는 손실과 피해기금 사업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속 가능한 보전 사업들에 활용하는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GCIDA의 중기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중장기 자원 조달 전략 4: 민간 자원의 활용

기후 자원과 같은 지구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 자원 GCIDA의 중기 자원 전략과 연계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민간기업 ESG 경영 기여를 GCIDA의 중기 자원 전략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ESG는 기업의 환경 친화적 경영, 기업 활동의 사회적 책임 제고,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ESG는 모든 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 지침이 되고 있으나,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호지역내 혹은 인접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MIDAs의 지속 가능한 통합관리와 연구 및 교육 훈련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주요 활동 영역으로 하는 GCIDA는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지정된 4개 보호 지역의 자원 혹은 생태계 서비스를 기업 활동의 근간으로 삼는 도내 입지 기업들과 다중 국제보호지역 관련 정책 비전 및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해당 기업들의 ESG 경영 관련 활동에 이러한 정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들 기업의 ESG 성과를 GCIDA가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해 국내외 다중 국제보호지역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차적으로는 도내기업들과의 협업 채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주된 업역으로 하는 국내 혹은 다국적 기업들과 유사한 협업 채널을 구축하고, 이들 기업의 다중 국제보호지역 경계 내외의 자연자원과 생태계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및 기업 활동이 해당 국제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보전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다중 국제보호 지역이 제공하는 자원 및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6) 2025년 조직/인력 현황 및 중장기 확충계획

GCIDA의 미션과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 핵심과제의 원만한 수행에 필요한 사업 기간 2026-2035년의 연도별 소요 예산은 <표 4-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 GCIDA 증장기 핵심과제 소요 예산(26-35)

과제연번	증장기 핵심과제 과제명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1	국제보호지역 맞춤지원사업 (연구개발)	개요/예산 3년(시범 후 ODA 연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75	50	75	0	0	0	0	-	-	-
2	MIDAS 경보공유허브 구축운영 (연구개발)	계속사업	기본계획수립	시범운영	고도화/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670	50	30	80	80	80	80	80	80	80
3	MDAs 가이드북 연구 및 출판 (연구개발)	계속사업/ 매년 출판	1차 출판	3차 출판	4차 출판	5차 출판	6차 출판	7차 출판	8차 출판	9차 출판	10차 출판
		5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4	MIDAS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훈련교류)	계속사업/ 연차별연계	1차 워크숍	3차 워크숍	4차 워크숍	5차 워크숍	6차 워크숍	7차 워크숍	8차 워크숍	9차 워크숍	10차 워크숍
		5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	MIDAS 유기적 관리매뉴얼 (연구개발)	2년사업/ 5년주기	-	이해관계자 협의/최종안	-	-	-	조사연구/ 개칭지침	이해관계자 협의/최종안	-	-
		460	0	100	0	0	0	130	100	0	0
6	e-Campus 및 인증제도추진 (훈련교류)	계속사업	기획/ 플랫폼개발	캠퍼스 진분/인증개발	캠퍼스운영	캠퍼스운영	캠퍼스운영	캠퍼스운영	캠퍼스운영	캠퍼스운영	캠퍼스운영
		3690	30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7	유네스코 연계 MIDAs 관리자 워크숍	계속사업	1차 워크숍	3차 워크숍	4차 워크숍	5차 워크숍	6차 워크숍	7차 워크숍	8차 워크숍	9차 워크숍	10차 워크숍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	미래세대 국제보호지역 교육과정 개발	계속사업/ 매년 개발	1차 개발	3차 개발	4차 개발	5차 개발	6차 개발	7차 개발	8차 개발	9차 개발	10차 개발
		5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9	국제보호지역 맞춤지원사업1 (연구개발/훈련)	5년단위/ 5개 운영	-	맞춤형 전략수립	맞춤형 관리역량강화	시범사업 현장직용	운영지원/ 성과관리평가	기초조사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맞춤형 리역량강화	시범사업 현장직용
		5,950	0	400	1,050	700	650	500	400	1,050	700
10	국제보호지역 맞춤지원사업2 (연구개발/훈련)	5년단위/ 5개 운영	-	기초조사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매뉴얼개발/관 리역량강화	시범사업 현장직용	운영지원/ 성과관리평가	기초조사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매뉴얼개발/관 리역량강화
		5,250	0	500	400	1,050	700	650	500	400	1,050
11	국제보호지역 맞춤지원사업3 (연구개발/훈련)	5년단위/ 5개 운영	-	-	기초조사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매뉴얼개발/관 리역량강화	시범사업 현장직용	운영지원/ 성과관리평가	기초조사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4,200	0	0	500	400	1,050	700	650	500	400
12	국제보호지역 맞춤지원사업4 (연구개발/훈련)	5년단위/ 5개 운영	-	-	-	기초조사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매뉴얼개발/관리 역량강화	시범사업 현장직용	운영지원/ 성과관리평가	기초조사분석
		3,800	0	0	0	500	400	1,050	700	650	500
13	국제보호지역 맞춤지원사업5 (연구개발/훈련)	5년단위/ 5개 운영	-	-	-	-	기초조사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매뉴얼개발/관리 역량강화	시범사업 현장직용	운영지원/ 성과관리평가
		3,300	0	0	0	0	500	400	1,050	700	650
소요예산	예산총계	29,995	650	1,735	2,660	3,360	4,010	4,140	4,110	4,010	4,010

GICIDA의 기존 업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수요를 제외하고,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미래세대 국제보호지역 아카데미 운영과 같이 여타 핵심 과제와 연계하거나 혹은 그 일부로 수행될 수 있는 사업 소요 예산을 달리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본 과제가 제시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포함된 중장기 핵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모두 12개 사업 분야에서 2026-2035년간 약 29,99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보호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은 5개년 다년차 사업으로 사업당 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단위사업당 예산 규모는 맞춤형 다중보호지역 관리시스템 구축 및 역량 배양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유산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역량 배양 사업을 참조한 것이다. 세부사업의 차이는 있으나, 개발협력사업의 규모화를 추진 중인 한국국제개발협력단의 유사 사업예산 규모는 부처 추진사업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3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가. 국내외 보호지역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GCIDA와 연관된 다양한 국제 회의(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웨비나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의 MIDAs 관련 연구자, 정책 입안자, NGO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국제보호지역 관리 사례, 정책 동향, 연구 사례 등을 논의함으로써 GCIDA의 역할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5.22.), 생물권 보전 지역의 날(11.3.), 세계습지의 날 등) 및 국제 유관 행사에 참석하여 GCIDA 관련 내용을 발표하거나 한국관 또는 GCIDA 홍보부스를 별도로 개설하여 GCIDA 관련 내용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4>는 2020년 개최된 IUCN 총회의 프랑스관 전경이며, <표 4-4>는 2025-6년도에 개최되는 세계 국제보호지역 관련 주요 국제회의 일정을 나타내며, GCIDA는 관련 국제회의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회원국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GCIDA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2026년 7월 부산에서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GCIDA가 홍보관 운영, 공동 캠페인,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림 4-4> 2020 IUCN 총회 프랑스 전시관 예시

<표 4-4> 2025-2026년 세계 국제보호지역 관련 주요 국제회의

회의명	일자	개최국
15차 랍사르협약 당사국총회(15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07.23.-07.31.	짐바브웨
11차 세계지질공원 컨퍼런스 총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Global Geoparks 2025)	09.08.-09.12.	칠레
5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WCBR) (The 5th World Congress of Biosphere Reserves)	09.22.-09.27.	중국
2025년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10.09.-10.15.	아랍에미레이트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2026.07월	대한민국, 부산

나. 소셜 미디어 활용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 매체가 일대다(one-to-many)의 일방적 관계형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가졌다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이용자에게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대다(many-to-many)의 쌍방향적 관계성을 토대로 하므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UCC 등이 대표적이다(위키백과, 2025). 202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세대별 SNS 이용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 플랫폼 비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포리>네이버밴드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GCIDA 웹사이트(unesco-gcida.org)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교육자료, 발표 동영상, 연구 프로젝트, 성공 사례, 홍보용 뉴스레터, 퀴즈 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홍보한다. 예를 들어, GCIDA의 국제보호지역 보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비디오 클립과 사진, 문서 등의 형태로 소셜 미디어에 공유함으로써 퀴즈이벤트 등의 행사를 통해 GCIDA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림 4-5>는 GCIDA 개소식을 즈음하여 진행한 홈페이지를 통한 퀴즈이벤트 사례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 국제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 교육 동영상이나 웹 세미나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블로그 게시물 작성뿐만 아니라 SNS 채널에 게시물 업로드, 인사이트가 풍부한 전자책 제작, 다양한 정보를 담은 인포그래픽 공유,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팟캐스트 운영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

GCIDA에서는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블로그, 인스타그램, Youtube 계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4-6>은 GCIDA에서 제작한 SNS 콘텐츠 예시이다.

카테고리	개수
말로워	41.1
말로워가 아닌 사람	58.9
도달한 계정	3827

카테고리	개수
말로워	84.8
말로워가 아닌 사람	15.2
참여한 계정	898

<그림 4-5> GCIDA 홈페이지 퀴즈이벤트 게시글(좌) 및 실시결과(우)

<그림 4-6> GCIDA SNS 콘텐츠 예시(2025년 05월 기준)

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보호지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센터의 목표와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제주도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GCIDA, MAB한국위원회는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해당 워크숍에는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한국의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랍사르 습지의 관리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개별 세계유산과 습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증진 방안, 제주도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홍보 전략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제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GCIDA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워크숍 발표자료는 책자 발간과 더불어 GCIDA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도 게재되어 지속적으로 GCIDA의 인지도 향상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7>은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보고서, 참석자 사진, 유튜브 공개 발표자료를 예시하며, <그림 4-8>은 유사사례로서 2024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을 예시하고 있다.

라. 출판물 및 사례 연구 배포

GCIDA의 연구 결과와 성공적인 보호 사례를 담은 보고서 및 간행물을 발행하여 관련 기관,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배포하여 GCIDA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센터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보전 사례를 담은 보고서, 팸플렛, 기관 소개서, 뉴스레터(온라인), 사보, 이슈 브리프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관련 기관, 학교, 연구자들에게 배포한다. 예를 들어, 국제 및 국내 환경 보호 관련 학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배포하여 센터의 활동과 연구를 소개할 수 있다.

<그림 4-9>는 유네스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 및 논의 확산을 위해 외교부 지원으로 진행한 연구사업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의 최종 결과물로서 '과학기술 다자협약체로서의 유네스코의 특징과 역할 모색' 등 보고서 4건의 예시이다. GCIDA에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7>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보고서(상), 참석자 사진(중), 유튜브 공개 발표자료(하)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년리더'들이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202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2024. 11. 11.(월) ~ 11. 14.(목) 3박 4일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202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현장 답사



해양 치유 프로그램 체험



청년 간 관심사 공유 및 소통

참가 대상

생물권보전지역에 관심있는
청년(만18세~35세) 25명 내외

주요 내용

- 전문가 강연 및 청년 사례 발표
-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현장 답사
- 조별 활동 및 아이디어 교류 등 네트워크 활동

신청 방법

링크 또는 QR 코드 접속하여 신청
(<http://linktr.ee/youthmab>)

지원 사항

- 참가 기념품 제공 및 참가 인증서 발급
- 교통비 및 숙식 지원

신청 기간

2024. 9. 24.(화) ~ 10. 14.(월)
※ 선정된 참가자는 10월 중 개별 연락

문의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사무국
(전화번호: 033-769-9523)



<그림 4-8> 202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예시



<그림 4-9> 2023년 유네스코 발간 Issue Brief 사례

마. 일반 매체 광고

일반 매체 광고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제품, 서비스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의 한 종류이다.

SNS와 같은 온라인 방법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그림 4-10> 참조),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그림 4-11> 참조), 보도자료 배포(<그림 4-12> 참조) 등을 활용한 방법 및 QR 코드와 같이 기존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광고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홍보는 보통 젊은 연령층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지만, 일반 매체 광고는 다양한 계층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기획홍보란 GCIDA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해 이해와 동참을 이끄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알리기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GCIDA 주요 업무를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 중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소식 GCIDA Opening Ceremony

2025. 4. 29



<그림 4-10> 언론매체 보도사례(헤드라인 제주, 2025.04.29.)



<그림 4-11> 제주도 전기버스를 이용한 광고 사례

보도자료

제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Total. 5 (1 / 1 Page)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이울범
신임 센터장 취임

2025.02.05 | GCIDA

다중 국제보호지역 해설전문가
워크숍 성료

2024.12.26 | 한창준

"다중 국제보호지역 현장실무자
(해설사) 워크숍" 성료

2024.12.26 | GCIDA

GCIDA 직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
그램 추진

2024.12.04 | GCIDA

제주서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
량 강화 워크숍 성료

2024.12.04 | 한창준

<그림 4-12> GCIDA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자료 게시 사례(2025.06.07. 접속)

바. 홍보물 제작 배포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GCIDA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기관용으로는 봉투 및 종이 가방, 국·영문 리플릿, 명함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배포용으로는 홍보물, 패키지 엽서, 스티커 등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4-13> 참조).



<그림 4-13> 판촉물 예시((adpanchok.co.kr), 2025.02.23.)

사. 전시회 등 활용

보호지역과 관련된 사진 전시회, 도서전시회, 그림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를 통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사진 전시회를 통한 홍보 활동은 GCIDA 이미지 강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법이다.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시의 목표를 달성하고 GCIDA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전시회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4> GCIDA 사진전 사례

아. 서포터즈 활용

서포터즈는 특정 단체, 팀, 브랜드 등을 지지하고 홍보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로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GCIDA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 영역은 ① 콘텐츠 제작(블로그, SNS, 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CIDA의 소식, 정보, 이벤트 등을 홍보한다), ② 오프라인 활동(행사 참여, 캠페인 진행, 제품 체험 등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GCIDA를 홍보한다), ③ 온라인 홍보(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GCIDA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홍보 효과를 높인다), ④ 아이디어 제안(GCIDA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⑤ 피드백 제공(사용자로서 GCIDA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선에 기여한다) 등이다. 한편, <그림 4-15>는 외교부 서포터즈 모집 공고 예시이다.

KOREAZ

서포터즈 모집

외교부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2025 외교부 <제5기 KOREAZ 서포터즈>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일정

- 서류 접수 : 2025. 3. 14.(금) ~ 3. 28.(금)
- 면접 대상자 발표 : 2025. 4. 2.(수)
- 대면 면접 : 2025. 4. 5.(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4. 9.(수)
- 발대식 : 2025. 4. 18.(금)

모집인원

- 32명 (한국인 16명/외국인 16명)

지원자격

- 영어 및 한국어 구사
- 공공외교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

우대요건

- 제 2외국어 능통자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 (영상 및 사진 편집)
- 개인 SNS 활성화

활동기간

- 2025년 4월 ~ 12월 (9개월)

활동내용

- KOREAZ 콘텐츠 제작
- 외교부 SNS @mofa_koreaz
- 서포터즈 SNS @koreaz_supporters
- 외교부 주요 행사 취재 및 지원

활동혜택

- 월별 활동비 지급
- 임명장 및 수료증 지급
- 외교부 주관 행사 체험
-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 기회 제공

지원방법

온라인 링크 접속을
통한 구글폼 지원서 작성
[https://forms.gle/
LDyqNpzW4crcTneQA](https://forms.gle/LDyqNpzW4crcTneQA)

<그림 4-15> 대한민국 외교부 서포터즈 모집 공고 예시(<https://www.mofa.go.kr/>)

05

결론

5. 결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국제보호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하나의 지역이 두 개 이상의 국제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다중 국제보호지역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GCIDA는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훈련을 국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설립된 유네스코 C2C로서, 향후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GCIDA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목표로 현재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기관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GCIDA는 법적·제도적 기반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으나, 조직 구성, 인력, 예산 등 운영 역량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핵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부족과 재정 자율성의 결여는 장기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인력 확충 및 자원 다변화로 실행 기반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 및 국가별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의 격차가 존재한다. 둘째, 다중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통합 정보 창구가 없어 관련 데이터·정보·지식이 분산되어 있다. 셋째, 다중 국제보호지역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유기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진단한 기관의 현황과 국제 동향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GCIDA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홉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과제는 ▲국제보호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MIDAs 정보공유 허브 구축·운영 ▲MIDAs 가이드북 출판 사업 ▲MIDAs 국제 네트워크 및 정기 포럼 개최 ▲MIDAs 유기적 관리 매뉴얼 마련 ▲e-캠퍼스 및 인증 제도 추진 ▲MIDAs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미래세대 국제보호지역 교육과정 개발

▲재원 다변화와 거버넌스 기반 확립 등 기타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GCIDA의 설립 취지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며, 기관이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로드맵 및 조직·예산 확충 계획을 제안하였다. 로드맵은 기관의 성장 단계를 도려하여 단기(2025-2027), 중기(2028-2030), 장기(2031~2035)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전략과 실행과제를 구조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적 추진체계는 GCIDA가 단기 성과 위주의 산발적 사업 수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갖춘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기관의 비전과 핵심 가치에 명확히 기반을 둔 핵심 과제들은 조직 내외부의 신뢰도와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확립하는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계획과 실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GCIDA는 기관 운영의 장기적 연속성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 방안의 추진을 통하여 GCIDA는 다양한 국제보호지역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원하고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는 혁신을 통해, 유네스코 정책과 현장을 잇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이자 전략적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GCIDA가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제보호지역 관리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립생태원 (2025) <https://www.nie.re.kr>.
- 관계부처 합동 (2023) 2030 국가보호 지역 확대 로드맵.
- 관계부처 합동 (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관계부처 합동 (202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 김귀곤 (2003) 습지와 환경-자연과 인간이 만드는 습지. 아카데미 서적.
-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Second Edition 2011)의 번역서.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작업 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
- 유네스코-대한민국 정부 협정문 (2023) UNESCO Feasibility Study for GCIDA.
- 유네스코 (2022) 2022-2029년 중기 전략 (41 C/4).
- 유네스코 (2024) Approved Programme and Budget. 42 C/5, 2024-2025. biennium of the 2022-2025 quadrennium.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 세미나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국제보호지역 -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2016) 한국 MAB(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전략과 행동계획 2016-2025. SC/EES-2022/IG/2.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2017)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국제보호지역 운영 현황 비교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 유지희, 김대우, 유완상, 이정영, 박영운, 김희정 (2024) 국내·외지질공원관리현황: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지질학회지제60권제2호,p.191-200.
- 제주특별자치도 (2017)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가칭) 운영방안 마련 워킹그룹·워크숍 운영 최종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18)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계획 수립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2021) 2030 제주 세계 환경 수도 조성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24)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환경부 (2018)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한글번역본).
- 환경부 (2024). GCIDA 설립 계획안.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2002) Decision VI/26 : Strategic Plan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GCIDA (2024) 정관 및 운영규정.
- GCID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2024)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결과보고서.
- IUCN, (2016) Managing MIDAs: Harmonising the management of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 KEI (2018).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계획 수립 연구.
- Liu N, Wu Y, Liu Z (2025), Decline in global biodiversity intactness over the past two decade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 Martin PA, Green RE, Balmford A (2019) The biodiversity intactness index may underestimate losses. *Nature Ecology & Evolution*.
- Price MF (2017) Managing MIDAs: Harmonising the Management of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Ramsar Sites,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and UNESCO Global Geoparks,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37 No 3.
- Scholes RJ, Biggs R (2005) A biodiversity intactness index. *Nature*.
- Steffen W, Richardson K, Rockstrom J, Cornell SE, Fetzer I, Bennett EM, Biggs R, Carpenter SR, De Vries W, De Wit CA, Folke C (2015) Planetary boundaries: Guiding human development on a changing planet. *science*.
- UNEP-WCMC and IUCN (2024) Protected Planet Report 2024. UNEP-WCMC and IUCN: Cambridge, United Kingdom; Gland, Switzerland.
- UNESCO (2022) The role of UNESCO biosphere reserv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s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licy brief.
- UNESCO and IUCN (2023) World Heritage - A unique contribution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https://doi.org/10.58337/LSRE8424>.
- UNESCO (2024)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24/01. 31 July 2024.

